

#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5. 1.

1. 평가개요 .....	1
2. 평가결과 .....	4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	13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	253

# 1. 평가개요

## (1) 중점 평가방향

### □ 자체평가의 내실화로 정책성과 창출지원

- 국정과제와 성과관리시행계획 간 상호 연계 강화를 통한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문화융성’의 정책성과 창출 지원

### □ 자체평가 역량 및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부터 충분한 내·외부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체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 및 결과 공개로 신뢰성 확보
- 2014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계획 수립지침 및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등 정부업무평가 지침 규정 철저 준수

### □ 평가결과의 체계적인 환류를 통한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책임행정에 기여

## (2) 평가추진 개요

### □ 평가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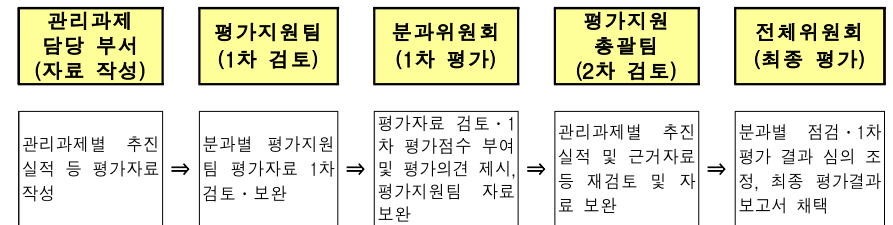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 30명 중 민간전문가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문화예술·문화콘텐츠산업·관광산업·체육·홍보 5개 분과위원회(분과위원 25명) 구성
    - \* 행정관리역량(4명)은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
  - 성과관리계획 심의·의결 및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운영(2회)
  - 분과별 현장 점검 실시(5회)를 통한 주요정책 현장 이해도 제고 및 자체평가 역량 강화

### ○ 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 각 분과별로 평가 지원을 위해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자료 작성·검토, 최종 평가자료 작성·검토 및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의 지원, 분과위원회 운영 등 역할 부여
- 정부업무평가 총괄담당관을 중심으로 평가지원총괄팀을 구성하여 평가자료 검토 및 보완 추진 등 평가 지원 총괄

### □ 평가방법

#### <자체평가 절차>



### ○ 평가 자료 작성 및 1차 검토

- 담당부서에서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보고서 및 최종평가보고서 등 평가 기본 자료 작성 및 평가지원팀의 1차 자료 검토
- 과제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 제시

### ○ 분과별 평가자료 검토 및 1차 평가

- 분과위원회와 평가지원팀에서 분과위원의 평가자료 검토 및 평가지원팀의 자료 수정·보완
- 필요시 현장 점검 등 병행 실시, 분과위원의 과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정책자료 등 제공

### ○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 분과별 평가자료에 대해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및 자료 수정·보완

### ○ 전체위원회 최종 평가

- 분과위원회의 1차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점수 확정
  - \* 관리과제별 평점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 관대화 여부 검토 및 과제별 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
- 과제별로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 효과,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대안 제시 등 질적 측면 평가 강화
- 평가결과는 상대등급화 추진으로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하고 결과 공개시 등급기준으로 활용
-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전체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평가개요,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및 개인별 결과 반영계획 등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14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61개 관리과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방법(측정기준)
정책집행	추진일정의 충실성	○평가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관련기관 협업도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협조체제 구축 및 운영 여부
	환류 이행실적	○'13년 자체평가 결과의 개선조치 사항 이행 및 '14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시 제시된 정책개선 및 지적사항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정책성과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정책효과성	○당초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평가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 기여 정도

\* 정부3.0 일하는 방식(개방·공유·소통·협력) 반영 시 가점 부여

2. 평가결과

(1) 총 평

- '14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6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4개(6.6%), 우수 8개(13.1%), 다소 우수 9개(14.7%), 보통 19개(31.1%), 다소 미흡 9개(14.8%), 미흡 8개(13.1%), 부진 4개(6.6%)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국민문화복지 증진' 등 12개 과제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고객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등 12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61개 관리과제의 12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 11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3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HD드라마타운 조성,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및 종교문화기반구축 사업 등의 공정률 지연이 특징적인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 성과치가 목표치 대비 150%를 상회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15년도에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4개 과제는 정부 3.0 경진대회 출품 실적을 감안하여 별도 가점을 부여함

(2) 주요성과

□ 인문정신문화 진흥

- 민간전문가 중심의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력,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 인문정신문화 진흥 대토론회(14.7.9),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 수립·발표(14.8.6)
- 길 위의 인문학,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등 인문정신문화의 사회 확산 사업 확대
  - \* 길 위의 인문학 : 264개 도서관·박물관에서 인문프로그램 제공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 1,504명 파견, 29만 유아 대상 사업 운영

## □ 국민 문화복지 증진

- (문화나눔 사업) ('13년) 523억원, 309만명 → ('14년) 613억, 245만명
- (소외계층 지원) 기초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 (994,264명),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기획사업 추진 (341,022명),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사랑티켓 지원(2,531개 공연, 244,314명 관람)
-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교정시설 (2,000회 공연, 500,000명 관람), 지방문예회관 운영활성화 및 지역민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351개 기관, 410,000명 관람), 지역별 생활 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1개 단체, 38,200명 수혜)
- (문화다양성증진 사업 확대)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문화 간 소통 및 교류 지원
  - \* 문화다양성 교육연수 운영(20회), 커리큘럼 개발(2종)
  - \* 무지개 다리 사업 : 17개 지역, 140여개 프로그램 운영, 36,369명 참여

##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 세종학당의 단계적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국외 한국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으로 한국어 보급 체계의 효율화 도모
  - \* 세종학당 확대('13년 120개소→'14년 130개소),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24명→39명)
- '쉬운 공공언어 쓰기 운동'으로 국어 관련 조례 제정 확대('13년 말 17개→'14년 말 33개) 및 언어문화개선 관심 고조 → 범국민 언어 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운동으로 확대, 범국민연합 출범('14.12.18.)

## □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 체계 마련

- (사회보장 강화)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창작 지원금(월 100만원, 3~8개월) 지원
  -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829명), 창작지원금 지원(1,600명)
- (직업역량 강화) 예술인들의 교육 지원 및 기관·기업·지역에의 파견

지원을 통한 직업역량 강화

- \* 학습공동체 지원 450명, 교육이용권 지원 270명, 예술인 파견 330명
- (근로여건 개선) 예술인의 법률 상담, 신고를 위한 예술인 신문고 운영 (4월~) 및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 지원 '반디돌봄센터' 개소(4월)
  - \* 반디돌봄센터 이용인원 141명
- (표준계약 확대) 국고 및 기금 지원과 연계하여 지원단체의 표준 계약서 사용 의무화('14년~)
  - \* 국립극장 등 13개 국립단체·공공기관 대상 점검 시 사용비율 : 98% ('14.7월)

## □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아동·청소년) 학교 안팎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감수성 및 창의성 배양
  - \* 전국 7,809개교에 국악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 4,735명 파견
  -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학생 수 : '13년 220만명 → '14년 255만
  -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 수 : '13년 5만명 → '14년 6.2만명
- (소외계층)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애인 및 농어촌 등 소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로 예술체험 기회 제공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 \*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13년 26만명 → '14년 3.5만명
  - \*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수혜 아동 '13년 1,572명 → '14년 1,920여명

## □ 핵심콘텐츠 집중 육성

- 유관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 로드맵 수립
  - \*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관계부처 합동) 대통령 보고(4.4/제3차 문화융성위)
  - \*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및 「2014년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 계획」 수립·발표(5.22)
  - \*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 개최(미래부-문체부 장관급 회의, 총 6회 개최)
  - \* 콘텐츠산업 한·중 동반성장 추진계획 발표(12.10/대외경제장관회의)
  - \*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12.18)
-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91.2조원(전년 대비 4.5% 증가), 수출액 49.2억달러(6.8% 증가), 종사자수 62.2만명(1.7% 증가)

## □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신속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및 온라인 저작권 이용계약 서비스 운영
  - \* 음악(전송·복제), 어문(전송·복제 이용허락/도서관·수업목적 보상금), 뉴스(전송) 거래 계약 건수 3,810건('14년 12월 기준)
- 공유저작물 발굴 및 디지털화 지원, 일반국민이 자율적으로 저작물을 등록하는 민간자율등록시스템 구축 등 공유저작물 수집 강화
  - \* 민간단체(한국미술협회,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등)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총 6만건의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및 서비스
  - \*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신규협력으로 1천건의 만료저작물 디지털화 및 서비스
- 네이버 지식백과 등 민간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한 공유저작물 서비스 채널 다양화, 공유저작물 포털서비스 확대, 비즈니스 컨설팅 등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도모
  - \* 공유저작물 콘텐츠 DB 구축(누계 52만건)
  - \* 공유저작물 이용실적(다운로드+원문보기) : 259만건('14.11월 말 기준)
  - \* 공유저작물 사업화 지원 건수 : 39만건(EBS 문화센터, 미래엔 등 7곳, '14.11월 말 기준)
  - \* 공유저작물 비즈니스 컨설팅 운영(10회)

##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 마이스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제회의 개최 세계 3위(아시아 2위, 635건) 달성하는 등 한국 마이스사업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 (UIA 기준, '14년 6월 발표)
- '14.9월 실시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유치실적 중간점검 결과, '14년도 목표치인 25만명을 상회한 약 26만 5천명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기대

##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육성

- 지역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 주민이 협력적으로 관광경영공동체를 창업·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관광의 효과가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2013년 5개지역 시범사업(29개 조직발굴, 주민 331명 참여)/ 2014년 20개 지역 본격추진(110개 조직발굴, 주민 1,111명 참여)

## □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9.3% 증가('13년 45.5%→'14년 54.7%)
- 국민체력인증제 성공적 운영으로 정보와 지식부족 등으로 과학적 체력 관리를 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보편적 체육 복지서비스 제공
  - \* (거점센터)21개소 86,421명 참여 / (체력증진교실) 6,142명 참여
-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및 고령화시대에 따른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13년 830명 → '14년 1,080명)

## □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 초중고 학교운동부 170개교 15억원 지원, 대학운동부 65개교 32억원 지원 ('14년 신설), 실업팀 창단지원 23개팀 15억원 및 운영지원 61개팀 29억원 지원을 통해 훈련여건 개선, 선수 저변 확대에 기여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5개 종합대회 및 각종 선수권대회, 친선경기 참가지원을 통해 대표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사전 준비
- 선수·지도자·체육인에 대한 스포츠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 및 신고·상담 등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 기반 구축

## □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 공공매체 협업 홍보 활용, 비정상의 정상화(국조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기재부), 정부 3.0(안행부), 기초연금법(복지부) 등 주요 국정과제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총 72개 정책과제 집중 홍보
- 42개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민간 보유 506개 매체 대상 동시 홍보
  - \* '13.5월 시행 후 참여매체 지속 확대(초기 91개 매체 → 현재 506개 매체)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홍보 매체를 홍보에 공동으로 이용, 별도 비용 없이 홍보콘텐츠 파급 효과 제고 등

### (3) 개선·보완 사항

#### □ 고객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 성과지표 중 ‘사립박물관 1관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목표치가 미달성 되었으며, 외생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여타 문화기관의 실적과 비교해 볼 때,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마련이 필요

#### □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

- 2014년도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대상 13개소(지자체 9, 민간 4) 중 사업취소(2개소) 및 지방비 미확보 사업이 다수 발생하여 사업 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이 필요

#### □ 한국 문화 저변 확대

- 재외문화원 권역별 전시 프로그램 순회 사업 진행 중 현지 특성상 유럽지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전시 공간 대관이 지연되어 순회가 지연됨
- 순회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관 가능여부 등 현지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 필요

#### □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 서울관 설립에 따른 3관 특성화 전략 수립·운영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용 문제점 등으로 국내 미술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미술관 역할 확장에 미흡
- 주요 성과지표인 ‘미술관 관람객’ 목표치를 과천관의 3년간 평균 관람객 수(74만명)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서울관 설립에 따른 성과 및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서울관 개관 효과 분석을 통한 재설정 필요

#### □ 전통예술중고 지원

- 2011년 실시한 학교 건축물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인문관(예술관)과 기숙사 일부 보 및 기둥의 내력이 부족하여 구조보강 필요
- 성과지표 중 ‘학교 교육활동 평가 만족도’ 목표달성 노력과 함께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목표치의 합리적 재설정 필요

#### □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 현장중심 도제식 훈련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창의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사업종료 후 성과 검증(수료생 취업률)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됨

#### □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 당초 ‘14.12월 착공 예정이던 HD드라마타운 건립공사가 문화재청의 문화재 시굴조사 이행통보(‘14.11.26)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므로 문화재 시굴조사 이행 후 공사의 조속한 추진 필요

#### □ 문화관광 올림픽 특구 개발 추진

- 특구 지정 이후 지역의 현안사업 반영, 사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특구종합계획 보완·변경 필요

#### □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 한일 관계 영향 및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한 방한 일본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 □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매년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접근성 개선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가 필요
- 또한, 평가시점인 ‘14.12월 현재 확정치를 산출할 수 없고 표본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표의 재검토가 필요

#### □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 시도교육청의 지방비 확보가 미흡하여 당초 계획(3,077명)보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실적(2,911명)이 저조함
- 향후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 공공기관, 은행, 주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KTV에 대한 노출을 증대 시키고 화제&이슈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

(4) 평가결과 종합

순번	관리과제명	평가등급
1	국민 문화복지 증진	우수
2	인문정신문화 진흥	매우우수
3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다소미흡
4	고객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부진
5	지역·전통문화 활성화	다소우수
6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우수
7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활성화	보통
8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다소우수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보통
10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보통
11	국립국어원 운영 활성화	다소우수
12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	미흡
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보통
14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운영	다소미흡
15	한국 문화저변 확대	미흡
16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보통
17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우수
18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다소우수
19	시각예술 및 디자인 문화 진흥	보통
20	국립중앙극장 운영	보통
21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미흡
22	문화예술교육지원	우수
23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보통
24	국립국악종교 운영	다소미흡
25	국립전통예술종교 운영	미흡
26	국악방송 활성화	다소미흡
27	국립국악원 운영	보통
28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지원 활성화	보통
29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 개발	다소미흡
30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부진
31	핵심콘텐츠 집중 육성	우수
32	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	다소우수
33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다소미흡

34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보통
35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매우우수
36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다소우수
37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미흡
38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보통
39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보통
40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 관리	다소우수
41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육성	우수
42	생태기반의 지역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다소미흡
43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	보통
44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부진
45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매우우수
46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기반구축	보통
47	문화관광의 올림픽특구 개발	미흡
48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매우우수
49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부진
50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미흡
51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우수
52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보통
53	스포츠산업 육성	다소우수
54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 조성	다소미흡
55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보통
56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보통
57	부처 홍보 역량 강화	다소우수
58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우수
59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다소미흡
60	국민중심 현장 소통 및 온라인 소통 확대	보통
61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미흡

###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국민문화복지 증진	우수
---	-----------	----

#### □ 총평

-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및 향유수준 제고,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참여의향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 제고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표현기회 및 향유 기회 확대

#### □ 주요 성과

- 문화나눔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으로 2009년도 174만 명에서 2014년 245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2014 문화나눔사업 사업별 수혜인원>

(단위: 명)

사업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통합문화이용권	1,440,000	1,335,286	92.7%
소외계층문화순회	588,572	500,000	85.0%
방방곡곡문화공감	477,514	410,000	85.9%
사랑티켓	320,000	166,314	52.0%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38,101	38,200	100.3%
총계	2,864,187	2,449,800	85.5%

#### (문화나눔 사업 확대)

- 문화나눔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혜자 확대  
('13년) 523억원, 309만명 → ('14년) 613억, 245만명(\* '14. 12월 현재 실적)

#### (소외계층 지원)

- 기초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 994,264명
-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기획사업 추진: 341,022명
-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사랑티켓 지원: 2,531개 공연, 244,314명 관람

####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교정시설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 2,000회 공연, 500,000명 관람
- 지방문예회관 운영활성화 및 지역민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 351개 기관, 597건 추진, 410,000명 관람
- 지역별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31개 단체, 38,200명 수혜

- 문화다양성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문화 간 소통 및 교류 지원

#### (문화다양성 교육 연수 운영 및 커리큘럼 개발 확대)

- '12~'13년 개발된 커리큘럼 활용 분야별 맞춤형 연수 운영 20회 실시, 교육커리큘럼 2종 추가 개발

#### (문화다양성 가치 확대를 위한 콘텐츠 발굴·지원·보급 도서 4종, 영상 6편 (다양한 문화주체 간 문화소통 및 교류 기회 확대)

-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한 문화적 주체로서 이주민 등 다양한 문화 소수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자존감 회복 도모, 지역 내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17개 지역, 140여개 프로그램 운영, 36,369명 참여)
-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및 케이블 다문화방송을 통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차이 극복 기회 제공 (370개의 다언어 프로그램 운영)
- 문화기반 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식 정보 공유 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 증진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문화다양성 지수 측정,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3,000여개 자료 탑재)



- 수준별(다문화가족 자녀, 이주노동자 등), 매체별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통한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의 질 향상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랑티켓'사업 예산 축소\*(전년대비 36% 감소)에 따른 공연관람 인원 감소로 문화나눔 사업 전체 성과 저해 요인으로 작용
  - \* '13년 1,956백만원 → '14년 1,251백만원(감 695백만원)
-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상반기 진도 선박 침몰사고로 인한 야외행사 축소(취소) 및 전시 지원이 분리되어 관람인원이 다소 감소
  - \* '13년 공연·전시 지원 → '14년 공연 지원

□ 조치계획

- 2015년 '사랑티켓'사업 계층별 지원금액을 차별화하여 참가작품별 맞춤형 지원 추진
  - \* 공연 [개인] 8세 이상 10천원, 7세 이하 5천원, [단체] 8세 이상 7천원, 7세 이하 3,000원, 전시 5천원
- 2015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통해 공연·전시 지원 확대 및 비활성화 문예회관 집중 지원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계획-집행-성과-환류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 이행도 높임 ·세월호로 인한 상반기 기획사업 추진 저조, 하반기 집중 추진 등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함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수혜자 중복방지 및 지역별 사업 안배 등을 위하여 지역주관처 일원화, 협력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성공적 수행 실시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저조에 대한 자체평가 지적을 반영, 여름방학, 관광주간 등 국내 대규모행사 연계한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이용 실적 거양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성과지표 '문화나눔 사업 참가자 만족도'는 목표치(83.3)대비 84.1점을 받아 100.9% 성공적 달성 ·성과지표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참여자 만족도'는 목표치(85)대비 85점을 받아 100%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문화나눔 사업 참여자들의 공연관람 회수 증대, 여가만족도 제고,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 효과거양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2 인문정신문화 진흥 매우우수

□ 총평

- 우리 사회가 봉착한 사회·문화적 문제점 해결과 성숙한 시민의식 정립을 위한 인문적 성찰의 일상화 토대 마련
  - 민간전문가 중심의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교육부 공동,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 수립·발표(14.8.6)
    - \* 초·중등 인성교육, 대학 인문교육, 학술진흥,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융복합 확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다양화, 국제교류 활성화 등 포함
  - 교육부 공동으로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안 마련, 부처의견 수렴(14.10.20) 및 공청회 등을 거쳐 15년 중 제정 추진
  - 문화창작자 등 현장전문가, 관계부처와 협력, 문화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문정신문화 자원 DB 구축 및 보급
- 인문프로그램 확대 및 방송 프로그램, 언론 등과 연계하여 생활 속의 인문정신문화 확산
  - 북스타트 운동, 언론연계 캠페인 등을 통해 책 읽는 사회분위기 고조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조성(7만여명 수혜)
  - 길 위의 인문학 등 지역 밀착형 인문프로그램 확대, 전국 264개 도서관·박물관에서 총 17만여명 참여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등 수혜자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 전국 4,439개 유아교육기관의 29만여 유아 참여
- 지역에 소재한 국학자료 발굴·수집 및 연구를 통해 전통에 기반한 인문정신문화 자산 지속 확충
  - 지역 국학자료 2.1만여 점 수집, 국학교양도서 보급 및 순회 교양강좌를 통한 대중 확산 추진

□ 주요 성과

-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을 통한 문화기반 강화

-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구성, 정례회의(9회)를 통해 '인문정신 문화 진흥을 위한 7대 중점과제' 수립·발표(14.8.6)
  - \* 인문특위·문체부·교육부 합동 언론브리핑 및 VIP보고회 개최, 인문특위 위원 언론기고 등을 통해 공중파 등 60여회 보도
-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과정에서, 권역별 인문정신문화 진흥 토론회 (14.5~6월, 6회)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대토론회'(14.7.9)를 통한 인문활동 현장의 의견 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체계적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가칭)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 \* 공청회 등을 거쳐 15년 중 문체부·교육부 공동소관 법으로 제정 예정 (5년단위 중장기 계획, 총리소속 심의회, 분야별 전담기구 등 포함)
- 교육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기관 참여, '인문정신문화진흥협의회' 운영(총 9회)으로 중장기 협력기반 조성 및 인문정신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2건 발굴·추진
  - \* 인문정신과 전통창작소재 국제콘퍼런스(14.11.20), 한국문화유전자 해외배포(14.12월)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을 위한 세대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
  - (유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확대를 세대간 인문정신문화 전승('13년 917명, 19만 유아 → '14년 1,504명, 29만 유아)
  - (청소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등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13년 65개관, 1,501회 → '14년 84개관, 2,872회)
  - (청년층) 청년 인문캠프를 통한 인문적 성찰 기회 제공('13년 1회 → '14년 2회)
  - (성인층)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 강좌·탐방 결합 프로그램 운영('13년 121개관, 594회 → '14년 180개관, 1,538회)
- 국민독서운동 지속 추진을 통한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조성
  - 도서관, 문학관 등 공공기관의 독서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인문독서아카데미』 개발·운영('13년 13개관, 260회 → '14년 60개관, 1,164회)
  - 독서환경 개선을 통한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 18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책 꾸러미 지원('13년 11만명 → '14년 12만명)

- 독서동아리 결성 지원('13년 185개→'14년 200개) 및 기업 등 연계 우수 독서경영 기업 인증('14년 신규, 20개 기업)
- 어르신 대상 '대활자본 도서' 제작·보급('13년 6,900권→'14년 7,200권)
- 방송 및 언론과 함께하는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캠페인 전개
  - \* '책 읽어주는 라디오'와 공동 독서캠페인 전개(EBS FM, 9~12월, 300회), '책 세상을 열다' 낭독회(조선일보, 120회) 및 공개토론회(6회) 추진, 「책, 권하는 CEO, 책읽는 직장」연중 캠페인 및 독서경영의 모범이 되는 기업 현장 사례 발굴 소개(국민일보, 50회)
- 9월 독서의 달 '대한민국 독서대제전' 개최('14년 신규, 군포, 100만명 방문)
  -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병영 및 교정시설 70개소/국방부, 법무부 협업)
-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국학자료를 발굴하고 타 분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인문정신문화 자원 확충 및 활용성 강화
  - 민간소장 국학자료(고문서, 고도서 등) 2.1만점 수집(누적 41만점), 국학순회 교양강좌(총 5회) 등 지역 정신문화의 원천을 발굴·공유
  - 조선시대 일기류 등 기록자료를 활용, 창작원천소재로 보급(600건, 누적 2,400건)하여 대중매체의 인문정신문화 콘텐츠 제작 유도
  - 한문교육원 내 전문과정 신설, 한국학 진흥 기반 조성
    - \* 15년도 입학생 모집 진행 중(총 10명)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별·세대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은 지속 확충되고 있으나, 소외계층 등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
  - 민간 인문활동의 대도시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길 위의 인문학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외계층과 낙후지역 등의 접근성은 부족
  - 소외지역 및 낙후지역 등을 고려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 누구나 인문적 자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 조치계획

- 병영, 복지시설 등 특수·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체계적인 추진계획 설정에 따라 추진실적이 정상적으로 진행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추진하고, 지속적인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 도모 - 통일부와 협업을 통해 새터민 대상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실시(7.29/경기평생교육학습관) 및 통일을 주제로 하는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 교육부 협업으로 인문학(HK)강사 연계하여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 교육부·외교부 협업을 통해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2개의 협력사업 개발·추진 -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교육부 공동으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 법무부와 '교정시설 독서지원 사업', 국방부와 '병영독서활동지원사업'을 협업으로 추진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13년 자체평가 및 '14년 중간점검 등에서 지적사항 없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독서프로그램참여자 만족도, 이야기할머니 사업 만족도 등 2개의 성과지표가 초과달성하는 등 평균 달성도는 102%임. * '15. 1월중 만족도 결과 산출 예정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현재 우리 사회가 봉착한 사회·문화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향점 제시

3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다소미흡

□ 총평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등을 통하여 정보의 획득 및 이용이 취약한 농산어촌,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 계층에게 도서관 관문문화서비스를 제공
- 도서관 통합서비스 구축 등 IT 기술을 활용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수준 향상

□ 주요 성과

- 13개시·도 36개관 문화 소외 지역 작은도서관 조성('14년)
  - ※ '04년부터 ~ '14년까지 557개소 조성
  - 작은도서관은 거리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공간, 마을 단위의 지역 공동체 문화형성의 장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구심적 역할 수행
  - 국고 및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추진, 지역간 균형 및 사업 추진의 안정화 도모
- 운영인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사서 지원
  - 공공도서관 76개관에 순회사서 1명씩을 배치, 관내 작은도서관 304개소 운영 지원
- 공공도서관 통합도서관서비스 시스템 구축(8개지역 295개관) 및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간 상호 대차서비스 시스템 시범 설치(3개지역)
- 다문화 자료실 조성(7개관), 다문화 프로그램(110개관) 지원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 연구를 통하여 도서관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개선 기반 구축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도서관 양적 성장에 비해 서비스 기반(인력, 예산)이 부족
-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도서관(공공,작은)에 대한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한 지원이 필요

□ 조치계획

- 대국민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여건 개선 등으로 운영 활성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체계적인 추진계획 설정에 따라 추진실적이 정상적으로 진행
	1-2. 관련기관 협업도	미흡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도서관 평가통계 담당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추진하고, 지속적인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수요자 욕구충족 및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방안 모색 - 추후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여러부처의 협력을 통한 지원 필요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미흡	○ 지적사항을 내년도 성과계획에 반영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성과목표를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하여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

4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부진

□ 총평

- 박물관 기획전시 강화, 교육 프로그램 대중화로 국민 문화향수권 증진에 기여(기획전시 280건)
- 전문인력 고용 확대를 통한 사립박물관의 운영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306명)

□ 주요 성과

- 사립박물관 기획전시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1관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가 5,454명으로 목표 대비 80% 달성
    - \* 115개관(사업초기 사업포기 기관 4개관 제외)에서 총 627,210명(11월 31일 기준)의 교육 수혜자 발생
    - \* **4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초·중·고 대상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참여 저조**
  - 박물관 119개관에서 기획전시 280회 개최로 목표 대비 102% 달성
    - \* '14년부터 학예사 4등급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예사 등급별로 차등지원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도(%)
사립박물관 1관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6,818	5,454	80
사립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건수(회)	275	280	102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외부적 환경변화 등에 따라 성과목표 미달성
  - **세월호 사고로 인해** 사립박물관 1관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80% 달성)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 \*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사업참여기관 84개관 중 15개관) 및 박물관 체험교육 진행시 안전교육 강화 등 참여도 제고 및 안전강화를 위한 대응 조치 마련·시행

□ 조치계획

-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행('15)
  - 교육사 선정기준 강화 등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 \* 자격증 소지자(교사자격증 또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또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기준 준수 강화
  - 박물관, 협회, 관련기관을 연계하여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홍보
- 기획전시 건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행('15)
  - '15년 사업관 선정 심사 시 기획전시 개최건수 등 전년도 실적 반영 검토
  - '15년도 사업설명회('15. 1월) 개최 시 기획전 개최 독려 안내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분기별 추진일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사업 수행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교육사 지원사업 관련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상호협조 체제 구축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공공도서관을 비롯,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국립 시설 등에서 야간개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야간개장 예산 신규 반영('15년 1.2억원) * 지적사항 : 도서관뿐 아니라 문화예술 관련 공공 기관의 운영시간 연장이 요구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매우미흡	· 사립박물관 1관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80% 달성 · 사립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건수 76% 달성 *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4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초·중·고 대상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저조 및 상반기 기획전시 개최 어려움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기획전시 강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대중화로 국민 문화향수권 증진 · 사립박물관의 운영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가점	정부3.0 '일하는 방식'	우수	· 자체 정부 3.0 경진대회 출품(박물관 소장유물 고화질 이미지 무상개방)

5

지역·전통문화 활성화

다소우수

□ 총평

- 지역주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문화 발전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지원,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지역 문화 발전 기반 구축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확보에 이바지 \* '11년 2,072개소, '12년 2,182개소, '13년 2,375개소 평균 매년 7% 증가
  - 지역 생활문화 확산의 거점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 기반시설 확충
  -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고령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역 주도의 문화의 달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 문화 역량 강화
- 한북진흥센터 출범, 한지 세계화 전략 국제 세미나 개최('14년 신규) 등 전통문화의 지원체계 강화 및 활성화 확대

□ 주요 성과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14.7.29)을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발전, 지역문화의 자생력 확보 등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문화 진흥 사업 추진 가능
-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전통문화도시 및 문화 특화지역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자체를 고유 브랜드화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경주역사문화도시(교촌한옥마을 조성, 한옥보존지구 정비, 도시경관 개성 등 5개 사업), 전주전통문화도시(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 기반

- 구축 등 4개 사업),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공산성 환경정비지구 정비, 성왕로 2단계 정비 등 6개 사업)
- **(문화특화지역 조성)** 문화도시 1개소(남원시), 문화마을 2개소(공주시 상신마을, 부여군 규암마을)
-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한국 광주, 중국 취안저우, 일본 요코하마) 개·폐막식 및 문화교류행사 개최
-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지역 소재 대학 및 문화재단,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 등 지역현안에 대한 컨설팅 실시, 민-관-학의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제고
  - \* '14년 9개 시도 15개 과제 수행
- 지역문화재단 자체 기획사업 지원 및 지역문화재단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의 핵심주체인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 \* 성북, 종로, 안산, 군포, 성남, 청주, 김해 등 7개 문화재단 지원
-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 시설 확충 및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문화향수 기반 마련
  -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건립,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등
    - \* 공공도서관(50개관 59,618백만원), 공립박물관(10개관 9,878백만원), 공립미술관(11개관 8,648백만원), 문예회관(19개관 12,685백만원), 지방문화원(8개관 3,939백만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생활권 단위의 복합문화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
  - \* 13개 시·도 35개 시설 대상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 적극적인 사회 참여 등으로 자아 성취감 및 만족도 제고 등 문화욕구 해소에 기여
  -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 : ('13년)12,068명→('14년)13,366명
- **(문화의 달 행사)** 전문예술인 중심에서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이 주도하는 행사로 확대, 국민 모두가 일상 속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를 통해 소통·공감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 마련

- 한복문화의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및 대중화 확산
  - 한복진흥 총괄기관인 한복진흥센터 출범('14.3월) 및 신한복 개발, 민간단체 지원(7개), 찾아가는 한복 교육(40개교), 한복의 날 행사 개최('14.10.25), 소외계층 한복 나눔(500여벌)
- 한지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세계화 제고
  - 한지품질표시제 확산('13년 18개→'14년 30개 업체), 민간단체 지원(4개) 및 한지 국제 세미나 개최('14.12월) 신설,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다큐멘터리 제작·방영('15.1월 예정)
- 전통문화융복합상품 개발 및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발굴·확산
  - 전통문화창조센터 운영 및 전통-현대문화산업 전문가 교육·제품 개발(40명),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관련 시범조성(2개)·우수사례 선정(3개)·디자인요소 발굴(7개)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업기간 연장 등에 따라 일부 사업의 평가일정 등이 지연

□ 조치계획

-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사업추진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연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대부분 과제들이 추진계획 대비 충실하게 이행됨 -일부 과제들이 예상치 못한 사유(세수부족, 업무 이관 등)으로 다소 일정 지연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타부처 및 관련 지자체, 문화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문화의달행사 개최 등 ○TF 구성·운영, 자문회의 개최,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협조체계 강화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목표(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의 조정 필요→문체부 고객만족도 표준조사표 적용, 목표치 조정(82점)</li> <li>○문예회관의 리모델링과 부대 문화환경시설 건립 제안→현재, 광특회계로 리모델링 지원중이며, 부대 시설의 경우 광특회계 지침 상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고 지원은 중장기 검토 필요</li> </ul>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목표(82점) 대비 실적은 88점으로(107%)으로 초과 달성</li> <li>○‘한복생활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사업기간 종료(’15.2월) 이후인 ’15.3월 실적 도출예정이나, 목표(72점) 달성 가능</li> <li>*프로그램 참여도 및 참가자 반응 등 감안</li> </ul>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을 통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지역문화 진흥 기반 마련</li> <li>○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문화의 달행사 추진 등을 통한 지역의 문화적 역량 강화</li> <li>○문화시설 확충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어르신문화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li> <li>○한복, 한지, 한국적 공간 등 전통문화자원의 육성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 재발견 및 현대 경쟁력 강화 도모</li> </ul>

<b>6</b>	<b>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b>	<b>우수</b>
----------	--------------------------	-----------

□ 총평

- 세종학당의 단계적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국외 한국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으로 한국어 보급 체계의 효율화 도모
- ‘쉬운 공공언어 쓰기 운동’으로 국어 관련 조례 제정 확대(33개) 및 언어문화개선 관심 고조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운동으로 확대, 범국민연합 출범(12. 18.)

□ 주요 성과

- 세종학당의 전략적·단계적 확대를 통한 교육 접근성 제고 및 교육의 전문화·표준화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 세종학당의 단계적 확대 운영(’13년 120개소→’14년 130개소) 및 공공기관 협업(한국관광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한 전략적 지정 확대
  -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24명→39명), 교원 재교육 지원 및 표준 교재 보급 확대(26,000여 부 판매/저소득 국가 학당 등 대상 6,470부 지원), 교원용 지침서 개발 등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강화
  - 세종학당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 인턴 파견(9개국 15명) 및 우수학습자 초청 문화 연수(47개국 119명)를 통한 한국문화 보급 확대 및 상호 문화교류 확산
  -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7월), 지역별 워크숍 개최(11월) 등을 통해 학당 간 정보공유 및 한국어 교육 종사자들 간 협력망 구축
  -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tang.org) 운영을 통한 다양한 한국어 교육 정보·콘텐츠 제공으로 맞춤형 한국어 학습 기회 제공
-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외 한국어 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강화
  - 국외한국어보급협의체(문체부·교육부·외교부) 운영(연중), 해외 한국어 보급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개최(3월) 등
- 전국 국어문화원 등을 통한 일반 국민 참여 제고

- 신규 국어문화원 지정(3~4월/서울 및 전남지역 2개소)
  - 한글주간 국민 참여형 문화행사 개최(전국 시도별)
  - 국어문화원 지원 기본계획 수립(1월) 및 평가에 따른 지원 실시(2월)
- 국어책임관 등을 통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 마련
- 정부 부처 대변인 협의회,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추진 결의(3. 28.)
  -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기본 지침 개발·보급(5.19.)
  - 지역 언어문화개선 및 국어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지원
  - \* '13년 말 17개 → '14년 말 33개
-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협업 확대 및 국어책임관 역량 향상 도모
- 2014 국어책임관 사업 공모 및 지원(5월/충남 등 6개 광역지자체)
  - 국어문화원·국어책임관 공동 연수회 개최(6월/광주, 150여 명)
  - 지역별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협의회 개최(7~12월)
- 범국민적 언어문화개선기반 조성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세부 추진계획 보고(3.13./총리)
  -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1·2차 토론회 개최(3.27./11. 27.)
  - 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콘서트' 개최(9.3./청소년 800여 명)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제2단계(2015년) 계획 보고 (10.2./국가정책조정회의)
  - KBS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연중, 102회)
  - 청소년 연극제 '안녕! 우리말' 개최(12.23.)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세종학당의 지원금 대부분이 인건비 및 운영비 위주로 사용(90%)되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부족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 조치계획

- 세종학당 운영실적 등을 고려한 시설투자 지원 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추진('14년 관련 예산 10억 원 확보, '15년 20개소 내외 개선 예정)
- 공익 광고(영상, 웹툰 등), 방송사 유명 프로그램 연계(MBC 우리말 나들이), 인터넷 포털 누리집(홍보 배너 설치), 반상회 홍보, 홍보 캐릭터포스터 배부 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총실	· 세종학당 신규 지정, 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및 각종 주요 행사 개최 등이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충실하게 수행 ·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관련 사업 운영, 행사개최 등 계획된 추진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
	1-2. 관련기관 협업도	총실	·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관계 부처(문체부·교육부·외교부)간 국외 한국어보급 협의체 운영, 세종학당 정책협의회 및 국제포럼 개최, 관련 자료 공유 등을 통해 협력 강화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2단계) 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 문체부·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협업 및 정책 연계성 마련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총실	· 자체평가 지적사항은 없으며, 평가 결과(매우 우수)를 바탕으로 성과 목표 달성 및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노력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총실	· 한국어 학습 수요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해 세종학당 수강생 수가 '13년 3.7만명에서 '14년 4만 여명으로 증가함으로써 성과 목표치 달성 · 국어 관련 민간단체 및 지자체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유기적인 사업 추진으로 당초 계획대비 38.3% 초과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세종학당 확대 운영, 교육의 질 제고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 세계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세계 속의 언어로서 한글 및 한국어의 가치 확산 도모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지자체 국어진흥조례 제정 확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으로 1,516개 민간 단체가 '언어문화개선운동 범국민연합'에 동참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며, '바른 말, 고운 말, 품격 있는 말'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말글의 가치 제고에 기여



## □ 총평

- 국민의 관심 제고 및 학술 발전에 기여하는 기획, 특별·테마전시 개최로 국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계기별, 가족중심의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인문학 부흥 및 문화가치 확산에 기여
- 우리문화재 국외전시 및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인적·학술적 교류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문화 인지도 확산 기여

## □ 주요 성과

- **전년 대비 고객만족도 및 관람객 수 상승**
  - 국립중앙박물관 고객만족도 : 83.1점(5점 척도)→83.1점(7점 척도)
  -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 : 828만명→858만명(추정치), 3.6% 상승
- **다양한 전시 개최 및 관람환경 개선**
  - 세계문화 향유와 공감을 위한 기획전시 개최
    - ‘근대 도시 파리의 삶과 예술, 오르세미술관전’ (5.3~8.31 / 379천명)
    - ‘로마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 (12.9.~ ‘15.4.5.)
  - 학술 연구와 연계한 기획전, 특별전, 테마전 개최
    - 기획전 ‘조선청화靑畵, 푸른빛에 물들다’ (9.30~11.16. / 37,516명)
    - 특별전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 (7.29~9.28 / 124,893명) 등 3건
    - 테마전 ‘무량수불, 극락에서 만나다’ 등 4건
    - 순회전 ‘고려시대 향로’ (13.12.17~14.2.16) 등 6건(7개 지역)
  - 전시관람 서비스 강화 및 전시 환경개선
    - 초중고 학생단체 전시해설 ‘청년 멘토’ 운영(654개교 / 66,048명)
    - 이야기가 있는 전시해설, 스마트큐레이터 운영 (427회 / 6,206명)
    - 행복한 박물관 나들이 운영(16회 / 510명), 창각장애인 수화 전시해설(44회 440명)
    - 통일신라실(5월), 금속공예실(12월) 상설전시실 개편·보완

- 전시용어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전시품 명칭 DB구축(국·한·영문)
-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종합안내 체계 개선(안내판 등, 92개소)

## ○ 박물관 교육, 문화행사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 서비스 제공

-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1종, 934회)
- 소외계층 및 지역 문화향유 기회 확대(3종, 71회)
- 박물관 문화향연, 청소년동아리 문화축제 등 개최(29회)
- 문화가 있는 날, 우리가족 박물관 탐방(전국 253개관 참여) 운영

## ○ 전시 및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문화 인지도 확산

- 우리 문화재 국외전시
  - 「조선미술대전(Treasures from Korea)」 미국 순회전  
필라델피아미술관(3.2.~5.26.), 로스엔젤레스카운티미술관(6.29.~9.28.), 휴스턴미술관(11.2.~‘15.1.11.)
  - 한·중·일 국립박물관 공동기획전시「동아시아의 꽃 도자명품전」  
(도쿄국립박물관/ 9.17.~11.24.)
-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 영국박물관 등 8개 기관 / 전시장 환경개선, 도록발간 지원, 학술자문 등
  - 휴스턴미술관 등 3개 기관 / 빗살무늬토기 등 117건 121점 유물 장기대여
- 인적교류 및 국제기구 참석
  -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15명),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운영(4명)
  - 한·중, 한·일 학술·인적교류(4회, 10명)
  - 국제기구·단체와의 교류협력  
AAM(5월), ASEMUS 및 VCM 이사회(9월), 한·중·일 박물관장 회의(9월)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람객 친화적인 전시해설 서비스 부족
  - 전시유물 관련 관람객의 이해도가 낮은 전문용어 사용
  - 피로도 높은 기계음(TTS)의 전시안내 음성 서비스(MP3, PMP) 운영

□ 조치계획

- 관람객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전시해설에 대한 심화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전시용어의 일원화를 위한 자료수집 및 구축
  - 매월 모니터링제도 실시로 전시안내문 내용 최적화
  - IT 활용 및 재능기부를 통한 전시안내 시스템 구축
    - 전시아카이브, 홈페이지, 모바일 연동 전시품 위치기반 안내 시스템
    - 비콘(Beacon)과 NFC 활용, KBS 아나운서가 참여한 친숙한 전시 안내 서비스 제공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일부 과제의 일정 지연이 있었으나, 당초 계획에 따라 충실히 추진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및 전시실 개편 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해외박물관과 전시 및 한국실지원사업 관련 협약체결 · 고객센터 제고를 위한 국립박물관 모니터링 운영(매월) · 박물관 홍보를 위한 외부기관과의 전략적 마케팅 제휴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지적사항 없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국립중앙박물관 고객만족도 목표 110.8% 달성 완료 ·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 목표 100.9%(추정치) 달성 예상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 관람객 관심 제고 및 문화기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관람객 유치 및 높은 고객만족도 목표 달성 · 관람객과 공감하는 다양한 전시와 국제교류로 글로벌 선도 박물관으로서 위상 강화
가점	정부3.0 '일하는 방식'	우수	· 자체 정부 3.0 경진대회 출품(박물관 소장유물 고화질 이미지 무상개방)

8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다소우수

□ 총평

- 우리 민속과 세계 민속의 비교연구와 유물의 수집·보존·전시를 통해 전통 민속 문화의 보급·선양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 민속 및 생활문화를 알리는 한국민속, 지역민속, 세계민속 교류 전시 등 다민족·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전시환경 구현
  - 국내외 민속유물 수집을 통해 박물관 조사·연구 기능 활성화
  - 다양한 계층 대상 사회문화교육 통해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전통문화 수요층 저변 확대
  -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민속의 보존과 연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유무형의 전통 민속 문화 발굴·보급 활성화
  - 세계 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협력 동반자관계 형성 및 상호문화 이해 기반 조성

□ 주요 성과

○ 창의적인 전시 기획을 통한 민속문화 활성화

- 한국의 대표 생활문화 기획전 개최·운영(7회)
  - '종가' 기획전 운영('13.12.4.~ '14.3.10.)
  - '힘찬 질주, 말' 2014 갑오년 말띠특별전 운영('13.12.18.~'14. 2.17.)
  - '목판, 지식의 숲을 거닐다' 공동기획전(5.16.~6.23.)
  - 강원 민속문화 특별전 '강원별곡'(7.23.~9.10.)
    - \* 국립춘천박물관 순회전(9.30.~11.23.)
  - 민속의 탐구전 '출산, 三代이야기' 특별전(7.16.~9.22.)
  - '청바지' 특별전(10.15.~'15.2.23.)
  - 2015 을미년 양띠 특별전 '행복을 부르는 양'(12.17.~'15.2.23.)
- 어린이 눈높이 오감 체험 전시(3회)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상설전(4.23.~'15.3월)
  - '똥 나와라 똥똥' 특별전(7.23.~'15.6.8.)
  - 우리숨씨전 '다양각색 박물관 이야기'(10.25.~11.18.)

○ **교육·공연·행사 운영으로 복합문화공간의 역할 강화**

- (교육) 어린이·청소년·성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94종, 2,122회, 174,562명 참가
- (공연) 우리민속한마당(주말)·수요민속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 계기 특별공연 등 78회 34,000명 관람
- (행사) 설(57,229명), 대보름(5,550명), 단오(230명), 추석(52,852명), 동지(예정) 행사 등 88,198명 참여

○ **생활문화의 심층적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관리 강화**

- (조사연구) 국내외 생활문화 조사 및 조사보고서 등 발간(16종)
  - (조사) '세계의 소금', '동아시아 상장례 현지조사' 등
  - (발간물) '강원의 민속문화', '청바지', '송림수제화' 등 16종
- (학술대회) '한국민속학자대회(10월)', '양띠 강연회(12월)' 등
- (자료수집) 국내외 민속자료 333건 820점, 아카이브 자료 33,564점
- (보존처리) 보존처리 315건 444점, 상태조사 2,543건 3,215점
- (자료활용) 민속자료 관내 76회 2,422건 2,960점, 관외 527건 3,648점  
아카이브자료 관내 93건 3,425점, 관외 165건 887점
- (정보공개) '민속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11~12월), '문화포털', '창조자산마당' 연계 민속자료 제공

※ 2013년 정부3.0 공공문화정보개방 우수기관 대상, 2013년도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최우수상, 2014년 공공문화정보개방 우수기관 우수상 수상

○ **국내외 생활문화 교류 확대**

- (지역 민속 진흥) '2014 강원민속문화의 해' 성공적 추진, '2015 경기 민속문화의 해' 관련 민속문화 조사(안성, 파주, 안산), '2016년 세종 민속문화의 해' 공동사업기관 확정(1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MOU 체결(12월)
- (지역 박물관 상생 발전) 지역 순회 공동기획전 9회, 교육 개발·운영 32개 기관, 소장품 정리 4개 기관 3,629건 등 지원

\* 공동기획전(9회) : 한국등잔박물관(용인) '우리의 불그릇, 등잔'(4.18.~6.29.),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양평) '양평을 거닐다'(5.8.~7.6.), 철박물관(음성) '소리, 쇠의 혼을 깨우다'(9.4.~11.2.), 영남대학교박물관·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경산) '나무, 일상을 수놓다'(9.25.~12.14.), 허준박물관(서울) '약장藥穢, 건강을 염원하다'(10.7.~11.30.), 진천종박물관(진천) '소리, 인간의 염원을 담다'(10.21.~12.28.), 실학박물관(남양주) '달력, 시간의 자취'(11.21.~'15.2.28.), 한국만화박물관(부천) '만화, 신과 만나다'(11.25.~'15.2.28.), 성호기념관(안산) '가보, 가학의 전통이 빛나다'(12.23.~'15.3.8.)

- (국제교류) 우리 문화 세계화와 해외박물관과 문화교류 확대

- 해외 순회전 '아리랑로드' (중앙아시아, 2회) 개최
- \* 카자흐스탄 국립중앙박물관(8.29~10.28), 우즈베키스탄 국립역사박물관(9.3~11.2)
- 방글라데시 다카국립박물관·카자흐스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실 개선
- 미국 휴스턴어린이박물관 MOU 체결(2월), 한국전시 지원(11월)
- 국제저널 무형유산 제9호 발간, 세계생활문화박물관(ICME), 국제 박물관교육위원회(ICOM CECA), 어린이박물관협회(ACM) 참석
- 제3회 어린이박물관 국제학술대회(6월), 한일 학술교류(8, 12월), '물질문화 연구와 박물관' 국제학술세미나(10월) 등 개최
- 문화동반자 연수(4개국 4명), ASEMUS 에듀케이터 교류(독일)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수장 공간 부족으로 민속자료 구입·수증을 통한 콘텐츠 확충 애로

□ **조치계획**

- 2016년 수장 공간 확충 예산 확보를 통한 공간 확보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자체평가계획상에 수립한 관리과제의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 완료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지자체, 교육청, 지역 공사립박물관과 상호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 · 민속자료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화포털', '창조 자산마당' 등 플랫폼을 연계 민속자료 공개 확대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관람객 수를 275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313만 명 달성(목표대비 약 114% 달성) * 외국인 관람객 수 2,111,306명(전체 68%) · 고객만족도는 73.5점으로 계획하였으나 82.2점 달성(목표대비 약 118% 달성) * 고객만족도조사 운영지침(문체부) 준용하여 공공기관 만족도 모델(PCSI)과 표준 조사표(7점 척도) 활용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박물관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해 성과목표인 '생활 속 국민 문화 기반 조성'에 직접적으로 기여 · 지역 민속진흥을 위한 '지역민속문화의 해', '협력망', '공동기획전'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보통

□ 총평

- 개관(12.12.26) 초기단계로서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내 최초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 위상정립을 위하여 전시기획, 자료수집, 조사·연구, 교육 및 박물관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온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명절·주요 국경일 등 계기별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특별전을 개최하여 살아있는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박물관의 인지도 향상과 기증문화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14년 한 해 동안 19,439점의 자료를 기증받아 전년대비 비약적 증가('13년 2,352점)를 이루어 전시의 기초가 되는 자료수집에 뚜렷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음

□ 주요 성과

- 상설전시실 운영 및 계기별 특별전 개최
  - 현대 설날의 변천 사진전(1.21~2.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특별전(3.1~4.13) 및 중국 순회전(4.17~4.26)/ 6·25전쟁 특별전 '철모에서 피는 꽃'(6.24~7.10)/ 방송을 통해서 본 한국 현대사 특별전(7.22~9.21)/ 시험을 통해서 본 한국 현대사 특별전(12.15 개막, 전시 중)
  - 내년도 광복7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를 위한 전시콘텐츠 조사연구
- 근현대사 자료 수집 및 정보서비스 확대
  -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료 수집 및 체계적 등록 관리

<2014년 자료 수집 현황>

구 분	공개구입	경매	기증	합 계
2014년	4,296	21	19,439	23,756
2010~13년	38,171	47	14,936	53,154
합 계	42,467점	68점	34,375점	76,910점

- 자료집 발간 및 특별전을 통한 소장자료 대국민 공개 서비스 강화
  - 소장자료 특별전 '고바우가 바라본 우리 현대사'(10.7~11.30), 소장사진전 '시선·기록·역사' 등
- 현대사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강화
  - 근현대사 관련 사진·음원·동영상 등의 디지털기록물 17,586점 수집·생산
    - \* SP음반 음원 759점, 대통령기록물(사진) 6,081점 구입
    - \* <현대사 현장기록> 7,500점 생산 등
  - 「메타데이터 작성 매뉴얼」 기반 아카이브 DB구축 : 3,644점
  - 주요 소장자료 정보 외국어(영·중·일) 번역 및 웹 서비스 제공
- 교류협력, 홍보활동 강화 및 문화행사 운영
  - 국내 근현대사박물관 43개 기관과 협력망 구축, 교육 프로그램 지원
    - \* 전년대비 10개 기관 추가
  - 국내외 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10개 기관)
  - 박물관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기자간담회(3회), 촬영 및 취재지원(115회), 기관장 인터뷰(27건), 보도자료 배포(11건), 지면광고(8종), 버스내부음성광고(26개노선 603대), 지하철안전문 광고(6개역 9기)
    - 홍보 동영상(5종), 홍보 브로슈어(4종), 전시안내 리플릿(1종) 제작, 박물관 계간 소식지 발간(4회) 및 주요 계기별 온라인 이벤트(6회) 등
  - 주요 역사기념일(3.1절, 6.25, 광복절) 문화행사 운영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운영
  - 주제별 근현대사 영상 및 도서 제작
    - 전시주제별 영상 (3편) : <해방 : 자주 국가 모색과 국제관계>,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전쟁>
    - 단편 교육영상 (1편) : <주거 변화로 본 현대사>
    - 도서 (3종) : 『대한민국의 기원』,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전쟁』
  - 대상별 교육 운영 : 어린이·청소년 교육(394회 운영, 10,251명 참여), 성인 대상 근현대사 이야기 '박물관 대학'(60회 운영, 2,389명 참여), 교원연수, 다문화가정 교육 등(20회 운영, 708명 참여)

-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및 수준 높은 관람 서비스 제공
  - (박물관 휴식 공간화) 역사마당 파라솔 및 벤치 설치로 관람객 편의 제공
  - (관람객 서비스 제고) 안내요원,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관람객 친절서비스 제고
- 한국 근현대사 허브박물관으로서 연구 기반 구축
  - 현대사 사료 신규 발굴
    - 6·25전쟁 참전국(태국·필리핀)소장 한국현대사 자료조사·수집 및 주요자료 번역 출간(터키 한국전쟁 저서 『Kore Savasi 1950~1953』)
    - 한국 근현대사 신자료 발굴 및 번역 출간
      - \* 이승만대통령 영문일기(1904~44년), 고종황제 독일인 비서 일기(엠마 크뢰벨)
    - 시의성 있는 현대사 쟁점주제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추진(3건)
      - \* 한일국교정상화, 한국무역 성장과 사회변화, 한국교육 70년
    - 현대사 주요 인사에 대한 구술 채록
      - \* 제2공화국 관련 인사(김준하 등 12명), 동백림사건 관련 인사(김종대)
  - 현대사 이해를 위한 맞춤형 저술 및 정기간행물 발간
    -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4종), 『한국현대사 연구총서』 (5종), 『현대사광장』 (연2회) , 영문저널 창간호 발간(12월)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별전시공간이 협소하여 충분한 전시공간 확보 필요
  - 기존 문화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여 충분한 전시공간이 부족한 상황
  - 편의시설의 관람객 접근성 확보와 동시에 소장 자료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전시를 위해 특별전시공간 확충 필요

#### □ 조치계획

- 특별전시공간 확충사업 추진
  - 3층의 뮤지엄 습, 카페테리아를 1층으로 이전하여 관람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3층 역사가로 등에 특별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 대안 모색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당초 계획한 모든 사업을 계획된 시기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함 · 계기별 특별전, 학술대회 등 주요 전시 및 행사들을 계획에 따라 진행함
	1-2. 관련기관 협업도	미흡	· 독일역사박물관 등 국내외 관련 박물관 및 교육·행정 기관과 MOU 체결,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확대 구축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연계하고 있음 · 박물관 초기단계에서 외연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추후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전시공간 확보 노력 필요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지적사항없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관람객 수’ 성과지표의 목표치 106만명 대비 실적치 112만명을 달성하여 105%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 ‘관람객 만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73점 대비 실적치 83.1점을 달성하여 113%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박물관의 적극적 홍보와 운영 안정화를 통해 대국민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 효과가 나타남(전년대비 관람객 수 및 만족도 상승) · 박물관의 인지도 향상과 기증문화 활성화 분위기 조성으로 기증 자료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짐

10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보통

□ 총평

-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기반(열람실, 대체자료 21,793종, 독서지원 보조공학기기 232대, 자원봉사자 40명)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1:1 맞춤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로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생활 속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
  - 장애유형별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독서 기회 고취 및 정보접근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
- 디지털콘텐츠 확충 및 원문 DB구축, 온라인 자료의 수집체계 및 관리운영 개선을 통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주요 성과

-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반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실시로 연간 이용자 수 꾸준히 증가
  - 장애인정보누리터 연간 이용자 수가 6,864명으로 목표치 6,849명 대비 100% 초과 달성
  -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대체자료 이용자 급증 ('13년 64,930명 → '14년 173,288명)
-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을 통한 청각장애인 인식 개선
  - 청각장애인 수화 독서프로그램 '손책누리' 3차(2팀 각 17회), 1:1 수화대면상담(총77회) 운영
  -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인 '손책누리'와 '수화대면상담'을 통해 시각·지체 장애인에 비해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했던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고 독서능력을 향상시킴(신규 등록 '13년 50명 → '14년 65명)

- 청각장애인의 독서진흥 확산 및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수화대면낭독 독서프로그램” 거점도서관 운영
  - 전국 공공도서관(5개관)과 한국농아인협회가 협력하여 참가자 모집,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추진(총 11회, 46명)
- 발달장애인 독서프로그램을 통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정서 함양 고취
  - 발달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쉽게 읽는 독서교실’(총12회) 운영을 통해 도서관 이용에서 소외되었던 발달장애인이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독서를 통해 자기표현과 의사전달 능력이 풍부해짐 (신규 등록 ‘13년 2명 → ‘14년 19명)
-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활용
  -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을 통한 인터넷 이용서비스 확산으로 ‘14년 목표치 90,900건 대비 103% 초과 달성
    -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활용 건수(월평균) 증가
      - : ‘13년 87,400건 → ‘14년 93,527건, 103% 달성
  - 디지털정보자원 확충을 통한 콘텐츠 활용도 제고
    - 소장자료 원문이용 건수 증가
      - : ‘13년 522,985건 → ‘14년 578,309건, 10.6% 증가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콘텐츠 민간제공을 통한 소통·공유의 정부 3.0 구현
    - 네이버 : 우리관 학술기사 1,325,469건 제공·표출
    -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 정부간행물 디지털자료 각 1만건 제공
  - 국가DB구축 공모사업(미래창조과학부) 선정을 통한 디지털정보 자원 확충
    - 구축량 : 이미지 6,629면/기사 156,629건/색인어 536,733건
    - 지원예산 : 5억4천6백만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장애인정보누리터의 지속적인 이용률 제고 및 대체자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질적 제고
- 지속적인 디지털정보자원 확충 및 이용서비스 활성화 노력 필요

□ 조치계획

-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환경 개선 및 특수학교·장애인 관련 기관과 연계한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
- ‘장애인정보누리터’라는 물리적 공간 이외에 실질적인 자료 이용에 대한 지표 추가 또는 변경 검토
-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원문DB 등 디지털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도서관과의 협약 확대 및 네이버 등 민간 검색포털 노출 확대를 통한 이용도 제고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체계적인 추진계획 설정에 따라 추진실적이 정상적으로 진행
	1-2. 관련기관 협업도	미흡	· 관련 분야 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일반 이용자 등 의견을 수렴·추진 ·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속적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 통해 수요자 욕구 충족 및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모색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13년, ‘14년 자체평가 지적사항 없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자수,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활용건수 등 2개 성과지표가 초과 달성하여 평균 달성도는 101.5%임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 □ 총평

- 조직 개편(1실1단1부 → 1실2부)을 통하여 고위공무원 축소하고 실무 인력을 확대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업무효율화 제고(2014. 2. 17.)
- 한글맞춤법 문장부호 개정 등 어문 규범 정비를 통해 의사 소통 환경을 개선하고 다국어 사전을 구축하는 등 우리말 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상별 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내외 한국어의 가치를 확산하였다고 평가됨.
-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상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쓰기’ 시행, 청소년 대상 언어 문화 우수사례 공모전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어렵고 국적 불명인 용어 순화 등 우리말 가꾸기에도 커다란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일반 국민과 언어소외계층의 국어능력향상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및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을 강화 시행하여 대국민 국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음.

## □ 주요 성과

## &lt;어문 규정 정비를 통한 국민 언어생활 편의 증진&gt;

- 어문규범 연구 및 관리
  - 문장부호 개정 고시(‘14년 10월), 표준어 추가 사정(13항목)
  - 외래어 표기 15,000여 건 신규 구축·보급 및 로마자 표기 용례 정비
  - 한글맞춤법 영향평가(전국 성인 1,000명), 표준국어문법 개발(2단계) 사업 실시
- 남북 언어통합 기반 구축: 남북 언어통합 종합계획 수립
  - 제12차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9월, 중국 연변대)

- 남북 언어 홍보 프로그램 「우리말 하나되기」 제작·방영(국어원-KTV, 12회)
- 언어 정책 개발을 위한 국내외 학술 교류
  -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포럼 3회, 학술 대회 1회 개최
  - ‘자국어 능력 조사의 실태와 활용’ 언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 개최(11월, 7개국)
  - 중국 언어문자응용연구소, 민족어문번역국 등 방문 교류

## &lt;우리말 통합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gt;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인력 증원(2명) 및 전화 상담 시스템의 안내 음성 세분화(대기 안내, 휴일 안내 등) 등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 카카오톡 상담 창구 신규 개설(2014. 10. 9.)
  - ※ 2014년도 운영 현황(상담건수): 총 137,796건(2014. 11월까지)
    - \* 전화 101,378건, 온라인 19,525건, 트위터 13,425건, 카카오톡 3,468건
- 국어 정보지 발간으로 국민의 국어에 대한 인식 제고
  - ‘새국어생활’ 연 4회 발간,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주 1회씩 총 50여 회 발간, 국어 연감 발간(연 1회)
- 국립국어원 누리집(국문, 영문 및 모바일 등) 및 정책 통계 사이트 개선을 통한 국어 정보 접근성 강화
- 공공언어 관련 책자(공공언어 바로 쓰기 등) 각 부처,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 3,667권 지원

## &lt;언어 지식의 통합 및 정비를 통한 우리말 정보 활용 기반 마련&gt;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품질 강화를 위한 교정·교열 및 감수(18만 항목)
- 한국어교육 확산을 위한 다국어사전 5개 언어 확대 구축(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 개최(제6회, 10월)를 통한 국어 정보화 진흥

## &lt;한국어교육진흥 및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역량 강화&gt;

- 한국어교육 문법·표현과 어휘에 개발에 관한 3단계 추진 등



-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실시
- '세종한국어' 5~8권 교원용 지침서 개발,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강좌 개발 및 멀티미디어 한국어 교육자료 제작 등 세종학당 관련 교재 및 교육자료 개발
-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초·중·고) 1, 2 학습자용 익힘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표준발음 및 화법 교육 프로그램 등 국내외 맞춤형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한류 콘텐츠 활용 한국어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
  - 한류 드라마를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KBS World 채널을 통한 국외 송출
- 국내외 한국어 교원(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국외 한국어 전문가 및 세종학당 교원 초청 연수: 2회, 85명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9개 지역, 17명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연수회(2회)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1회)
  -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교원 공동 연수회(2회)
  - 교육부 한국어교육과정(KSL) 담당 교원 연수회(1회)
-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운영(3회, 3,657명, 누적 16,484명)

####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지원>

-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의 월별 평가(2014. 4.~11.)
  - 기관의 사용 언어 특성에 따라 세 모듬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결과의 타당성 증대
  - 기존 문법적 정확성 분석 평가에서 시민 평가단 및 전문가 평가단을 도입하여 소통성을 함께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
  - 홍보 업무 평가 점수에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각 기관의 적극적 협조 유도 및 개선 의지 향상
- 부처별 전문용어 개선 지원
  - 전문용어 개선 지원(44개 기관, 497개 개선안 접수)

- 전문용어 개선 및 순화어 정비 지침 마련(연구용역, 부처와 정보 공유)
- 우리말 다듬기 위원회 개최(총 11회)
  - 용어 순화 47개(하이브리드카→복합동력차, 싱크홀→함몰구멍/땅꺼짐 등)
  - 순화어 정비 약 36,000개(순화어 고시, 국어사전 등의 오류, 중복 정비)
- 교과서 감수(총 60책)
  - 초등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49책(3-2, 4-2 23책, 5-1, 6-1 26책)
  - 초등 디지털 교과서 8책(사회·과학 3-1, 4-1, 3-2, 4-2)
  - 초중등 인정 교과서 3책(돋움국어 초1, 초2, 중1)
- 영중일 번역위원회 및 국어원·서울시·관광공사로 구성된 번역 협의체 운영(언어별 각 6회)
- 한글박물관 연구교육 용어(144개) 번역
- '한글'의 중국어 번역 표준안 마련
-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우수 활동 사례 공모전 실시
  - 지도자 120편, 청소년 98편 공모, 대상 1개, 우수상 4개, 장려상 6개 시상
  - 우수활동 자료집 발간
- 건전한 대화문화 확립을 위한 지도 자료 개발(연구용역)
  - 5개 주제의 동영상 구성, 활동지, 지도 자료 제작
- 우리말 사랑 동아리 2기 활동 지원(총 30개 동아리)
- 방송 언어 청정지수 개발, 재난방송 개선 방안 연구 용역

#### <국어 교육 기회 확대>

- 국어문화학교 질적 향상 및 지속적 운영
  - 일반인 및 공무원, 교사를 위한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18회 2,281명)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확대 운영('13년 381회 25,137명 → '14년 406회 34,490명/ 37.2% 증가)
  - 다양한 국어 교육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과정 개발 운영('13년 7회 812명 → '14년 8회 790여 명)
- 국민의 국어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운영
  - 수시 강좌 운영 및 원내 연계 사전 교육 과정 개설, 기관 맞춤형

기획 과정 확대 운영('13년 948명 → '14년 3,537명/ 273% 증가)

- 중·고등학생 대상 신규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2식)
- 언어 소외 계층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 과정 운영
-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대상 교육 자료 개발 및 출판(각 2종)
- '쏙쏙 국어교실' 확대 운영( '13년 12개소 127명 → '14년 14개소 212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개선안의 질적 제고 필요
  - 전문용어 개선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개선안의 질 저하 및 중복 제출 사례도 있어 개선 지침의 제공이 필요함.
-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사후 중간 평가 및 점검 절차, 취소 기준 부재로 교육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조치계획

- 중앙행정기관을 위한 전문용어 개선안 마련 지침 제공
  - 전문 용어 개선안 마련 시 적용할 수 있는 지침 파일 배포 ('15년 상반기 중)
-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관련 제도 개정을 통한 자격제도 내실화
  - 인증된 기관에서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동취득제' 신설 추진('15년 중)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모든 사업이 계획된 추진 일정에 맞게 충실하게 수행됨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공공기관(국방부·서울시 등 각 부처) 및 민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의 협약 체결 및 지원 사업을 통해 목표한 성과를 거둠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13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변경·개선하여 추진하였으며, '14년도 자체 평가 지적사항은 없었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국어생활종합상담실(가나다 전화) 이용자 만족도: 목표(69.1%)대비 130% 달성(90.15%) * 목표 대비 초과 달성 부분이 높아 목표치가 과소 설정된 경향이 있음 · 국어 대사전 월평균 이용 건수(천건): 목표(252천건) 대비 109%(274천건)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국민의 국어 생활 관련 불편 해소와 국어 관련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국민의 언어 편익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

## □ 총평

-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웃종교 간 이해 및 화합행사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지원 및 종교문화유산 보존 전승사업 지원을 통해 민족 전통문화 유산 보존·전승 기반 마련

## □ 주요 성과

- 교황방한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한국사회에 긍정적 에너지를 제공, 위로와 희망·화합 분위기 형성
  - 외신대상 국가브랜드 홍보계획 수립·지원으로 국가위상 제고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의 중요성 재인식 계기 마련
  - \* 방한기간 : 2014. 8. 14(목) ~ 8. 18(월) / 30여만명 참석
-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ACRP)의 성공적 개최로 종교간 협력 강화로 아시아 지역의 갈등 극복 및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
  - \* '14.8월 인천 개최, 해외참가자 300명 포함 500여명이 참가
- 종교계의 다양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활성화로 사회통합에 기여
  - 6개 종단 22개 사업 21,690명 참석 (불교 5,114명, 기독교 6,380명, 민족종교협의회 536명, 천도교 1,352명, 원불교 8,108명, 연합단체 200명)
- 국제종교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의 문화 홍보
  - 국가간 종교문화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3회/중국, 북한, 터키)
  - 전 세계 종교계가 참여하는 종교간 대화회의 참가 (1회/아셈 종교간 대화회의 참가)
  - 종교평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2회/동북아 국제 세미나, 한·이슬람 종교간 대화세미나)
  - 세계 청년 종교문화 교류 및 평화 전문가 워크숍 개최 (2회/세계청년종교문화캠프, 아시아 평화교육전문가 워크숍)

- 한중일 불교문화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 (3회/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
- 종교문화활동 지원으로 국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연등축제(5월), 산사문화예술제(4월-12월, 56개 사찰), 명동성당 5월 대축제(5월),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행사(12월), 원불교 종교문화활동, 민족종교 정신교육프로그램 운영(4-11월, 1,270명) 등 다양한 종교문화활동 지원
  - 7대종단 지도자 및 종교인 등 1,500명이 참석하는 이웃종교 화합주간행사(이웃종교화합주간 개막식 5월, 전국 종교인 화합마당 10월, 이웃종교체험스테이 7~9월, 지역별 종교화합 행사 11~12월)를 통해 다종교 국가로서 종교간 화합과 상생의 장 마련
- 전통사찰의 보존 지원 및 전통문화유산 전승 보존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화재·도난 등 재해 사전예방·실태조사 등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방재시스템 성능개선 및 추진 기반 정립('12~'14년까지 325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화재건수 없음)
  -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167개 사찰)으로 전통사찰 보존 전승
  - 전통사찰 전수조사로 지원대상·기준 등 보존관리 개선방안 마련·역사성, 건물 상태, 부동산 등 조사 실시로 지원대상·기준 마련·전통사찰 전수조사 실시('14-'17/'14년: 141개 사찰)
  - 가산불교대사림 편찬, 한국유경정본화 DB구축,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전통문화 유산 전승 보존
- 전통종교문화유산 관련법제 정비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범위 축소(500미터를 300미터)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시 지역주민과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 수렴절차 규정 명시('14.12)
  - 전통사찰의 유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14년 1월부터 적용)
  -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증축시 대지조성면적 허용 기준 확대('14.3) 및 전통사찰 건축물 건축시 보전부담금을 50%에서 면제로 완화('14.5)
-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확대로 종교인프라 확충 기반 조성
  - 김수환추기경 '사랑과나눔 공원' 조성,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사업,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제2원사 건립 등 13개 사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종교문화시설건립 집행 부진
  - 2014년도 종교문화시설 13개소(지자체 9, 민간 4) 중 사업취소(2개소) 및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하였음

□ 조치계획

- 향후 지방비 확보 상황 점검 등 사업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사업 추진 독려 등을 통해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대부분 사업이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됨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종교계, 정부부처,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지원하고, 법령 개정, 회의개최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자체평가 지적을 반영하여 '15년 계획에는 종교문화행사 참가자(종교인, 비종교인) 만족도를 실시 예정임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미흡	· 종교 문화행사 참여 인원수는 성과지표의 목표치 1,047천명에 대해 117.6% 달성, 종교문화기반구축 공정율은 목표치 70% 대비 80%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된 정책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웃종교 이해 증진 및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통합, 종교문화유산 전승 및 국민의 여가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상위목표인 생활 속 문화 기반조성에 기여

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보통

□ 총평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는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기타 부대시설 및 광장 등 주요시설을 계획된 기한(14년 10월)내 완공, 예정된 개관일정(15년 9월)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음으로 계획대비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임
  -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 등 잔여공사 마무리를 추진하고, 각종 장비의 시운전 및 검사를 통한 성공적인 준공을 이루어 고품질의 문화전당을 완공함(14.10.31)
  - 그 간 5·18단체의 구)전남도청 별관 원형보존 요구 등을 반영하여 보존건물 리모델링 사업 정상 추진 중임
    - \* 보존건물 리모델링 공사재개(전당시설과-2690호(2014.11.11.))(외곽주차장)
    -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기간 연장 승인(총사업비관리과-1005(14.10.15))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열린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을 비전으로 동시대성(아시아 과거·현재·미래를 동시대적 관점에서 조망), 일상성(동시대 아시아인들의 의식주, 일상생활 등을 구현), 다양성(한·중·일 중심에서 탈피, 아시아 여러 나라와 여러 소수민족들을 성찰), 참여성(콘텐츠 구성단계에서부터 국내외 작가와 시민들의 참여 유도)을 콘텐츠 구성의 4대 원칙으로 삼아 콘텐츠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함('14.8.27)
- 아시아 문화 창조플랫폼으로서 문화전당의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 \* 광주·서울 세미나(3회), 지역 자문회의(4회), 조성위원회 보고(3회)
- 아마추어 예술인 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역량있는 작가에게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참여와 인지도 제고 계기 마련

## □ 주요 성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금년도 목표 공정률 100% 달성
  - 아시아예술극장,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100% 완공 달성
  - 수목식재, 수경시설, 포장 등 조경공사 100% 완료
  - 기계, 전기, 통신 설비 공사 100% 완료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비부분 중 보존건물 연계 공정 추가 진행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의 준비를 위하여 콘텐츠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자문회의 7회, 세미나10회) 및 확정·발표('14.8월)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을 위한 기반 마련
- 2014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전당의 첫 공식 행사로서, 국내외 아티스트의 협연을 통해 월드뮤직의 저변 확대하고,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시민의 참여 폭을 확장
  - 전년도 관람객 관람 만족도는 74.6점이었으나 2014년은 74.7점으로 상승 (2013년 5점 척도 → 2014년 7점 척도)
-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문화정보원 자료 조사·수집 사업 및 이에 따른 결과물을 공공서비스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함에 따라 소장 자료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문화정보원 소장자료전을 통하여, 자료조사·수집자,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아시아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
- 제1차 한국-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한 협력강화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 참석하여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계기 아세안+3 특별문화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등 아시아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

- 아시아 전통 실내악단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기념공연, 아시아 무용 워크숍,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전시 및 세미나, 아시아 창작 스토리 국제공모전, 아시아문화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 등 아시아 25개국 예술인 및 정부관계관 150여명이 참가
  - 아마추어 예술인 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 시행
    - 대인시장 예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14.5~11월)
      - \* 대인예술 야시장, 한평갤러리,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대인시장(전통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대표적 관광명소로 입지 구축**
- 전당인근 예술의거리 작가참여 문화프로그램 운영( '14.4~12월)
    - \* 궁다방 갤러리(문화네트워크), 문화우물(초등학교 담벼락 예술품 설치) 운영
  - 국내외 예술인 교류를 위한 「아시아 창작스튜디오」 조성
    - 구) 서구청사 활용, 예술인 창·제작 스튜디오 및 레지던시 조성
    -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 거점화
      - \* 내부 리모델링 및 외벽 보수공사('12~'14), 외부 환경공사 후 개관('15.7월)
  - 지역 꿈나무 교육 프로그램 추진( '14.11)
    - 어린이문화원 교육프로그램 '다큐로 062-우리동네를 찾아갑니다' 시범운영( '14.10.6~10.21)
    - 지역을 관찰하고 지역문화를 어린이 시각에서 영상으로 제작 및 발표회 개최
      - \* 광주 동산초등학교 4학년 2개학급 40명 참여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문화전당 건립과정 및 운영주체 관련 광주지역과의 소통·설득 어려움
  - 문화전당 운영조직 설립 위한 아문법 개정 관련 의견 대립
-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문화전당이 완공되기 이전인 건립현장에서 행사가 치러진 관계로, 관람객이나 시민들의 불편 초래
- 문화정보원 소장자료전이 문화전당이 아닌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행사가 개최되어 전시자료를 통한 문화전당에 대한 홍보 한계
  - 문화전당 개관이후 소장자료에 대한 홍보 강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등 4개 주요 시설의 완공으로 15년 9월 정상개관을 준비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그 간 5.18 광주민주 단체의 공사 반대의견을 꾸준한 설득과 협의를 통해 구)전남도청의 리모델링의 방향을 결정 공사를 재개하는 성과를 보임(보존건물 개관 전 완료 예정)
	1-2. 관련기관 협업도	미흡	·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과 전당 건립 등 협의하여 원활한 전당건립 추진 · 광주광역시, 동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하여 전당건립 현장 관리 및 인근지역 안전사고 대비함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이 미흡 · 자체평가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 공정을 100%, 인지도 초기 목표치를 각각 44.6%, 91.5%로 적극 설정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건립공사 완공(공정률 100%)으로 목표 공정률 100%를 달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일반 국민 44.7%, 광주시민 87.2%) 각각 100%, 95.3%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시설 건립공사 완료, 전당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콘텐츠 준비, 시민참여, 아시아 각국의 참여 유도를 통해 '생활속 문화향유 기반을 조성한다'는 성과목표에 이바지 함

14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운영

다소미흡

□ 총평

- 국립한글박물관의 성공적인 개관 ('14.10.9)과 운영으로 **국정과제 (113.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113-5. 국립한글박물관 조성) 달성** 및 문체부 2014년 대표성가로 보도(12.16)
  - 한글학계,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박물관 개관위원으로 참여
  - 구글(10억), 네이버(11억) 등 민간기업 후원기금 유치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관련 언론 긍정정보(400여건)로 한글박물관 출범의의를 국민적으로 공유, 자긍심 고취 및 박물관 인지도 제고
  - 개관 당일(한글날) 관람객이 13천여 명, 대기시간 40여분 소요
  - **뉴욕타임즈(NYT) '2015년에 가봐야 할 세계명소 52선'**(15.1.7 발표) 중 서울(33위)의 명소로 국립한글박물관 선정
    - ※ 서울의 명소로 국립한글박물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개

□ 주요 성과

- **한글박물관 성공적 개관(10.9) 및 전시·체험 콘텐츠 구축**
  - 개관 관련 KBS 등 긍정정보 400여건, 129,124명 관람(10.8~12.31)
  - 한글 관련 전시·체험 콘텐츠 구축
    - 상설전시: 「한글이 걸어온 길」(1,240㎡)
    - 기획전시: 「세종대왕, 한글문화 시대를 열다」(1,022㎡, ~'15.3.1)
    - 체험전시: 한글놀이터(어린이용, 612㎡), 한글배움터(외국인용, 95㎡)
- **한글 문화자원 수집 및 정보 제공**
  - 한글자료 10,599점 수집(기증 7,728점, 구입 2,781점)
    - 구입·기증 등 수집자료 등록(2,363건 2,939점)
    - 「소장자료총서」 I 발간(11월, 800부)
    - 한글문화 학술모임(서예·사회사적 관점 2회, 11.21/28)
- **한글과 연계한 교육·문화 서비스 사업 추진**

- 한글문화주간 국민참여형 다양한 개관행사 개최(10.8~9, 야외 체험 부스 5종 및 한글타요버스, 음악극 공연/1,200여명 참가)
- 청소년, 교사,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6종, 47회 /1,190명)
- 매주 토요일 어린이, 가족 대상 연극, 음악극, 동화구연 등 문화행사 개최(4종 31회 /2,177명)
- 기획전시 연계 큐레이터와의 대화(10회), 작가와의 대화(7회) 개최

○ **국내의 유관기관 교류협력 및 홍보 추진**

- 국제학술대회개최(외국학자가 이야기하는 한글, 12.5 / 일본·중국 )
- 중앙아시아 지역 한글관련 자료 현황 조사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 고려문화센터 등, 11.14~20)
- 일본 지역 선진박물관 전시공간 및 연출기법 조사(일본 5개 박물관 등, 11.17~21)
- 민간 기업 후원협약으로 박물관 전시 및 편의공간 조성
  - 구글 코리아(체험전시실 10억), 네이버(도서관·별관 11억) 후원기금 집행(10월)
- 한글관련 유관기관, 교육기관(교육청, 외국인학교, 주요대학 한국어학당 등), 박물관, 여행업계, 사회복지기관 등 지속적인 홍보체계 구축

○ **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 국립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운영(2013.5.~2014.10. 6차 회의 개최 / 한글학계·단체, 전시·디자인, 문화·예술계 주요인사 30명)
- 국립한글박물관 후원회 발족(네이버 회장 등 발기인 9명, 4월)
- 박물관 조직(3개과 36명) 신설(2월) 및 자료관리 등 박물관 운영 규정 제정(4월), 자료수집 임시조직(팀) 신설(11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박물관 주변 유동인구가 적고 대중버스 노선이 제한적이라는 박물관 입지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박물관 관람객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조치계획**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글박물관 홍보로 박물관 인지도 제고
- 한글 관련 단체관람객 유치 확대 및 전시해설·교육·문화행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당초 계획한 사업을 계획된 시기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전시 및 연구·조사 분야 등에서 국내외 박물관 및 한글학계, 문화예술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연계 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감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박물관 성과측정을 위한 정성적 지표인 '고객만족도 점수'를 추가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관람객수' 성과지표는 12월 말까지 목표치에 근접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고객만족도' 성과지표는 개관시기 등을 감안, 12월중 조사실시에 따라 1월 초 결과값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개관·운영추진, 국민참여형 체험전시실 구성 및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국가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 고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 총평

- 개별 한국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우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문화원 권역별로 순회시킴으로써 한국문화원의 전문성 및 예산부족의 한계 극복 및 해외문화홍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내 용
(공연) 모자이크코리아 (MosaiKOREA)	한국 전통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인 굿의 외형적 틀을 차용, 그 안에 중요제례악과 시나위 등을 비롯한 한국음악의 정수를 다양한 어법으로 풀어낸 작품
(전시) 텅 빈 층만	달 향아리의 미적 가치를 담고 있는 한국 현대미술과 도자공예 작품 42점 전시

- 24개 한국문화원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한국 문화강좌를 운영함으로써 문화원 방문자 수 증가 등 한국문화 보급 활성화에 기여
  - 문화원별 한국영화 상영, 한국어·한식·전통공예·태권도 등 강좌 운영
- 대표적인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인 문화동반자사업의 만족도가 목표 대비 크게 향상
  - \* ('14년) 9개 사업, 약 115억 → ('15년) 11개 사업, 약 122억원
  - \* '14년 문화동반자사업 만족도 : 82점(목표) → 89.1점(실적)

## □ 주요 성과

-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적극적 추진
  - 문화관련 발전경험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문화사업 콘텐츠들을 개도국 상황에 적합하게 연계·결합할 수 있는 '문화 ODA 모델'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ODA 규모 지속 확대 추진
    - \* ('12) 약 35억 → ('13) 약 68억 → ('14) 약 115억 → ('15) 약 122억
  - 우리의 선진 문화경험 전수와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초청 연수·파견 등 인적교류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문화동반자사업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어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 '14년 인적교류사업 : 600명(목표) → 756명(실적)
- \* '14년 문화동반자사업 만족도 : 82점(목표) → 89점(실적)

## ○ 한국문화원 권역별 우수프로그램 순회

- 한국문화원 자체적으로 제작이 어려운 고급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문화원 권역별로 순회시킴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 홍보
- 아시아 권역(중국 3개 도시, 인니), 유럽 권역(벨기에, 독일, 헝가리, 폴란드) 순회(3~11월)

## ○ 한국문화원 운영을 통한 한국문화홍보 강화

-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개원(10.29)을 계기로 중동지역 한국문화 홍보 및 확산 활성화 기대
- 다양한 한국문화강좌 운영 및 국제문화교류 행사 추진(연중)
  - 문화원 주재국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원별 한국문화 보급사업 추진(연중)
    - \* △동경(남사당놀이) △LA(신경숙 작가와의 만남, 송파산대놀이) △오사카(태권도, 한복패션쇼) △벨기에(서울에서 온 한국의 보물 전시) 등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재외문화원 권역별 전시 프로그램 순회 지연
  - 현지 특성상 유럽지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전시 공간 대관이 지연되어 순회 지연
  - 순회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관 가능여부 등 현지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 필요

## □ 조치계획

- 한국문화원 권역별 우수프로그램 순회
  - 우수프로그램 공연·전시 공간 대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사업계획 수립 추진
    - \* '15년 사업 추진을 위해 '14.11월부터 검토 착수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미흡	· 권역별 전시프로그램 순회, 이집트문화원 개원이 지연되었으나 이는 이집트 내란과 현지 대관이 어려웠던 외생변수를 감안 평가 · 문화동반자사업의 경우 아프리카지역 에블라 확산으로 일부 일정 취소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문화원 신설 및 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 시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등과 수시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 한국문화 해외보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제문화교류정책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민간기관과 협업 추진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이집트문화원 개원을 위해 내란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개원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성과지표가 쌍방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개선하였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문화동반자 39개국 80명 초청, 해외문화예술봉사단 3개국 12명을 파견하여 목표치 107% 달성 · '재외 한국문화원의 방문자 수' 는 목표치인 66.5(천명) 대비 '14.11월 현재 67.7(천명)을 달성하여 목표치 대비 101%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 한국문화원 운영과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 홍보에 일조 · 문화동반자사업 및 해외문화예술봉사단 등 문화분야 ODA 사업 추진을 통해 저개발국가의 한국문화 이해도 및 한국문화저변 확대에 기여

16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보통

□ 총평

- 정상외교, 수교기념, 국제 행사 등 주요 계기 활용한 우리문화 소개를 통해 국격을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증가
- 주한 외국인 대상 홍보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우리 문화 홍보사절로서의 역할 수행

▶ 주한외국인, “한국의 문화유산을 만나다”(5월~11월)

- 대상: 외교관·지상사 주재원, 원어민 교사 등
- 내용: 조선왕릉, 강릉 단오제, 고인돌 유적 등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주제 강연 및 관련 유적지 탐방
- 참가자: 미국, 브라질,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등 51개국 281명 참가

▶ 주한 유학생, “미션-한국 인문학”(5월~8월)

- 대상 : 주한 유학생 및 한국 대학생
- 내용 : 그룹별 주제미션 수행 및 결과물 콘테스트
- 참가자: 총 29개국 30팀(117명)

- 문학,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계 인사 초청사업을 통해 우리문화 이해 증진 및 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
- 수요자 중심 디지털 콘텐츠 생산, 한국소개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채널 다변화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홍보효과 제고

□ 주요 성과

- 주요 계기별 한국문화 공연 개최·참가
  - (국제행사 계기) 한국문화 소개 및 집중적 문화교류 추진
    - △'14 소치 동계올림픽 계기 국제아트페스티벌 참가 △브라질 월드컵 계기 문화행사 개최 등 12건
  - (정상외교 계기)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언론 등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상외교 계기 문화행사 개최
    - △인도 한국공예전시 및 레드포트 방문(1월) △카자흐스탄

- 고려인과 한국현대작가 작품전(6월) 등 5건
- (수교기념 행사) 수교 계기 활용 집중적 문화교류 추진
  - △한-짐바브웨 수교 20주년 △한-우루과이 수교 50주년 등 3건
- (수시 해외교류) 각국 주재 공관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 및 국내 공연단체가 참가하는 해외행사 참가지원으로 문화강국 이미지 제고
  - △모리리서스 문화교류 공연(5.6) △파리 태양극장 및 아비뇽 축제 초청 공연(7.1~27) 등 12건
- 한국 인문학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주한외국인은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효과적인 홍보창구로서, 유학생·상주외신 등 참여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 “주한외국인, “한국의 문화유산을 만나다”(5~11월, 51개국 281명 참가)
    - \* 주한 유학생, “미션-한국 인문학”(5~8월, 29개국 30팀(117명) 참가)
- 주한외국인 대상 홍보 추진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특별한 계기를 활용, 활동에 제약이 있는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개최
    - \* 주한미국부대공연(10. 7, 용산 미군기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문화공연(10.22, 선수촌)
  - 한국문화 소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민간의 주한 외국인대상 홍보 기능 강화
    - \* 주한유학생지원협의회, 왕립아세아학회 등 7개 단체 지원
- 문화예술행사 인사 초청(13개국 19명)
  - 터키국립앙카라대학총장 등 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 문화 이해 증진 및 국제 문화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해외홍보 협업 추진
  - 외교부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한 해외홍보 협업방안 마련 및 유관기관 홍보콘텐츠 통합 목록집을 제작하여 콘텐츠 공동 활용
- 민간참여형 콘텐츠 생산 및 웹드라마 제작 등 홍보콘텐츠 다변화
  - 글로벌콘텐츠 공모전\*을 개최, 수상작 활용 홍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 및 홍보효과 제고 \* 총 143개국 7,721건 응모

- 외국인 시각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반영한 수상작을 홍보콘텐츠로 가공하여 페이스북 이벤트 추진 \* 14편, 1,000만 도달
- 매체 다변화 및 콘텐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한국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한국 홍보용 웹드라마를 제작하여 온라인 홍보에 활용
- 다양한 디지털기 기반 전자책\* 서비스 제공(3개, 6월~)
  - \* 「Korea」, 「All about Korea」, 「Guide to Korean culture」

○ 한국소개 기본자료\* 전면 개정판 제작

- 「Fact about Korea」, 「Welcome to Korea」 등 한국소개 자료에 최신정보를 반영하고 디자인을 개편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해외언론인 그룹 초청(21개국 36매체 56명)

- △한-중 우호 증진 중국 파워블로거 및 언론인 초청(6월) △한국 특집다큐 제작·방영 방송사 언론인 초청(9월) 등 4건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된 해외홍보 콘텐츠를 공유·확산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계획

- 디지털 홍보콘텐츠를 일괄 서비스 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홍보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됨 · 다만, 국내(세월호 침몰), 국외(에볼라 확산) 환경 변화에 따라 대국민 정서 및 자국민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즉각 대응, 중단 결정하여 일부 사업 변경 추진 - 현지상황에 따라 사업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쉬운 국제교류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속히 대처하였다고 판단됨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사업계획 수립부터 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 특히 '해외홍보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한 홍보 콘텐츠 공유 및 확산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13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4년도 계획 수립 시 지표 추가 - 주요 정책과제인 인문학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 향상을 위해 '주한외국인에 대한 한국문화체험이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제고도' 지표를 추가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관심 향상도'는 목표치인 91.3 대비 96.5를 달성하여 목표치 대비 105% 초과달성 · '주한외국인 한국문화 체험 이후 한국문화 이해제고도'는 목표치인 83% 대비 96%를 달성하여 목표치 대비 115% 초과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언론의 긍정 보도를 도출하여 한국문화의 저변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하여 우호적인 문화 교류 환경을 조성하였음 · 또한 상대국 수요 및 선호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류 행사 추진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쌍방향 국제교류 강화에 기여함

17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우수

□ 총평

○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 제재 및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시행(3.31)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5.14)
- 열악한 창작 환경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
- 예술인 창작역량 및 직업역량 강화, 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주요 성과

-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시행( '14.3.31)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험료의 50% 지원(최저등급 기준)
- 불공정행위에 대해 상담에서 신고, 사실조사, 조정, 소송까지 일괄 지원해주는 시스템 구축(「예술인 신문고」 개설, '14.4월)
- 예술인의 특수한 직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사업 실시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긴급복지사업 추진(1,600명, 101억원) ※ 연령, 활동기간에 따라 3~8개월까지 월 1백만원 지원
- 예술인의 지역·기업 파견 지원(330명, 월 150만원), 교육비 지원(270명, 최대 100만원),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센터 지원(대학로 소재) 등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 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창작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당초 지원 가능 예술인 1,600명 대비 신청자 수가 많아 예산소진으로 9.12일에 접수 마감 (총 3,451명 신청)

□ 조치계획 : 해당 없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예술인 복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결정(1월), 사업공고 및 설명회 개최(1~12월), 예술인 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3월~), 예술인 신문고/공연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개소(4월~), 예술인 파견 지원(6~11월) 등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충실히 수행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예술인복지재단-문화예술기관·유관기관 MOU 체결, 문화예술기관·지역문화재단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 추진 및 '15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충실한 것으로 평가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13년 자체평가 결과 '우수' 과제로 해당 없음 · '14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변경(복지사업 대상자 만족도 →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 수)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14년 성과지표(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 수) 측정결과 목표치인 3,000명 대비 3,807명인 바, 달성율이 127%로서 40점 부여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예술인 복지법 개정 시행('14.3월) 및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으로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는 등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영향이 발생하였으므로 충실한 것으로 평가

18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다소우수

□ 총평

- 공연예술분야(연극·무용·오페라·음악)의 우수 창작작품 발굴과 전략적 지원을 통한 창작의욕 고취 및 경쟁력 향상
- 공연예술분야 간접 지원을 통한 민간 우수단체 육성 및 공연장 운영 활성화 기여

□ 주요 성과

- 창작산실 사업 주관단체를 '14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 하여 사업추진 체계의 일관성 및 홍보·지원의 효율성 제고
- 공연예술분야의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 제작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우수 공연의 자생력 확보 도모
  - 대본(11편)-시범공연(53편)-제작지원(31편)-재공연(14편) 지원
  - 창작산실 관람객('14년 68천명 \* 목표 51천명)
- 창작인력 육성 지원 강화
  - 창작뮤지컬/오페라 작가, 작곡가를 대상으로 소재개발 교육과 작품 제작 멘토링을 통해 창작자 육성 기반 마련
- 민간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을 통한 창작발표부담 완화 및 기초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
- 총 366개 단체, 1,793백만원 지원(11월 기준)

구분	신청건수	신청금액(원)	선정건수	지원예정액(원)	비고
4월	82건	562,140,380	51건	323,352,800	
5월	78건	452,054,300	58건	299,187,840	
6월	68건	431,671,232	43건	262,604,952	
7월	71건	283,356,960	51건	189,337,440	
8월	70건	327,303,004	51건	235,236,240	
9월	80건	336,442,590	51건	194,288,520	
10월	90건	333,558,150	61건	288,982,920	
11월	111건	327,755,322	-	-	12/18 심의
계	650	3,054,281,938	366	1,792,990,712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업 공고 및 안내, 선정 단체의 공연 준비 기간이 부족
  - '14년도 주관처 변경 및 일원화 과정에 있어 사업 공고 및 접수, 심의 선정 결과 발표 후 우수작품 공연 준비하는 일정이 다소 부족

□ 조치계획

- 사업 추진 일정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일정과 함께 진행하여, 예술단체들의 준비기간 확보 \* 사업 공고 ('14.10.21), 사업설명회 개최('14.11.6)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창작산실> · 창작여건이 어려운 공연예술계에 단순지원이 아닌 직접적이고 밀접한 지원을 진행하여 창작여건 개선 <대관료 지원> · 민간예술단체의 창작 발표 공간을 지원하여 민간 공연단체 역량 및 기초예술 창작 기반 강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창작산실> · 세부사업별 일정을 충실히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 별 심의위원을 별도로 선정하여 심의를 진행 · 시범공연 준비를 위한 리허설 일정 시간 배분 등 독회 및 실연심사 일정을 적시에 진행함 <대관료 지원> · 추진계획대로 충실히 일정 진행 ※ '14. 1월 사업 계획 수립 ※ '14. 4월 부터 예술단체 신청접수 및 지원 실시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창작산실> · '13년도 주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연극주관단체 명동아트센터와 공동홍보 진행 <대관료 지원> · 지역문화재단 및 협회 등을 통한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 및 사업 홍보 ※ 17개 문화재단 및 협회 홈페이지 사업내용 게시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지적사항 없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다양한 장르의 공연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에 대한 저변확대 기여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장르의 총 366개 단체 ('14. 12월 기준) 대관료 지원 · 기초예술의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통한 예술창작 활동 활성화 및 창작여건 개선

## □ 총평

- 미술 창작자에 대한 권리신장 및 자생력 강화, 국내 미술시장 유통 선진화,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증진을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전략」 발표(9.24.)
  - 창작-유통-향유간 선순환 미술 생태환경 조성 기반마련
- 문화/예술인패스 제도 시행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예술 혜택을 확대하고 예술인에 대한 예우제도 확립
- 문화적 소통이 활성화된 생활공간 조성, 공공영역의 디자인 문화 확산을 통해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
- 사회취약시설, 학교 유휴공간, 소규모 간이역, 폐교, 폐창고 등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여 창의적인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유휴공간의 디자인 리모델링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공간 창출 및 다양한 참여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공예 관련 예비창업자 및 기존 공예업체들을 위한 경영행정 프로세스 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한 공예업체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 주요 성과

- (문화/예술인패스) 문화/예술인패스 제도 시행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예술 혜택을 확대하고 예술인에 대한 예우제도 확립
  - 문화예술인 패스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및 예술단체 의견수렴(1~2월)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할인을 조사 및 전시품 관람규칙 개정(5월)
  - 문화예술인패스 할인을 조사(8월)
  - 문화예술인패스 시행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 회의(7, 9월)
  - 문화예술인패스 제도 시행(10월)
  - 문화예술인패스 본격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12월)

- (일상공간의 문화적 디자인 지원)
  - 사회 문화적으로 소회된 공간의 문화공간 조성으로 디자인 문화 확산 및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13개소)
  - 학교 내 유휴공간의 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디자인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 기여(6개교)
- (디자인 문화 확산)
  -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래픽디자인비엔날레인 '2015 타이포 잔치' 준비를 위한 '타이포잔치사이사이' 행사를 통해 국내외 관계자 및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계기 마련('14.10.20~24)
  -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등의 개최를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디자인 방향성 제시
    - \* 2014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14.11.26/300여명 참여)
    - \* 201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 및 시상('14.11.26)
  -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발전방안 연구 추진 중('14.10~'15.7)
-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구 서울역사가 지닌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현
  - 전시, 공연,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한 총 관람객 164,000명
  - 기획전1 '공예페스티벌:온기'(2.11-3.9), 기획전2 '여가의 기술'(3.21-5.7), 기획전3 '최정화-충천연색'(9.3-10.19)
  - 정기공연 '아트플랫폼2:공간을 깨우다'(7.15-7.19), '아트플랫폼3:세계를 사로잡다'(8.26-8.30), '오픈스페이스:Summer'(8.10-8.20), '오픈스페이스:Autumn'(9.3-10.19), '오픈스페이스:Winter'(11.18-12.14)
  - 학술콜로키엄, 강연, 이벤트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9.14~9.24)
  - 시민, 노숙자가 참여하는 광장프로그램 운영(9.3-11.30)
  - 편의시설(카페) 조성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4.18) 및 공간 설계(12.12) 완료
-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추진) 미술시장 저변 확대와 미술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추진

-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로 공간 재창조) 제 기능을 잃은 산업단지내 유희공간, 폐산업시설의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재조성
  - 나주 舊잡사, 광명 폐소각장 등 구도심 유희시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노베이션 추진
  - 창원산단, 시화반월산단 등 산업단지 내에 지역주민과 산업근로자와 함께하는 참여형 예술공간 조성 추진
- (공예산업진흥기반 구축) 법률, 무역 등 행정서비스 매뉴얼 제작·배포 및 공예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등 체계적인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사업 발전 방향 연구 추진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문화/예술인패스 제도에 대한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참여율 저조(목표치 대비 81% 달성), 적극적인 홍보지원 필요
-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 문화재이자 철도역과 인접한 장소적 특수성으로 인해 편의시설 조성, 전시물 설치, 소음 차단 등에 제약요인이 상존
  - 종교집회, 각종 시위, 노숙인 장기체류에 따른 악취, 소음 등 문화공간의 원활한 운영에 반하는 외적 장애요인 발생
- 사업부지 사용 동의 미비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착공 지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소유 부지(코바코연수원, 경기 양평 소재) 내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나 토지사용 동의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 지연
- 기능성 연계 공예상품 개발의 경우 조기 업체선정으로 충분한 상품개발 기간 확보 필요

□ 조치계획

- 문화/예술인패스 적용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및 국고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에 대해 문화/예술인패스 적용 확대('15년)
-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에

-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비 확보 독려
-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 문화재에 정통한 공간전문가 및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편의시설 확충, 차음벽 설치 예정('15년 상반기)
  - 서울역 광장을 문화광장으로 활성화하여 과도한 종교집회나 시위, 노숙인들의 소요 감소 유도
-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을 통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영업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 토지사용 동의 확보(~'15.2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문화/예술인패스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예술단체 대표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실시(1월~2월) · 시도관계자 회의를 통해 문화/예술인패스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사전협조요청 실시(7월~9월) · 적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분기별 일정에 맞기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함. · 행정서비스지원사업 등 추진계획상 일정대로 추진되었으나, 기능성 연계 상품개발은 상품개발기간 추가 소요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문화/예술인패스 추진을 위해 각 시도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담당자와 연계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도를 추진함 · 소외된 공공시설의 문화향유 및 공간조성을 위해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 추진함 · 문화역 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위탁관리주체와의 효율적 협업을 도모하였고, 문화재청, 코레일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역광장 무상사용,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완료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을 위해 관련부처(산업부, 국토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목표한 성과를 거둠 · 공예와 타분야(디자인, 기술)와의 연계를 통한 기능성연계 상품개발 등 추진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14년도 지적사항 없음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 : 80점(추정) (목표치 78점 대비 102% 달성)</li> <li>성과지표의 목표치인 문화역서울284 이용객수는 올해 문화행사의 전반적인 위축 추세에 따른 공동 기획전 취소, 방문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미달성 * 목표: 182천명 / 결과: 164천명</li> <li>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공정률의 경우 관련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성과목표 미달성하였으나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과 미달성 사유가 외생요인인 점을 감안 어느 정도로 평가</li> </ul>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통해 일상 속 문화향유 기반조성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li> <li>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유희공간이었던 '구서울역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소통 공간으로 활용</li> <li>신규사업인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추진시 사업초기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로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영향이 발생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li> <li>문화/예술인패스를 통해 청소년, 대학생에게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패스를 통해 예술인 예우제도 확립</li> <li>생산·유통 구조의 영세성으로 인한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공예업체들에게 관련 매뉴얼 제작 배포로 행정상의 애로사항 해소</li> </ul>

20	국립중앙극장 운영	보통
----	-----------	----

□ 총평

- 국가를 대표하는 극장으로서 전통예술 공연의 창조적 계승과 진흥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기획·제작, 교육·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 여건 개선에 기여
- 국립레퍼토리시즌의 성공적 정착으로 극장의 3개 전속단체 공연을 포함한 국립예술단체의 우수레퍼토리를 연중 공연하여 국립예술단체들의 창작역량강화 및 공연작품의 질적 제고

□ 주요 성과

-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전통예술기반 공연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전통예술의 대중화 실현
- 3개 전속단체 총11편 신규 창작레퍼토리 개발·제작
  - 국립창극단 3편, 국립무용단 3편, 국립국악관현악단 5편 신작 공연
    - \* 국립창극단(3편) : 숙영낭자전,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
    - \* 국립무용단(3편) : 기본활용법, 회오리, 토너먼트
    - \* 국립국악관현악단(5편) : 작곡가 시리즈, 대만의 소리, 리컴포즈, 아호, 역 변화의 리듬
- 국립극장 3개 전속단체 공연관람객 증가

구 분	2012-2013 시즌	2013-2014 시즌	증감율(%p)
국립창극단	22,061명	29,418명	+33
국립무용단	19,087명	29,481명	+54
국립국악관현악단	10,579명	13,027명	+23
합 계	51,727명	71,926명	+36

-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14년 차범석희곡상 뮤지컬 부문 수상
  - 창극 최초로 한국 공연계 최고 권위 '차범석희곡상' 중 뮤지컬 극본상 수상(2014.11.24. 시상식 개최)
  - 창극 역사상 최장기(2014.6.11.~7.6./26일, 23회) 공연으로 과감히 추진, 객석점유율 87% 달성



- 국립무용단 <회오리>, <묵향> 해외무대 본격 진출 협의
  - 프랑스 칸 댄스 페스티벌(Festival de danse-Cannes) 개막공연 (국립무용단 <회오리>) 및 4개 도시 순회공연(국립무용단 <묵향>)
- 연말연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첫 시도
  - 기존 천막극장 또는 체육관에서 공연되던 마당놀이를 극장 공간으로 끌어들이 현대적 감각의 '국립극장 마당놀이' 제작
  - 라이선스 뮤지컬 중심의 연말 공연계에 전통예술 공연시장 개척
- 극장기획 <단테의 신곡> 초연('13년 전회 매진)에 이은 재공연 성공
  - 세계적 고전 <신곡>을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공연물로 재창작한 <단테의 신곡> '14년 재공연에도 우수한 공연사업 성과 달성
  - \* 2014.10.31~11.8(9회)/ 해오름극장/ 11,387명 관람(객석점유율 121%)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유사 정책과의 통일성 확보 및 국가를 대표하는 극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 측정을 위해 관객만족도 평가 필요

□ 조치계획

- '15년 자체평가 지표에 고객만족도 포함 여부 검토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시즌제 운영으로 연간 공연프로그램을 사전 기획, 홍보하여 추진계획상의 일정대로 사업이행(협연자 가수 실희철 사망으로 <시나위프로젝트>만 취소)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국공립예술기관과의 협업 기획·제작,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정책 영향력 확대 및 행정 효율성 제고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자체평가 지적을 반영하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국립극장 CRM 전략수립 및 고객서비스평가단 운영, '15년 성과지표 적용 계획 등을 충실히 추진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자체공연 객석점유율 목표치 73% 대비 73%로 73% 목표 대비 100% 달성 · 자체공연 작품비율 목표치 75% 대비 75%로 목표 대비 100%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전통예술 기반 현대화를 통한 우수 공연작품 제작, 관객 저변이 취약한 전통공연에 대한 공개리허설, 관객아카데미, 연습실개방, 지방순회공연 등 공연예술창작 및 수혜자확대 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 발생

21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미흡

□ 총평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개관('13.11.12.) 및 3관 특성화 전략을 통해 특화된 전시 운영, 국민 미술 향유권 확대, 우리 미술의 적극적인 해외 홍보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력운용의 문제점 및 미술계와의 마찰 등으로 국가 미술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미흡

□ 주요 성과

<3관 특성화 전략 강화>

○ (과천관) 한국 현대미술사 정립

- 현대미술사 주요작가 개인전, 중진작가 창작지원, 동시대 현대 미술의 대중적 인지도 제고, 현대 미술 소장품 활용 특화 전시
- <현대미술 읽기: 신소장품 2012> 전 등 총 14회 전시 개최

○ (서울관) 21세기 동시대 현대미술을 수용하는 수준 높은 전시 개최

- 한국 근·현대 미술의 세계화 도모, 장르의 융복합을 통한 신미술 발굴과 예술 전시의 저변 확장을 위한 전시
- <쉬린 네샤트> 전 등 총 14회 전시 개최

○ (덕수궁관) 한국 근대미술의 재발견 특화 전시 개최

- 한국 근대미술 특화 전시, 국제 근대미술 특화 전시, 국립현대 미술관 근대미술 소장품 활용 특화 전시
- <대한민국 예술원 개원 60년: 어제와 오늘> 전 등 총 5회 전시 개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 다양하고 전문화된 미술관교육의 활성화
  - '어린이·가족중심 미술관' 정체성 구현을 위해 어린이미술관 공간 개편 및 융복합 교육·체험 프로그램 신규 개발
  - (과천관)야외조각공원과 자연의 이미지 부각, '자연 속 미술관'으로

- 특화: “막계 페스티벌” 추진 (9.20.~9.21. / 15,396명 참여)
- 대상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수혜층 확대
  - <낭만수요일>(시니어), <힐링목요일>(주부), <쌍쌍토요일>(어린이) 등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브랜드화
  - 문화나눔 사업 대상을 경험적 소외계층(경찰, 군인 등)까지 포괄적으로 수용, 교육프로그램의 수혜층 확대

**<미술품 수집·보존·연구 중추기관 위상 확립>**

- 체계적인 소장작품 구입(289점)·관리(9,812점 조사) 강화
- 미술은행 활성화
  - 정부미술품 구입·관리·대여 등 체계적인 업무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미술품 대여 마케팅 강화를 통한 미술은행 소장품 활용 증대
- 미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미술연구센터 기능 활성화
  - 미술아카이브 원본열람 서비스 개시(84,700여 점)
- 소장품 과학적 보존처리·재질분석 및 대외 지원

**<국내외 미술현장 교류·협력>**

-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미술관의 확장 및 발전 방안 모색
  - 지역 국공립 미술관과의 순회전 유치를 통한 전국 네트워크 강화 및 콘텐츠 교류 사업 진행
  - 세계 미술의 중심지인 유럽지역 및 기타 중앙 아시아 지역에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전 및 특별 주제전 순회
- 기업 등과의 전략적 후원·협업을 통한 문화마케팅 구현(10개 단체에서 총 2,449백만원 지정기부)
  - 미술관만의 차별화된 기업 연계 프로젝트 모델 제시를 통한 한국 현대미술의 성장동력 강화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브랜드 가치 상승

**<창의에너지를 증진하는 레지던시 운영>**

- 다양한 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레지던시 프로모션 강화
  - 서울관 전시공간(위크숍 갤러리) 등을 활용한 레지던시 전시 개최(총 14회)

- 작가 연구 세미나 진행(12회 진행, 총 30명)
- 국내·외 입주프로그램 내실화 및 질적 향상
  - 국제일반공모 프로그램 확대('13년 7명→'14년 9명)
  - 역량있는 국내 중견작가 입주 추진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술계와의 소통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한국 현대미술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국외작가 작품에 대한 체계적 조사 연구 추진

**□ 조치계획**

- 미술계와의 소통 및 협력체계 공고화
  - 전시 기획의도에 적합한 다양한 작가군 구성
  - 전시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평론, 미술사가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확대(외부전문가의 전시자문, 전시평가의 확대)
- 국외작가 작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계적 작품 수집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미술관 중점사업 대부분의 추진일정을 충실히 준수 하였으나 기증 작품 상설전시관 운영 등 일부 지연
	1-2. 관련기관 협업도	미흡	· 채용 및 인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관 기념 전시에서의 작가 선정 문제로 미술계 일부의 강한 반발 제기 및 대외협력을 위한 신뢰도 저하 · 전국 미술관 협력체계 강화, 대외기관 협력·협찬 활성화로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특히 민간기업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10개 단체로부터 24억원에 이르는 지정기부금 수령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미술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3관 특화 전시 운영,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교육대상 확대, 3관 통합적 관람객 관리전략 수립을 통한 고객 서비스 개선 등 추진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관람객수 목표치를 192만명으로 계획하여 227만명 달성(118.2% 달성)하였으나, 서울관 개관효과를

		합리적·적극적으로 반영한 목표치로 보기는 어려움 · 행사부 주관 고객만족도조사는 목표치를 76점으로 계획하여 78.1점 달성(102.7%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술	· 서울관 개관으로 3관 3색 차별화된 전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신장 및 미술문화를 확산, 해외 순회전을 통한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 기여 · 인사 및 채용 문제, 기획전 관련 작가 선정 갈등 야기 등으로 미술 중추기관으로서의 신뢰도 및 영향력 손상

22

문화예술교육 지원

우수

□ 총평

-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협력 하에 양질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성 제고에 기여
- 아동·청소년, 근로자,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장애인, 군장병, 재소자, 북한이탈주민, 의경 등 특수계층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 국민 대상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사회계층간 문화적 격차 해소에 기여
- 예술강사의 선발·파견에 따른 문화예술인의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 농·산·어촌 및 문화소외지역 초·중·고등학교 43개 학교를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 집중도 및 효과성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
- 매주 토요일 17개 시·도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청소년 및 가족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
- 예술강사의 선발 요건을 문화예술교육사로 강화하여 인력을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 주요 성과

- 사회적 통합 및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산의 지속적 확대

※ 사회문화예술교육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2014
예산(억원)	126.04	137.16	202.92	289.92	345.84
예술강사(명)	998	1,092	1,636	2,224	2,541

- 소외 아동, 노인, 장애인, 군장병, 재소자들이 전문 예술 강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체험·학습·향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 10개 분야별 예술강사 476명 선발 및 복지기관 459개 지원
  - ※ 2014년도 분야별 복지기관 예술강사 현황

구 분	아동		노인		장애인	
	반수	강사수	반수	강사수	반수	강사수
국악	51	33	-	-	27	17
미술	67	40	43	25	70	30
무용	36	19	50	27	82	39
영화	53	36	-	-	21	10
연극	34	27	72	42	30	14
음악	105	49	72	34	33	17
사진	-	-	32	17	-	-
계	346	204	269	145	263	127

- 군장병, 교정시설·소년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234개 군 부대, 44개 교정시설, 19개 소년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6,097명 수혜 (133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356명 지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문화예술교육 지원
  - 12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개 치료감호소, 12개 보호관찰소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519명 수혜 (28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46명 지원)
-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 돌봄 기능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 방과후 청소년 79개, 학교밖 청소년 68개, 지역아동센터 468개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17,968명 수혜(98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471명 지원)
- 근로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산업단지 12개, 테크노파크 8개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1,242명 수혜(40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60명 지원)
- 북한이탈주민, 의경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1개, 의경부대 34개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824명 수혜(29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51명 지원)
- 지역 문화사각지대(미혼모시설, 청소년 쉼터, 경로당, 임대아파트)

- 대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328개 문화예술단체, 421개 프로그램 선정, 강사·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일자리 448명 창출
- 소외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추진으로 소외 아동·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 전국 32개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지원(아동 1,920여 명/강사 365명)
  - 남원 등 예비거점기관 3개소 선발 및 지원
  - 2014 꿈의 오케스트라 이음캠프(1차: 8.1~3, 2차: 8.8~10, 3차: 8.18~20, 4차: 8.21~23/ 1·2차: 무주 태권도원 3·4차: 인제 민해마을/ 아동단원 총 851명 참여)
  - 2014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10.27/ 예술의전당/ 114명 연주, 1,587명 관람)
  -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강사 및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관계자 대상 워크숍 및 연수 운영

시 기	기 간	대 상	참여자 수
해외전문가초청워크숍 -시스템마 뉴브런스윅 캐나다	5.20~22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 및 외부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관계자, 시민사업 관계자 등	총 543명
상반기 마스터클래스(1박2일)	7.21~22	꿈의 오케스트라 1년차 신규강사	총 150명
하반기 마스터클래스(권역별)	11.20/ 경기 연천 11.24/ 경남 통영 11.25/ 경기 오산 11.26/ 전남 무안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 및 외부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관계자 등	총 319명

- 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화 및 강사 전문성 및 교육의 질 제고
  - 학교·사회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3,153명)
  - 기본연수 : 예술강사 핵심역량(예술교육전문성, 교수역량, 관계&관리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분야별 연수체계 개선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의무연수 : 신규 강사의 원활한 교육 현장 적응 및 기초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기획·운영
  - 선택연수 : 경력이 쌓인 강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및 경력개발 관리를 위한 선택 연수프로그램 확대 개설·운영

구분	교육기간	교육시수	교육인원	만족도조사	비고
기본연수	상반기 : '14.1.20~2.21	520	972	3.8(5점 기준)	
	하반기 : '14.8. 3~8.14	220	401	3.8(5점 기준)	
의무연수	상반기 : '14.2. 6~2.21	440	662	4.1(5점 기준)	
	하반기 : '14.7.28~8.11	160	436	3.9(5점 기준)	
선택연수	'14.6.21~8.31	1,398	1,633	4.2(5점 기준)	
<b>계</b>		<b>2,738</b>	<b>4,104</b>	<b>4.0(5점 기준)</b>	

- 학교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전국 7,809개교에 국악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 4,735명 파견(3~12월)
- \* 지원학교 : 전체 초·중·고 (11,578개교) 대비 67%(7,809개교)
- \* 수혜학생률 : 초·중·고교생(675만명) 대비 38%(255만명)
-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
- \* 수혜학생수 : 184만명('11) → 190만명('12) → 220만명('13년) → 255만명('14년)

< 2014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역별 현황 >

(단위 : 개교/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교수	972	473	271	317	234	209	165	30	1238	443	328	493	566	600	607	716	147	7,809
강사수	885	379	213	191	218	193	140	11	556	175	197	212	378	311	302	282	92	4,735

-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중·고등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 운영('10년 10개교 → '11 ~ '12년 26개교 → '13년 30개교 → '14년 43개교/ 수혜자 6,022명, 예술강사 393명)
  - 국악관현악, 뮤지컬 등 전교생 1인 1예능활동 지원
  - 교육 기자재 지원, 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 지원
  - 문화예술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선정된 학교 4년간 지속지원
  - 초등학교 지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지원대상 확대
-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지역 공간 기반 프로그램 및 가족 오케스트라·합창, 주말 문화여행 프로그램 등 콘텐츠 기반 프로그램 운영(370여개 프로그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예술강사 보험료 정산과 16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 관련 지속적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연 제출 문제 발생

□ 조치계획

- 예술강사 보험료 정산 비용은 차년도 예산으로 처리하고 간접보조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방식 보완하여 지속적인 지연 제출 문제 해소 노력('15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 일정을 기한내 모두 완료하였음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산업부, 복지부, 통일부,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16개 시도, 문화예술단체 등 관련부처 및 유관단체와 연계 및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13년 자체평가 지적사항은 없으며 14년 자체평가 분과위원회의 사전 검토 지적사항은 일반적인 교육 효과 측정방법과 거리가 있어 이에 대한 제고 필요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 목표치 2,500천명 대비 105.6%(2,641천명) 달성 ·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수 : 목표치 7,400명 대비 103.6%(7,669명)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초·중·고 학생, 문화소외계층(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군·교정·소년원 등)과 일반시민(지역주민, 근로자) 등 대상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감수성 증진 및 창의성 향상과 7,669명의 예술강사 일자리 창출로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개선이 라는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 □ 총평

- 창의적 예술가 육성 및 변화를 선도하는 예술교육 확장에 기여
  - 교과과정 운영, 예술영재 교육 및 연구, 국내외 예술교류, 학사 행정서비스 제공, 교사증축 및 대체학습장 조성 등으로 교수 및 학생 예술활동 지원

## □ 주요 성과

-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학사행정 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확대 운영 및 교과목 신설(14.1학기)
  - 한국외국어대와 협약 체결(14.6.9) 및 교과목 공동 추진(14.2학기)  
(외대에서 본교생 수강 : 87과목 248명, 한예종에서 외대생 수강 : 12과목 30명)
  - 교수 국외 연구 및 창작활동 지원(40건, 115백만원)
  - 이러닝(E-learning) 교과목 제작 및 운영(14.1-2학기)
-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 육성
  - 음악·무용·전통예술 3개 분야 예술영재 선발·교육(167명)
  - 예술영재 각종 콩쿠르 수상 등 우수한 교육성과 도출(183명)
  - 사회통합범주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영재발굴아카데미 운영(33명)
  - 예술영재 국고과제 연구(4개) 및 영재 담당교원 전문교육(151명)
- 실효성 있는 교류지원 및 우수 예술인재 유치
  - 해외 문화예술 기관과 연계한 해외 예술교류 강화(7개국, 49명)
  -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의 MOU 체결 및 인적교류 확대  
(국내 7개 기관, 해외 3개국(3개교) 신규 교류 / 교환학생 파견 23개교 42명)
  - 해외 예술인재 유치 및 기관 교류사업 내실화  
(AMA 및 AMFeK 사업, 재외문화원 및 세종학당 인턴파견 등)
- 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학사행정시스템 고도화(920개 화면전환) 및 메인페이지 디자인 개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5건)

## ○ 서초동교사 증·개축 및 대체학습장 조성

- 서초동교사 증·개축 및 대체학습장 설계 용역추진 등 6건
- 별관교사 환경개선 공사 시행 등 17건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서초동교사 증축의 착공과 대체학습장 조성 지연
  - 도시계획변경 등을 위한 건축협의 과정에서의 서울시 협의 기간 소요 및 대체학습장 공간 구성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의견 합의 지연 등으로 계획보다 다소 지연됨

## □ 조치계획

- 도시계획변경 등의 서울시와의 건축협약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서초동교사 증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 대체학습장 조성 또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바, 방학기간 중 완료하여 '15년 3월부터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임

##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대부분 과제가 추진계획상 일정대로 추진되었으나, 서초동 교사 증축 사업은 관련부서 협의 및 학교구성원 합의 문제 등으로 다소 지연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관련기관과의 협조, 협력 통해 충실한 성과 또는 개선을 이룸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13년 자체평가 결과, 지적사항 없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14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육만족도 * '14년도 실적 : 90.3점 (목표치 84.6점 대비 106.7% 달성) · '14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건수(건) * '14년도 실적 : 61건 (목표치 57건 대비 107%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성과중심의 정책운영으로 체계적인 예술교육 추진 · 분야별 제도적 지원을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

□ 총평

- 국악분야 선도적 교육과정 개발 및 체계적 교육운영으로 전통 예술인재를 육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
- 재능기부 및 찾아가는 국악공연 등 다양한 공연 활동 추진, 국악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문화소외계층 등 대상 전통예술 향유기회 제공
- 국내외 활발한 공연교류를 통해 국악의 우수성 홍보 및 전통예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주요 성과

- 예술능력 함양 및 국악문화 확산을 위한 연주활동 실시
  - 교내실기경연대회(2월), 목덕예술제(5월), 전공이습회(7월), 소리샘 예술제(12월), 목덕한마당(12월) 등 개최
  - 찾아가는 국악공연(서울장안중학교, 수성고등학교 등) 추진
-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방과후 학교 운영
  - 일반교과 및 특기적성 111강좌 962명 운영
  - 전공실시능력 배양을 위한 1:1 국악 및 무용 전공실기지도 운영
-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육협력 및 교육실천활동 전개
  - 개포골 국악한마당,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연(10월) 등 교육활동의 장 확대
  - 2014 종묘대제(5월), 사직대제 봉행 일무공연(9월) 등 전통공연 참여
- 해외 국악문화 확산 및 지속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미주한인회 초청 미국 공연(7월), 소리누리예술단 해외공연(9월), 일본 아키타현초청 국제문화 페스티벌 참가(10월)
  - 여성가족부 한중 청소년 교류 참가, 외국인학교 공연활동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예술학교의 특성상 국내외 공연이 교육과정의 중요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공연이 국고가 아닌 전통예술진흥재단 등 외부 지원예산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공연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조치계획

- 국내외 공연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계획적이고 충실한 공연 운영 및 역량있는 전통예술 인재 육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과제 추진 계획상의 일정에 따라 충실히 수행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문화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과의 연계성 강화 · 국내외 지자체, 예술단체 등과 교류협력 확대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미흡	· 학교교육활동 평가만족도 : 문체부 고객만족도 표준안 적용(5점척도→7점척도) · ‘전국규모대회 입상실적’ 목표치는 전년도 대비 상황 조정(92→120건)했으나 실적치를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대체 지표안 발굴 미완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학교교육활동 평가만족도 : 고등학교 76.6점(달성율 109.4%) * 중학교 설문 진행중(12.19~12.22) · 전국규모대회 입상실적 : 133건(달성율 115.7%)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 전통예술 인재 육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국내외 연주활동을 통해 국악의 우수성 홍보 및 소외계층 등 대상 전통예술 향유기회 제공 · 다양한 대내외 교육활동을 확장 실시하였으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공연 운영을 통해 역량있는 전통예술 인재 육성 기반 강화 필요

## □ 총평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교류 및 학교교육 활동의 다양화·특성화 지원, 전국규모 경연대회 수상 등을 통해 민족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민족예술전문인 육성에 기여
- 국악의 세계화 및 지역 문화활동 참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예술 교육 기부,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와 내실화로 예술 인재 육성의 교육목표를 달성

## □ 주요 성과

- 한류예술 축제 등 민족예술의 계승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연으로 학교 위상 제고
  - 건학 55년 종합예술교육관 건립기념 한류예술축제 개최(7.11)
  -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운영(9.2~9.12)
  - 사할린 한-러 우호축제 참가 및 해외교류학교 합동공연(10.9~10.13)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축제 개최(서울 금천구·송파구 등 5회)
- 전통 국악 합창이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전통음악에 이바지하고자 학생 자치동아리 '두레소리' 공연 추진
  - 광화문 문화마당 공연 및 안중근의사 의건 105주년 기념공연(10월)
  - 제6회 정기공연 '가만히 있지 마란 말이야'(7월)
- 학교 중·고등학생 전공발표회 등 공연을 통한 실기능력 배양
  - (중) 제14회 전통예술제전(8.27)
  - (고) 음악영재교육원 하계발표회(8.2), 제53회 민족예술대제전(9.27) 등
- 방학 중 외부 전문가 강사를 초빙하여 방과 후 학교 주문·맞춤형 프로그램 질 제고(404강좌, 2,359명)
- 학교 "특별교실 및 전공실" 증축 추진으로 교육시설 개선
  - 사업기간 : 2013~2015. 3월
  - 시설규모 : 지상4층(연면적 4,443.24㎡, 건축면적 1,471.31㎡)
  - 소요예산 : 총 8,039백만원('13년 10억원, '14년 7,039백만원)
  - 공정률 : 50%(12월말)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교육시설의 위험성 해소를 통한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미흡
  - (내진성능평가) 2011년 실시한 학교 건축물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인문관(예술관)과 기숙사 일부 보 및 기둥의 내력이 부족하여 구조 보강 필요
- 성과지표 중 '학교 교육활동 평가 만족도' 목표달성 노력과 함께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목표치의 합리적 재설정 필요

## □ 조치계획

- 현행 내진설계 대상시설물별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내진 보강을 하고, 지진위험도가 있는 시설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내진보강 수행('15년 예산 미확보, '16~17년 예정)
- 2015학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분석 및 평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활동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재검토

##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2014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육 계획에 반영 · 전통예술제전 중학생 발표공연은 일부 지연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문체부, 서울시교육청, 서울금천구청 등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미흡	· 학교 지표로인 평가기준은 학생들이 참여한 경연대회로서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만 반영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 : 목표 70점 대비 69.35로 99% 달성 ·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 목표 125건 대비 242건으로 193.6% 달성. '13년에도 199%의 달성률을 나타내 목표치 설정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표 설정 및 목표치 미개선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교류,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 등 민족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연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국악 인재 육성에 기여



## □ 총평

- 유일한 한국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개발, 방송함으로써 공익적 기능과 역할 수행
- 문화의 다양성 추구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대중화에 기여하는 등 국민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 □ 주요 성과

- 방송을 통한 전통문화의 대중화, 생활화 실현
  - 다양한 전통 음악과 퓨전 창작 음악은 물론 문화계 소식, 공연실황 중계, 인물 초대석, 국악 교육 등의 국악 프로그램을 24시간 방송
- 지역스튜디오를 활용한 순회방송 등 지역문화 전달 강화
  - 상암골상사디아(전주), 꿈꾸는 아리랑(부산), 한류만세(부산) 등
  - 지역 소리꾼 출연, 지역 소식 전달 등 지역 콘텐츠 활용
-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국악음원 DB화 및 음반 제작
  - 아날로그식 국악음원의 디지털 변환작업('14년 3,500여곡)
  - 음반 산업화에 따라 민족음악의 체계적 수집, 보존을 위해 전통 음악 녹음 확대('14년 CD 기준 50개 분량)
- 영상화시대에 따른 국악영상콘텐츠 요구 부응
  - 영상서비스 : 생방송(보이는 라디오) 및 VOD 서비스
  - 공연실황, 공개방송, 특집 다큐 등 다양한 영상콘텐츠 서비스
  - 제작된 콘텐츠는 국악방송 홈페이지 및 타매체 송출(KTV, 채널A, 푸드TV, 아르떼TV, 불교TV, 소상공인방송 yesTV, TBC대구민방, 美 DirecTV 등)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만족도가 목표대비 미달하였으며, '13년보다는 다소 상향되었으나 '11, '12년 만족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청취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 청취자 만족도 '11년 74.2, '12년 74.8, '13년 71.5

## □ 조치계획

- 국악 장르별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에 맞춰 판소리 전문(남상일의 소리소문), 노래 전문(국악대간 노래를 찾아서), 민요 전문(창악집성), 풍물 전문(풍물기행)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노력

##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국악콘텐츠 영상화 확대, 국악방송 고객만족도 조사, 국악방송 전국화 추진을 위한 주파수 확보 등 일부 과제의 지연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 연계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 제작과 전통음악 전문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전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편성 노력 · 모니터 요원 운영 등을 통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목표 대비 97% 달성 ·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 검증 또는 '청취율' 지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 국악에 낮은 국민과 문화향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는 방송 및 문화사업으로 국악진흥 및 저변확대 · 음원, 영상 등 전통 콘텐츠물의 DB 구축으로 기록 및 보존에 중요한 역할 수행

## □ 총평

- 국립국악원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신규 브랜드 작품 창출, 품격 있는 풍류사랑방 공연 개발, 예술가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연중 공연기획 등으로 국악공연의 전통성 및 대중성을 함께 강화
- 국악의 체계적 전승을 위한 학술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 사직대제 등 복원 연주회 개최를 통한 전승기반 구축, 국악유물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전시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활용 활성화 여건 조성
- 국악교육·체험을 위한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국악 아카데미 운영 및 국악한류 토대마련을 위한 국제교류사업과 인재개발, 생활국악 보급을 통한 국악의 전승 및 보급 확산에 기여
- 생활 현장에서 문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나눔 사업 및 지역 전통문화를 근간으로 한 창조적인 공연 개발 및 연수·체험 사업 등 지역 사업의 활성화, 민속예술의 전승과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기록화 및 브랜드화에 기여

## □ 주요 성과

**[국악 증가로서 단원 역량 강화 및 문화유산의 가치 전파]**

- 연주단 조직 운영체제 확립 및 연주단원 역량 강화
  - 연주단 운영 예규 제·개정
    -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등 총 6건(시행일: 10.7.)
  - 신규단원 채용 및 단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신규 채용(예술감독 2명, 보직단원 1명, 정단원 28명, 준단원 68명)
    - 국악연주단 기량향상 특별교육 실시(총 86회)
  - 국악연주단 평가 실시
    - 내용: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 등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 실시
    - 결과: 인사관리 및 정단원 재계약 체결('15.1.1.~'16.12.31.)

- 대표브랜드 작품의 완성도 제고 및 신규 작품 개발
  - 검증된 작품의 정례화 및 고품격의 브랜드공연 신규 제작
    - 총 1작품 9회 4,636명(음악극 '공무도하' 신규 개발)
- 지역예술과 정서를 담은 대표작품 개발
  - 민속국악원 신규 레퍼토리 개발
    - 기악단 정기공연 <음률의 조화-판소리, 악기를 만나다> : 599명
    - 사물놀이 기획공연 <神풀이 풍물굿> : 558명
    - 무용단 정기공연, 판소리 춤극 <춘향을 따라 걷다> : 612명
  - 2014 민속국악원 대표브랜드 신작 창극 '靑, 춘향' 공연
    - 내부 공연 3회, 1,854명(객석점유율 95%), 전주·광주·진도·여수 순회공연 4회(3,447명, 평균 객석점유율 89.1%)
  - 남도국악원 남도 예술인 소재 브랜드작품 제작 추진
    - 대표브랜드공연 '절대! 박절대'(3회 1,535명)
  - 2014 국립부산국악원 대표작품 '춤극 야류 문디야 문디야'
    - 4월 2회(1,102명), 9월 교류공연(400명), 10월 2회(859명 관람)
  - 정기연주 "新음악-전통에 대한 경의" 2015년 대표작품화 시도
    - 10.23. 1회 480명 관람
- 특성화된 기획으로 국악공연의 감동 제고 및 대외협력 강화
  - 연희풍류극장 개관 계기 기획·정기·상설공연 다양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객석점유율 91.7%(13년 대비 2% ↑), 관람객만족도 94.1%(13년 대비 2% ↑)
  - 고궁에서 우리음악 듣기 및 대외협력공연 개최
    - 고궁공연 24회 8,869명, 대외협력공연 15회 71,870명

**[국악으로 선도하는 문화 나눔 및 한류 확산]**

- 국악공연 및 교육확대로 소외 지역·계층의 문화향유권 증진
  - '국악을 국민속으로' 등 문화 소외·계층 대상 공연 개최(24회 5,128명)
  - 가족·청소년·유아·장애인 대상 및 세종시 체험·교육사업 확대 운영(91회 7,871명)
  - 남도국악원 공연 및 교육확대로 소외 지역·계층의 문화향유권 증진
    - 가족단위 '주말문화체험'(13회 362명), '특별문화체험'(여름, 겨울, 가정,

호국보훈의달: 4회 120명)

- 기업 등 직장단위 연수 '국악으로 풍류찾기'(5회 204명)
- 국악동호인, 사회단체를 위한 '단체연수'(20회 921명)
- 연주단과 관람객이 함께 흥과 신명을 느끼는 내실 있는 사랑방음악회 추진 : 국악문화사랑방(10회 550명)
- 주한 외국인, 재외 교포 등을 위한 '한국체험프로젝트'(10회 302명)
- 남도국악원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갈증 해소와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함양
- 방방곡곡 문화공감(3회 300명), 국악을 국민속으로(6회, 1,925명), 지역협력공연(6회 3,713명), 청소년 국악한마당(12회 1,573명)
- 전통예술을 활용한 한류확산의 가능성 확인 및 문화경쟁력 제고
- 축제 참가 및 문화교류를 위한 해외공연, 해외관광객 대상 공연 개최
- 축제 참가 등 해외공연 15회 86,054명
- 해외 한류거점지역 국악강습 및 외국인 대상 강좌·체험 추진
- 해외국악문화학교 14개국 600명, 국내거주 외국인대상 강좌·체험 수시 2,100명
- 지방국악원 해외공연 및 해외 단체 교류 추진
- 민속국악원 「2014 한일축제한마당 일본 공연」(20,000명) 및 교토 이츠타(耳塚) 위령제 공연(150명) 참가
- 부산국악원 중국·일본 중심의 동아시아권 교류 및 해외공연 개최
- 총 9회 9,600명(일본 시모노세끼, 중국 서안 실크로드축제, 일본 오사카 평성경천평제, 중국 탄발음악제, 말레이시아 국제음악축제)
- 정규교육과정 음악교육 내실화 및 대외 국악 이미지 제고
- 교원·공무원·기업 맞춤형 국악연수 실시, 국악 전문 교양강좌 운영
- 교원연수 4회 110명, 국악아카데미 19회 350명
- 남도국악원 연수·체험교육 확대
- 남도국악원 문화행정 공무원연수 '국악의 이해'(4회 109명)
- 남도국악원 교육대·사범대 학생을 위한 '국악전문인양성과정' (2회 59명)
- 남도국악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과 연계한 '교원 직무연수', '심화연수', '청소년국악체험' 등(19회 1,514명)
- 국악인재 육성 및 생활국악 소재 발굴을 통한 국악저변 확대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예술단 운영 및 경연대회 개최
- 어린이예술단 '푸르미르' 58명 운영, 국악동요제·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등 4회 개최
- 남도국악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과 연계한 21세기 청소년 리더를 위한 공연 개최
- 청소년목요국악무대'(10회 800명), 학교·학급 단위 '청소년 국악체험'(8회 715명)
- 가족단위 문화생활을 위한 '청소년·일반인·가족 국악강좌'(2회, 상·하반기)
- 체육분야와 연계한 생활국악 개발·보급으로 국악의 친밀감 제고
- 스포츠 응원가 3곡, 일기예보 배경음악 4곡 등 제작·보급
- e-국악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콘텐츠 재구축
- 온라인 홍보 개선 및 이용 연령층 확대
- 국악원 SNS 이용자수 블로그(885,000명), 페이스북(9,100명), 트위터(5,000명)
- e-국악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콘텐츠 재구축(6월~12월) 및 국악동요 선집 제작(12월)

#### [한국음악학 연구 중심으로서 기반 조성]

- 국악학 연구기반 조성 및 근·현대 국악사 정립
- 학술연구서 발간, 음반 제작, 학술상 시상, 학술회의, 학술 공연 개최
- 『국립국악원 자료총서 제49~52집』, 『Korean Musicology Series 6』, 『국립국악원 구술총서 제14~17집』, 『국립국악원 교양총서 1: 악기』, 『한국음악학 학술총서 제10집』, 『국악원논문집』 제29~30집 등 연구서 19종 발간
- 「국악동요 Best Collection」, 「근·현대 국악기록시리즈 제4집」 발간
- 제3회 국악학술상 시상
- '중국의 옛 음악을 만나다'(3.12), '국악관현악의 현황과 과제'(9.25), '아시아의 음악과 문화'(11.6.7), '북한의 민족기악'(11.10), '베를린에 남겨진 20초 한인의 소리'(12.13) 등 국내외 학술회의의 5회 개최
- '중국 하남박물관 화하고악단 초청 고대음악 연주회'(3.12), '북한의 민족기악'(11.10), '사직대제 복원 공연'(12.12) 등 학술 공연 3회 개최
- 국악기 개선 및 음향 연구
- 국악기 개선 및 음향 연구를 통한 국악의 현대화

- 실내용 태평소 연구개발 및 대금 개선 연구 등 6건, 국악기 개선연구 시연회 1회
- 풍류사랑방 음향 특성 연구용역, 국악기 녹음 매뉴얼 구축 연구용역, 『2013 국악기연구보고서』 발간
- 전문가 및 청소년 대상 국악기 제작 아카데미 운영 5회, 『2013 국악기산업조사 보고서』 발간
- 국악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 국악박물관 기획전시를 통한 국악유물 위상 및 가치 제고
  - ‘음으로 기억될 아름다운 사람’ 기증 전시 (故김정자·해의만 기증 유물 30여점 전시, 44,052명 관람)
  - ‘해외음악유물 초청 특별전’ 개최(벨기에 브뤼셀악기박물관 공동주최, 17,244명 관람, 2회 공연, 6회 교육)
  - 베를린 민족학박물관과 훔볼트대학교 소장 1910년대 한인 녹음 자료 보급
  - <그리움의 노래, 20세기 초 독일이 기록한 한인의 소리> 음반 제작
  - 국제학술회의 ‘베를린에 남겨진 20세기 초 한인의 소리’ 개최 (12.13.(토) 10:00 /주한독일문화원)
  - 훔볼트대학교 소장 17음반 수록 34종 음원의 이용권리 확보
  - 국악아카이브 보유자료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 보유기록물 정리 사업을 통해 미정리 자료의 등록 처리
    - ※ 총 보유량의 47% 등록, 전년 대비 15% 상향
  - 필름, 사진 등 이미지 자료 109,290점 디지털 변환(보존, 활용용 별도 구축)
  - 디지털국악아카이브 시스템 기능 개선
  - 서비스 콘텐츠 확대를 위해 음향·영상·이미지 변환 기능 등 고도화
  - 스토리지(가용 50TB) 도입, 노후 서버·백업장비 교체
  - 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연동 기능 개선(통계, 저작권 관리, 유물관리 등)
- 국악유물 연구 및 보존 관리
  - 고도서 『新舊現行雜歌 명창 박춘재 소리』 및 정악가야금 등 악기류 47점 수집
  - 국악유물선정위원회(‘14.12월 1회) 및 수증·수탁심의위원회(‘14. 6월, 12월 2회)
  - 수장고 환경소독 1회, 탈산화작업 47건, 중성포장 95건, 배가 45건,

- 라벨링 32건 진행
- 열람·복제·대여 등 소장품의 대국민 서비스(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대여 등 15건)
- 소장품 메타데이터 입력(이미지, 크기, 소장위치 등 유물정보 780건)
- 시스템 성능 개선 사업 추진(하위 번호 입력 문제 해결, 홈페이지 연계 서비스 항목 조정, 메타항목 추가 등)
- 『대악후보』 등 고도서 66책 7,243면 촬영 및 디지털화
- 우리원 소장 고서 웹서비스 사업(부여개발을 통한 277책 홈페이지 서비스)
- 국악박물관 소장품 DB구축 사업 추진(메타데이터 구축, 자료정리 및 분류, 재편집, 라벨링, 보존처리, 스캐닝 2,623건 14,700점)

### [지역별 전통문화 발굴 및 문화 향유권의 전국적 확대]

- 관람자 중심 열린국악원 이미지 조성을 위한 공연
  - 민속국악원 지역 대표 문화관광지에서 펼쳐는 한낮의 풍류 상설 <광한루원 음악회> (16회, 4,326명), 춘추시즌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위한 <춘향고을 국악이야기> (5회, 1,735명)
  - 남도지역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문화관광을 위한 공연 추진
  - 기획공연 ‘여름국악축제’(2회 970명), 금요상설국악공연(28회 8,006명), 정기공연 ‘홍과 신명’(1회 250명), 절기공연 ‘설, 추석’(2회, 897명)
  - 부산국악원 문화가 있는 날, 야외마당 공연, 열린토크 콘서트 등
  - 총 7회 3,621명(정원의 풍류, 사랑방 풍류, 연지마을 연희마당)
  - 열린토크 콘서트 ‘국립부산국악원에 말하다’ 11.22.(100명 참여)
- 교류공연, 대외공연 및 교육확대로 문화향유권 증진
  - ‘국악을 국민속으로’ 등 문화 소외·계층 대상 공연 개최(7회 1,047명)
  - 성인·청소년·외국인 대상 체험·교육사업 운영(35회 2,858명)
  - 국립국악원 간 교류 확대로 다양한 콘텐츠 제공(4회 1,622명)
  - 부산국악원 단체 교류 및 대외협력공연 강화
  - 부산시립 교류 신년음악회(1월,1회, 633명), 안산시립 교류음악회(8~9월, 2회, 1,151명)
  - 박동진추모음악회, 한·아세안축제, 국제마루음악제 등(3~12월, 6,067명 관람)
- 주제별 토요일신명 무대 및 다양한 화요공감 무대 운영

- 기존의 해외관광객을 위한 상설공연과 토요일무대를 통합 운영하여 작품성 및 내실 강화(51회, 6,521명)
- 영남권 원로 초청 상설무대를 통한 영남권 국악전승 활성화
  - 화요공감무대 총 24회중 6회 원로초청 무대 및 자료전시 연계
- 국악학 연구기반 조성 및 근·현대 국악사 정립
  - 학술회의 개최, 학술연구서 발간
    - 민속국악원 역대 창극 대본 집대성 『국립민속국악원 창극 대본집』 제1집(역대 춘향전 관련 대본 6편), 2집(역대 흥보전 관련 대본 4편) 발간
    - 부산국악원 <2014 동아시아불교음악학 학술대회 및 기념 연주> 12.08~11. 연악당
    - 부산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총서 제4집』, 『영남공연예술자료집2 ‘장월중선전 산조』, 『영남공연예술자료집4 ‘강문득의 삶과 산조』 발간
- 남도민속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발굴 및 기록화
  - 진도를 비롯한 남도의 문화전통의 재발견으로 민속예술 전승의 장 구축
    - 국립남도국악원총서(1회), 남도국악원 10주년 기념 음반(1회), 학술회의 자료집(3회)
- 남도 굿 활성화를 위한 굿 연구사업의 브랜드 화
  - 굿 연구 학술회의, 공연, 학자, 연행자를 한데 모은 굿 축제 개최
    - 굿음악 축제(2회), 굿음악 축제와 연계한 남도학술회의(1회)
  - 국악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학술증진 및 교류의 장 ‘대학 연합세미나’
    - ‘대학생 국악기초이론 연구 지원’(2회): 대학생 연구자료 발표 기회 부여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작품제작시스템을 통해 자체 제작 역량 강화 및 공연작품의 지속적인 보완으로 작품성을 향상시켜 활용도 제고
  - 개별 공연사업의 제작예산 투자비용과 기간 대비 공연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공연, 연계공연을 적극 추진
- 작품성 향상을 위해 단원들의 기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지속 외 외부 예술인들의 발표무대 제공 확대 등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잠재고객 발굴 및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와 파급 효과를 고려한 사업의 선별추진으로 업무효율 제고

□ 조치계획

- 작품의 기획부터 장기공연, 연계공연을 감안하여 대표작품의 지방 대도시 순회공연 확대 추진(‘15년)
- 국악연주단 단원 중심의 ‘예술가의 무대’를 풍류사랑방 요일별 공연의 확대 추진(‘15년)
  - 단원의 자발적인 풍류사랑방 기획공연 참여로 역량 강화 기여
- 작품 규모를 다양화 하고 엄격한 출연자 선정으로 예술성이 중심이 되는 공연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공연·교육·연구·연수 사업 등 전반이 계획된 일정에 맞게 충실하게 수행되었음 · 다만, ‘별별연희 공연’ 등 일부 사업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추모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 사업 위상 강화 및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일정 변경 추진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국악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해 정부기관·지자체·해외공관 등과의 업무협약·공동 추진을 통해 사업효율을 높이고, 사업평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함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연주단 연주단원 기량향상 교육 실시, 이용객 시설개선, 홍보마케팅 전략 등 자체평가 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뚜렷한 이행방안 마련 및 실적 창출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총실	·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85.8%대비 89.3%(104.1%) 달성 · 국악원 국악공연 객성점유율: 성과지표의 목표치 77.8% 대비 81.2%(104.4%)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국악보존 및 창작 활성화와 대중적 확산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공연·교육·연구사업을 통해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

□ 총평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조성 추진으로 민간자본의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유도
- 정책적 육성분야이나 수익이 저조한 분야로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콘텐츠에도 제작자금을 조달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 특히, 민간 투자가 저조한 장르(애니메이션) 및 제작초기단계 프로젝트, 콘텐츠 영세기업 등을 위한 중점펀드 조성 추진
- 완성보증 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콘텐츠기업 제작 활성화 유도
-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및 종합적 금융지원(융자, 투자, 컨설팅 등) 시스템 구축
- 콘텐츠공제조합 공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영세콘텐츠 업계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
- 모태펀드 투자재원 확충('15년 500억), 완성보증계정 국고 추가 출연('15년 50억)등 다양한 금융·투자 지원정책을 통해 콘텐츠 업계에 안정적인 재원 공급 기반마련

□ 주요 성과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을 통한 성장잠재 분야 및 초기제작 등 취약분야 투자 확대 도모
- 민간 출자가 저조한 애니메이션(250억 원) 및 게임(140억 원), 제작초기(210억 원), 콘텐츠영세기업(255억 원) 분야 중점 펀드 조성
- 콘텐츠영세기업\* 펀드(255억 원) 신규 조성 추진을 통해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콘텐츠 영세기업 발굴 및 지원

\* 콘텐츠영세기업 : ①자본금 10억 원 이하, ②매출액 10억 원 이하, ③종업원 10인 이하인 기업

[2014년도 모태펀드 문화계정 조성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계
	애니만화	게임	제작초기	콘텐츠영세기업	
문화계정	출자규모 150	50	140	150	490
	결성규모 250	140	210	255	855

- '06년 이후 '14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1조 549억 원의 51개 조합이 결성되어, **결성규모 기준 1조 원 돌파**(정부 출자액 4,313억 원의 2.44배 결성)
- 결성된 조합을 통해 '14년 11월말 기준, 총 1조 3,332억 원 투자
- 특히 국내 상업영화 중 모태펀드 투자영화의 비중이 평균 77.6%(작품수 기준)로 나타나는 등, 콘텐츠 산업의 주요 투자재원으로 기능

<한국영화 개봉작 수 대비 모태펀드 비중>

(단위 : 건, 13년 12월말 기준)

구분	'08	'09	'10	'11	'12	'13	합계
국내 상업영화 수	50	48	50	46	54	51	299
모태펀드 투자영화 개봉작수	28	37	38	37	48	44	232
상업영화 대비 펀드투자영화 비중	56%	77.1%	76%	80.4%	88.9%	86.3%	77.6%

\*상업영화 : 전국관객 10만 명 이상 영화

(출처 : 한국벤처투자 내부 자료)

- 문화콘텐츠 투자(문화계정)의 경우, **3년 이하 초기기업에 63.8%** 투자하는 등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 지원 확대('14.11월말 기준)
- \* 중진, 특히 등 계정 전체에서는 3년 이하 초기기업에 32% 투자
- '15년도 예산 500억을 모태펀드 출자예산으로 신규 확보하여 문화콘텐츠 투자 재원 확충
- 완성보증제도 절차 간소화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
- 3억 원 이하 우수콘텐츠(기술평가등급 BBB, 재무등급 BO)에 대해서는 우선상환 보증특약 생략
- 소액신청의 경우, 추천위원회 생략기준을 기업 당 5억 원 이하에서 개별 콘텐츠별로 변경하여 지원 확대

< 연도별 보증규모 ↗ 지속 증가 중 >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4년		지원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완성계정	1	1.0	17	69.0	20	142.0	28	201.0	36	250.0	40	240	142	903
일반계정	0	0.0	8	76.0	11	119.0	14	174.0	14	191.0	17	262	64	822
합계	1	1.0	17	145.0	22	261.0	32	375.0	48	441.0	57	502	177	1,725

\* 완성보증 지원실적 : ('13년말) 1,224억원 ⇒ ('14년말) 1,725억원

○ 콘텐츠 공제조합 조합원 가입 확대 및 사업 활성화를 통한 영세사업자 지원

- (조합원 현황) 총 320개 사, 기본 재산 92.08억 원 조성( '14.12월말 기준)

\* (장르별 현황) 게임(75개사) 23%, 영화·방송·광고·공연(71개사) 22%, 애니·만화·캐릭터(50개사) 16%, 콘텐츠솔루션(47개사) 15% 순

\* '13.12월말(189개 업체, 36.65억 원) 대비, 조합원 수는 69%, 기본재원은 151% 증가

- (공제사업 현황) 이행보증 330건(보증금액 269억 원), 자금대여 2건 등

\* 보증수익 1.91억 원, 보증(정상)해지 44.8억 원(74 건) / '14년 12월말 기준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하반기 출자 사업으로 추진한 제작초기, 콘텐츠 영세기업 펀드 운용사 선정이 늦어짐에 따른 펀드 결성 지연 우려
- 선정 운용사 대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연내 결성 독려 필요

#### □ 조치계획

- 제작초기, 콘텐츠 영세기업 펀드가 연내에 성공적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운용사 및 모태펀드 운용기관과 지속 협의('14.11.14~12.26) 하여 과제를 충실히 이행
- 제작초기 12.29(월), 콘텐츠영세기업 12.30(화) 펀드 결성 완료

####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모든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완료하였음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보증 지원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모태펀드 운용 제도 개선등을 실시하였음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민간 투자가 어려운 애니메이션, 제작초기단계, 콘텐츠영세기업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정책개선 효과 달성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모태펀드 연간 투자금액 1,810억 원 - 모태펀드 '14년 11월말 투자금액은 1906.5억 원으로, '14년 12월말 기준으로 2,096억 원 예상되어 목표액을 115.8% 초과달성 가능 · 완성보증 지원액 502억 원 - '14년 12월말 기준 502억 원으로 목표 초과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모태펀드 4,313억 원 출자로 1조 549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투자승수 2.44배) ('14.12월말 기준) · 1조 3,332억 원 투자('14.11월말 기준) · 명량, 수상한 그녀, 해적, 쿠키런, 구름빵, 너잡2, 여신님이 보고 있어 등 다수 제작지원

## □ 총평

-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축인 문화기술의 진흥체계 개선 및 전략적인 문화기술 R&D 추진을 통해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핵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기틀을 강화함
  - 영화, 애니·캐릭터, 음악, 게임, 뮤지컬 등 글로벌 킬러콘텐츠 분야의 R&D 추진을 통한 문화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성과창출
- 문화 산업 콘텐츠 업계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
  - 국가 R&D 투자를 통해 문화산업 업계의 기술경쟁력 개선
- 장르특화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및 글로벌 콘텐츠 강국 실현
  - 5대 킬러콘텐츠(음악, 영화, 게임, 애니·캐릭터, 뮤지컬) 중심의 핵심기술 R&D 추진
- 문화산업 현장과의 전략적 소통창구 운영 및 산·학·연의 기술수요 반영을 통한 기술개발로 현장 애로사항 해소 추진 등 현장 경쟁력 강화

## □ 주요 성과

- 특허 및 BM 컨설팅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 지원 영역을 명확화 하여 기술 사업화 적극 추진, 기술 사업화율\* 40% 달성 예상, 지원 과제 상용화 실적 66억원 예상
  - 인천 아시안게임 개·폐막식에서 사용된 전통문양 불꽃기술 개발, 뮤지컬 ‘투란도트’에 상용화된 트랜스포밍 무대의상 및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매핑 기술, 온라인 게임의 게임봇 탐지 및 대응 기술 등
- \* 최근 3년간 “성공” 판정 과제 중 기술이전료 또는 매출이 발생한 과제 비율
-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14.7월~9월)를 실시하고, 지역별 산·학·연에 찾아가는 기술수요조사 현장설명회(‘14년 8월/5개 지역)를 개최하여 접근 기회를 확대, 기술수요 320건 발굴
- 전략기획 추진단을 운영(‘14.8월~11월)하여 기술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40개), 이를 과제기획 단계에 반영하여 신규과제 도출(3개) 하는 등 ‘15년도 신규기획대상 과제 34개 도출

- 사업의 구조를 문화산업 장르별, 현장 중심의 R&D 체계로 개편해 예산 증액달성(‘14년 458억원 → ‘15년 505억원/10.3% 확대)
  - 문화창작 융합디자인 기술개발(30억원), 다부처 공동기획사업(5억원) 등 신규 예산 확보와 더불어 문화기술 동반성장 기술개발 사업 및 국제공동연구 신규사업 기반 마련
- 국내·외 주요행사(GDC, SIGGRAPH, 광주ACE Fair, 2014코리아 청년 콘텐츠쇼, G-STAR 등)에서 CT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비즈매칭 상담·계약 건수 640건(전년대비 19% 향상), 계약 예정 금액 192만 달러 달성
- CT포럼(‘14년 5월), 문화기술 융합포럼(‘14년 10월) 등의 개최를 통해 새로운 문화기술(CT)의 정보 공유기회를 마련하고, 산·학·연·관 간 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문화기술의 중장기 전략 및 융합 모델 발굴기반 마련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개발 기술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사업화 중심의 과제도출의 확대 필요

## □ 조치계획

- 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창의적, 시장 선도적 과제 도출을 위해 실수요자인 예술인, 콘텐츠 업계 종사자 등 민간 전문가의 과제기획 참여기회 확대
  - 5대 킬러콘텐츠(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공연·전시 등) 장르별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과제뱅크전략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현장의 아이디어 수시 발굴
  - ‘CT 창조포럼(연 2회 예정)’ 구성 및 운영으로 미래전략 수요 발굴
  - ‘CT R&D 전략기획 추진단’ 구성 및 운영(‘15.8월~11월 예정)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대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타 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부내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관련회의를 개최하고 해당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에 적극적 대응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자체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미흡	· 계획된 목표보다 초과달성이 예상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장르별 특화 CT R&D 추진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성과 활용사례 창출 등으로 예산 확대('14년 458억원 → '15년 505억원)달성 등 정책영향 효과가 크다고 인정됨

30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부진

□ 총평

- 콘텐츠 산업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현장밀착형 창작 멘토링 프로그램, 산업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 추진

□ 주요 성과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략지역 해외연수과정 1회 운영
  - 중국 영상콘텐츠산업 현황과악 및 현지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국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해외진출 직무역량 강화 모색 (2014.11.17~11.21)
- 콘텐츠 각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멘토)와 젊은 창작자(멘티)의 매칭을 통한 장기간의 도제식 창작 멘토링(창의인재 동반사업) 추진
  - 2014년 7개 플랫폼 기관(운영기관) 선정, 멘토 82명 위촉, 창의인재 204명을 선발-매칭하여 장기간의 현장 멘토링 진행중 (2014. 5~2015. 2)

플랫폼 기관명	멘토링 과제명	멘토 (명)	멘티 (명)
(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큐멘터리 청년감독 양성	12	28
(사)한국방송작가협회	TV프로그램 스토리텔링 (드라마, 예능, 다큐)	13	26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융합멘토링을 통한 맞춤형 웹툰 전문가 양성	10	30
(사)한국독립애니협회	N-screen 애니메이션 인재육성 프로젝트	12	30
벤처스퀘어	게임 포텐셜리스트 (Game Potential + ist)	10	3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영상 및 웹툰 기반 콘텐츠 트랜스미디어형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11	30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영화감독과 함께 하는 창의인재 To Be Maker 실전 프로젝트	14	30
합 계		82명	204명

- 드라마 '밀회'의 정성주 작가,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의 오성윤 감독, 웹툰 '신과 함께'의 주호민 만화가, 영화 '싱글즈'의 권철인 감독 등 멘토 참여
- 멘토-멘티 간 다양한 현장 프로젝트(224건)를 수행하며 멘토의 노하우와 경험을 도제식 전수
  - 사업기간 중 멘토-멘티간 협력하여 추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과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



- 애니메이션 <메밀꽃, 운수좋은날, 봄봄>
  - 안재훈 멘토 감독
  - 임은재, 강정환, 김효선 멘티가 제작에 참여
  - 2014. 8월 극장 개봉, Sicaf 개막작 선정

-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
  - 진모영 멘토 감독
  - 백성준, 이정준, 명준희 멘티 등이 제작에 참여
  - 전국관객 400만 돌파(1.1)

- 사업 수료후에도 콘텐츠산업 각 분야에서 창작자로 지속 활동
  - 2012~2013년 수료멘티의 70% 이상이 창작활동 지속 유지 (2014. 2 기준)



-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계셔 (한정석 멘티)
  - 2013년 초연, 대한민국 국회대상 시상식 올해의 뮤지컬상
  - 2014년 일본진출, 도쿄공연 성공(9.20~10.1)

- 뮤지컬 <월데이>
  - 2013년 멘티(추종남, 전미현)이 협업하여 뮤지컬 공동기획, CJ 투자유치 및 리딩공연 성공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멘토링 프로그램 종료 후 청년 창작자들의 다양한 콘텐츠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지원(창작데뷔 지원 등) 확대 고려

### □ 조치계획

- 젊은 신인 창작자들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작 지원 프로그램 신규 운영 ('15년~, 22억원)

- ☞ 그간[ 추진한 창의인재 동반사업은 <멘토에게 도제식 창작지도>를 받는 <현장밀착형 예비창작자 교육사업>으로 교육생의 창작역량강화와 현장경험을 익히는 것이 주안점
- ☞ 2015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콘텐츠 창의 프로젝트 지원(22억원)>은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마친 청년 인재 및 기존 신진 창작자들이 전업 창작자로서 사회에 원활히 편입되고, 자신의 작품을 상업화(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되도록 지원하는 포스트 창의숙성 과정

- 수료생 경력경로 전수 추적조사 및 사업개선 반영

- 2012년도 사업 수료생(240명), 2013년도 수료생(232명) 등 총 472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취업형태, 작품활동 지속여부, 취업경로 등 경력경로의 패턴을 전수조사 ('14.12~'15.2)
- 2014 멘티 수료후 경력경로 별도조사 예정 ('15. 3)

- ☞ 경력개발에 있어 본 사업(창의인재 동반사업)의 기여도, 성공요인, 경력 추구상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에 입각하여 향후 사업을 개선 예정

###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미흡	· 당초 계획된 사업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플랫폼기관/멘토/멘티 선발, 발대식, 워크숍 등 사업일정 정상 추진) * 전략지역 해외연수과정은 당초 3분기 운영예정이었으나, 9월에 발표된 중국 규제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및 검토기간이 필요하여 4분기 실시됨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7개 플랫폼 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멘티간 교류/협력 강화 연계 추진 ·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정기회의 개최 · 범부처 주관 <2014 창조경제박람회>에 독립부스로

			참가, 사업홍보 등 정책연계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매년 추진하는 창의인재 경력경로/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당해연도 사업개선에 반영 (멘토링 의무시간 확대 등)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미흡	·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통해 멘티 204명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인턴쉽 추진 중(일자리 목표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계획수립시 취업인원(일자리) 200명 달성 완료

31

핵심콘텐츠 집중육성

우수

□ 총평

- 상상력과 창의성이 과학기술·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키우는 **창조경제에서 창의적 콘텐츠의 가치 부각**
- 국내 콘텐츠산업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90조원을 돌파**하는 등('13년 기준/'14년 통계조사 결과) 산업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캐릭터(전년대비 10.5% 증가), 음악(전년대비 7.1% 증가), 영화(전년대비 5.9% 증가) 등 산업이 국내산업 성장 주도
  -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은 <뽀로로>, <로보카폴리>에 이어 <라비>, <타요버스> 등 성공한 국산 애니메이션·캐릭터의 등장으로 시장 확대 지속. 특히 <넛잡> 헐리우드 개봉으로 해외 성공사례 탄생
  - 영화 관객 2년 연속 2억명 돌파로 역대 최다 관객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영화관객은 1억 689만 명, 한국영화 점유율은 4년 연속 50% 이상 기록('14.12월 말 기준)
  - 음악시장 매출 4.4조원, 수출 2.7억 달러로 전세계 10위권의 음악 생산·소비 강국으로 성장하였으며, 글로벌 음악트렌드를 주도하는 창의적 문화콘텐츠로서 'K-POP' 위상 확립
  - 게임산업 수출액 27억 달러 달성(세계시장 6.3% 점유,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 56% 차지)
- ⇒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91.2조원(전년 대비 4.5% 증가), 수출액 49.2억달러(6.8% 증가), 종사자수 62.2만명(1.7% 증가)**
- 5대 핵심 콘텐츠는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로,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세계 최고수준의 ICT경쟁력**을 더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적극 육성 필요

□ 주요 성과

- 유관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 로드맵** 수립
  -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관계부처 합동) 대통령 보고(4.4/제3차 문화융성위)
    - \* △창조적 산업화 기반 구축 △창조적·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한류 확산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5대 과제 및 10대 세부 과제 발표
  -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및 「2014년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수립 및 발표(5.22,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심의·확정)
  -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 개최(미래부·문체부 장관급 회의, 총 6회 개최)
  - **콘텐츠산업 한·중 동반성장 추진계획** 발표(12.10/대외경제장관회의)
  -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12.18)
- **(게임) 차세대 핵심게임콘텐츠 집중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 중소 게임개발사 등 인큐베이팅 지원(61개사),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퍼블리셔(3개사)-중소개발사(22개사)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14.8월~), e스포츠(이스포츠 국내외 대회 개최) 및 기능성게임 활성화(기능성 제작 지원 11편 등) 사업,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게임문화재단 5.23 출범),
  -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게임과몰입 관련 연구), 상담치료 지원(Wee센터 45개소 전문 상담사 배치 및 연수 등)
- **(음악) 한국 대중음악(K-POP)의 글로벌 확산으로 해외진출 증대**
  - **국제적 음악비즈니스 마켓(서울국제뮤직페어, MU:CON)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아시아 음악산업 중심으로의 성장 가능성 확인
  - **권역별 음악마켓(MIDEM, SXSW 등) 'K-POP 쇼케이스'**에서 공식 집계 참관객 1만여 명 이상, 계약상담액 200만 달러 이상 기록
- **(애니캐릭터) <뽀로로> <로보카폴리>에 이어 <라바> <타요버스> 등**

국산 애니메이션·캐릭터 등장으로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편 극장용 애니메이션에서 두드러진 성과 기록**

- 애니메이션 매출액 5,200억 원('12) → 5,200억 원('13) → 5,800억 원('14)
- 캐릭터 매출액 7조5,000억 원('12) → 8조3,000억 원('13) → 9조 원('14)
- 단편애니메이션 <연애놀이>\*, 극장용 <넛잡>\*\* 성공사례 탄생
  - \* 정유미 감독 '연애놀이' 세계 4대 애니메이션 영화제인 자그레브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대상 수상 / '09년 단편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작
  - \*\* 극장용 넛잡, 국산영화 사상 북미 최대규모 개봉('14.1월 북미 3,427개관 개봉, 세계 1억 1,330만 달러 매출) / 제작지원 및 모태펀드 투자
- **(영화) 한국영화 점유율 4년 연속 50% 이상 지속 기록, 다양성 영화시장의 부활**('13년 343만명→'14년 1,491만명/3배 이상 증가)

<다양성영화 관객 현황(2014. 12. 30. 기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관객수						
전체	1억 5,696만명	1억 4,918만명	1억 5,972만명	1억 9,489만명	2억 1,332만명	2억 1,383만명
다양성	1,037만명	809만명	476만명	369만명	343만명	1,491명
비율	6.6%	5.4%	3.0%	1.9%	1.6%	6.9%

**해외영화시장 진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해외 대작영화 국내 촬영,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 할리우드 진출 성공 등 **외연 확대**  
 \* <어벤져스 2> 국내 대규모 촬영, <넛잡> 북미 3천여개관 상영 및 6,425만 달러 매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7.3)**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 중국과의 합작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승인받는 경우, 중국내 자국영화(중국의 대표적인 영화시장 규제인 외국영화 수입쿼터제의 미적용)로 인정

**영화산업 투자 환경 안정화**를 위한 전문투자조합 결성

- \*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영화 전문투자조합 결성('13.9.10, 150억원/100억원 출자)하여 민간 투자가 어려운 다양성영화 활성화 및 한국영화의 저변 확대 (<경주>, <워킹걸> 등 총 8편 지원)
- \* 기획개발 및 전체/12세관람가 전문투자조합 결성 추진(업무집행조합원 선정완료(11.17), '15.1~2월예정)
- **(만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의 도입으로 콘텐츠 제작 및 유통구조가 재편되면서 웹툰이 국내 만화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
  - \* 만화 매출액 7600억원(전년대비 0.9% 증가)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한국 콘텐츠산업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 지속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콘텐츠시장 점유율은 약 2.7% 수준으로 미약한 편
  - 콘텐츠산업은 기존 전략산업과 유사한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세계 7위권)을 갖추었지만 정부 지원은 총 재정의 0.1% 수준으로 재정책대 필요
- 국내 콘텐츠산업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 및 특정산업에 수출비중 쏠림 현상을 막기위해 전략시장 수출 지원 확대 및 전략적 대응(선택과 집중) 필요
- 분야별
  - (음악)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현지 에이전시 정보·선도기업의 진출 노하우에 대한 공유 필요
  - (애니캐릭터) 국산 애니메이션은 영·유아용 TV시리즈에 편중(최근 3년 지원작 85%가 영·유아용) 및 캐릭터 기업의 영세성으로 유관 산업 연계 미흡
  - (영화)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 다소 지연
    - 기획개발 및 12세/전체관람가 영화 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위해 모사업공고(3.14) 및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5.29)하였으나 조합운영자 선정 대상자 없음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공고(7.21) 등의 절차 진행으로 다소 지연
  - (만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힘입은 웹툰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14년 전체시장 약35.6%/KT경제경영연구소)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맞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웹툰시장 반영한 표준계약서 등)

□ 조치계획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콘텐츠산업의 재정 확대 지속 추진

- 콘텐츠 분야\* ‘15년 확정 예산은 6,040억원으로 전년(5,185억원) 대비 16.5% 증가하였으며, ‘18년까지 문체부 재정의 20%선까지 확대 추진

\*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분야 포함

<정부 재정 대비 콘텐츠 재정 (단위 : 조원)>

구 분	'14년	'15년 (정부안)
정부 재정	355.8	375.4
문체부 재정	4.4	4.9
콘텐츠 재정	0.5	0.6
(정부재정 대비)	(0.14%)	(0.16%)

- 중국 등 전략시장 진출 확대, 중남미 등 한류 신시장 개척, 현지화 지원 및 시장별 맞춤형 정보 제공
- 분야별 조치계획
  - (음악) 종합적 현지 시장정보에 기반을 둔 진출 가이드북 제작
    - 장르별 핵심시장 및 신흥·잠재시장에 대한 음악산업계 동향·이슈, 소비자 트렌드, 규제현황, 유통구조 등에 대한 심층 조사
    - 재외 한국문화원·홍보관, 콘진원 해외사무소, 연예기획사 간 연계 협조를 통해 해외진출 성공·실패사례 및 현지 에이전시 정보 공유
  - (애니캐릭터) TV시리즈에 편중된 애니메이션 시장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및 캐릭터 연계 사업 확대 추진\*\*
    - \* ‘15년 극장용·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신규사업 추진(2,000백만원)
    - \*\* ‘15년 캐릭터 연계 콘텐츠 제작(애니, 뮤지컬 등) 지원(3,900백만원)
  - (영화) 영상전문투자조합(기획개발 및 전체/12세관람가 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14.11.17)됨에 따라 ‘15.1~2월 결성 예정
  - (만화) 시장상황에 맞는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 \* 공청회(11.3), 공정위 약관심사(12월~), 표준계약서 제정·발표(‘15.1월 이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대부분 추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추진 · 다만, 영상전문투자조합 운영자 선정 지연 및 음악 창작소 리모델링 공사일정 지연으로 일부는 다소 지연되어 추진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콘텐츠 창의생태협의회 운영, 콘텐츠산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및 콘텐츠 분야별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협력(기능성게임 제작, 케이팝 해외진출, 애니메이션 방송광고 규정완화, 만화 성인인증방식 개선 등) · 관계부처 및 업계 종사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콘텐츠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지적)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조합운용사 적격자가 없어 재선정되어 계획 지연 =>(조치) 영상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선정(11.17)되어 '15.1~2월 중 투자조합 결성예정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세부 과제 모두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며 평균 달성도는 113% 수준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콘텐츠산업의 성장 추세에 힘입어 5대 핵심콘텐츠는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 - (게임) '14년 조사결과 수출 27억달러로 1위를 차지하며 대표적 한류콘텐츠로 자리매김 - (음악) 케이팝 해외진출 지원 및 장르별 대중음악 앨범, 공연 제작지원으로 매출액 두자리수 성장 - (애니) 해외영화제 수상(단편 <연애놀이> 자그레브 영화제 대상), 할리우드 개봉 성공사례 탄생(<넛잡> 북미 최대규모 3,427개관 개봉 및 해외수출 1억 달러 달성) - (영화)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7.3), 국제프로젝트 기획개발 지원·비즈매칭을 통해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중저예산영화 전문투자조합 운영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영화 다양성 증대 - (유지컬) 청소년 유지컬 제작(신규 2편) 및 단계별 지원(시범공연 11편, 제작 8편, 재공연 6편), 창작 기획인력 육성(100명)

32

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

다소우수

□ 총평

- 자율적 상생협약,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실효성 확대방안 마련 등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및 상생환경 조성에 기여
- 비주류 독립 예술영화 및 중소기업 애니 업체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분야의 다양성 확대
- 지역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산업기관 지원, 산업 기반확충 등 콘텐츠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성장의 토대 마련

□ 주요 성과

○ (권익보호)

- 영화 분야 상생협약 체결
  - \* 제3차 노사정 이행협약('14.10),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 협약('14.10)
-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업계 자율적 노력 지속
  - \*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현황(5종) : 근로('11.5.1), 시나리오('12.12.1), 시각효과(VFX)(('13.12.1), 상영('14.10.1), 투자('14.10.30)

• 상영표준계약서 주요내용: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영화를 상영, 교차상영시 사전 서면합의 또는 개별계약에 명시, 영화상영 최소 3일 전 예매 개시, 계약없이 무료입장권 발매금지 등

• 투자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 기간 제한, 제작사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순이익 배분 기준 명시, 영화 스태프 인건비 별도 계좌 관리 도입 등

-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한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 정부출자 모태펀드 결성조합이 영화투자 시 영화 근로·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14년~), 영발기금 사업지원 시 근로·시나리오·특수효과(VFX)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14년~)

-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실시( '14.3월)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시행('14.7.29)
- **(다양성 확대)** 다양성 영화시장의 부활('13년 343만명→'14년 1,491만 명/3배 이상 증가), 예술영화전용관 확대('13년 38개소→'14년 53개소/ 문체부 지정), 독립영화 및 중저예산 영화 투자지원(11편 85억원), 독립영화 제작지원('13년 56편→'14년 58편), 아동·청소년 가족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확대('13년 4편→'14년 12편)
- **(지역콘텐츠산업 육성)** 디자인패션산업 육성(대구), 문화산업클러스터 활성화(강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R&D 과제 지원(인천, 전남 2개소) 등 지역특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 \* '15년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신규 예산확보(140억원)
- **(산업기반 확충)**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인천 등 4개소)·작은영화관(강화, 충남 서천 등 10개소) 건립, 문화산업기관 지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소), 창작 및 창업 수요가 높은 곳 중심으로 콘텐츠코리아 랩 5개소 설립(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 \* 제1센터 운영성과 : 예비창업팀 발굴 및 콘텐츠 개발(60개팀), 콘텐츠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발굴(15개 기업), 글로벌쇼케이스(SMXM2014) 스타트업 10개팀 참가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예술영화전용관지원 사업의 선정시 관객 중심의 서비스, 시설·환경, 전용관의 자구책 및 운영실적 등에 관해 세부적이고 실효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보완 필요

□ 조치계획

-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예술영화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선 방안' 연구용역 진행('14.8~'15.1) 중이며, 완료 후 차후 사업 계획 수립 시 활용할 계획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추진 일정에 따라 충실히 추진 · 지자체 예산교부는 지연되었으나, 외생변수(세수부족에 따른 자금미확보)로 인해 '14.2~6월까지 분할 교부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불공정행위 후속조치 마련 시 공정위와 협의, 콘텐츠 창작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부 등 사업과 연계 추진 등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 활용하여 목표한 성과를 거둠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13년도 및 '14년도 별도의 지적사항 없이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여 영화분야 상생협약 체결, 표준계약서 제정('14년 신규 2종 등 총 5종), 불공정모니터링 실시('14.3) 등 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성과 확보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대부분 성과지표는 달성 - 다만, "독립영화 제작 지원작 개봉 및 영화제 수상 실적"은 독립영화제 수가 증가하지 않고, 동일작품이 여러 영화제에 중복 수상/초청을 받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21편 달성(91%))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영화분야 상생협약, 표준계약서 제정 및 자율적 이용 유도 등으로 표준계약서 이용률이 증가하고, 콘텐츠코리아 랩 전국 5개소 조성으로 예비창업팀 60개팀 지원, 초기창업기업 15개기업 발굴 등 창의적 아이디어의 단계별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긍정환경을 조성하고 창작기반을 조성하여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
가점	정부3.0 '일하는 방식'	우수	· 자체 정부 3.0 경진대회 출품(맞춤형 콘텐츠 산업 창업·창작 지원)

## □ 총평

- 저작권 교육 내실화 및 생활속 저작권 교육 운영을 통해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의식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
  - 초·중·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등 학교 중심 저작권 교육 강화, 학교 보급용 교육 콘텐츠 개발 등
  - 청소년 저작권 각하제도 연장 시행 및 기소유예제 교육, 청소년·대학생(원)생 대상 공모전 개최 등 생활형·참여형 저작권 교육
  - 학교 내 교사를 저작권 교육 담당 전문 인력 양성함으로써 생활 속 청소년 저작권 교육이 가능하게 함
- 저작권 산업현장 실무인력 대상 저작권 교육을 통해 관련 분쟁 예방과 공정한 저작물 이용 촉진
  - 각 콘텐츠 분야별 저작권 관련 실무와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저작권 관련 현장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
  -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산업종사자 과정을 확대·운영하여 음악, 출판, 인터넷 과정 등 총 10개 과정 운영
- 저작권 존중과 나눔 문화 형성을 위한 저작권 홍보 강화
  - 「착한 저작권 굿◎」캠페인을 통해, 영화계 중심의 ‘굿 다운로드 캠페인’을 음악, 만화, 캐릭터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 확산
  - 알기 쉽고 친근한 캐치프레이즈를 개발하여 국민 눈높이 홍보를 통한 올바른 저작권 의식 제고
  - SNS 기자단과 페이스북 등 SNS 활용하여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홍보 및 문화예술인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저작권 인식제고 홍보

## □ 주요 성과

## ○ 청소년 저작권 교육 내실화 및 생활속 저작권 교육 운영

- [저작권 체험교실] 학생들이 직접 창작활동을 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토록하는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학교 정규 교과과정 내 일정시간(6시간 이상) 저작권 교육 실시(195개 교실)
  - [연구학교] 학교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9개교)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학교, 공공기관 등 현장 방문,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실시(8,634회, 394,576명)
  - [문화예술인 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인복지재단 연계 문화예술인 등 인식 취약계층 저작권 교육 실시(8회, 300명)
  - [대학 연계 교육] 대학 연계를 통한 저작권 인식제고 확대 추진
    - 대학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운영(14개교, 969명 수강)
    - 대학내 저작권 온라인 강좌 개설·운영('14년 19개교)
    - 대학이러닝지원센터 연계 저작권 강의 개설·운영('14년 11개교)
  - [저작권 지킴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운영(45회, 2,461명)
    - ※ 청소년 저작권 각하제도 연장 시행(14.3월~15.2월) 및 기소유예제 교육을 통한 청소년층 저작권 침해사범 감소와 고소남발로 인한 피해 최소화 도모
  - [공모전]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13년 공모 2,441편 → '14년 공모 2,508편) 및 대학(원)생 대상 저작권 논문공모전('13년 공모 29편 → '14년 공모 33편) 개최
  - [교원직무연수] 저작권 교원직무연수 운영(1회, 30명) 및 교원연수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1회, 64명), 원격교육과정(10,815명)
- 저작권 산업현장 실무인력 대상 저작권 교육
- [문화학교, 아카데미] 일반인 대상 입문 교육과정인 저작권 문화학교 운영(총 3회, 69명), 산업 분야별 실무종사자 대상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11회, 222명)



- [원격교육] 음악, 출판,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방송종사자 등 산업분야별 10개 과정 운영(9,005명)
- 방송작가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 운영(1회, 22명)

#### ○ 저작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의 체계화

- 학교 보급용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3종, 11월) 및 저작권 내용 교과서 반영 실태조사 연구(1건, 11월)
- 원격교육콘텐츠 개발(10종) 및 리뉴얼(2종)
  - 교원용(1종), 일반인(2종), 청소년(2종), 제도소개(2종), 과정소개(1종), 핫이슈 특강(2종) 개발
  - 교원용(2종) 교육콘텐츠 리뉴얼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인증 취득(3개 사이트) 및 웹취약점 보안강화 등 시스템 안정적 운영

#### ○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전개

- [선포식]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선포식(4. 17, KT올레스퀘어)
  - 공동위원장(가수 유열, 웹툰작가 윤태호) 위촉
  - 홍보대사(유희열, 안상태, 뽀로로·타요·라바, 카트라이터 등) 위촉
-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포스터 및 스티커 제작·보급(5~6월)
- 캠페인 광고영상 및 로고 등 홍보콘텐츠 제작(7~9월, 10종)
  - 광고 4종(방송·옥외·해외), 소개영상 등 3종, 로고·지면광고 등 3종
- [대중매체 활용] 대중매체를 활용한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광고
  - CATV(9~11월), IPTV(9.11월), 유튜브(9~11월), 라디오(11~12월)
- [협업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익광고, 전광판 국가광고 등 정부매체를 활용한 협업 홍보
- [캐치프레이즈 개발] 알기 쉽고 친근한 캐치프레이즈를 개발하여 국민 눈높이 홍보를 통한 올바른 저작권 의식 제고

※ 캐치프레이즈 개발 TF 회의(3회)에서 21개 캐치프레이즈(안) 개발, 광고홍보 학부 학생 설문 및 국민의견 수렴 추진  
'정품으로 다운받고, 정직하게 지불하자, 착한 저작권 굿©' 등 3개 안 개발

- [연구용역] 기존 저작권 홍보정책의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개발' 정책연구용역 추진

#### ○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홍보

- 저작권 SNS 기자단 제3기 운영(총 20명, 389건 콘텐츠 제작 홍보)
- 분야별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와 연계한 저작권 홍보(8회)
- 웹툰(8편), 홍보영상(10종) 등 홍보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채널 개설(4월)
- 1일 2건의 저작권 정보 및 생활의 팁 정보를 제공,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페이스북 활성화(9,300여명 구독)
- 정통성 있는 저작권 전문 정보지 월간 '저작권 문화 책자발간(월 3,100부)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소년 저작권 교육 홍보·협력 강화 필요
  -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연수원 등 교육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저작권 내용을 초·중·고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파급력 있는 지상파 방송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 필요
  - 저작권 존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그동안 주 콘텐츠이용층에 집중되었던 홍보를 전국민 대상의 광범위한 홍보로 확대 필요

#### □ 조치계획

- 청소년 저작권 교육 홍보·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강화
  -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연수원 및 국·검·인정 교과서 집필진 등 워크숍 조기 실시 및 네트워크 강화('15. 2~)

- 보상금관리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효율성 및 효과 극대화
- 저작권 내용의 교과서 내 체계적 반영을 위한 초·중등 교과내용 연구 및 SW 관련 교과(실과 등) 내 저작권 내용 반영 연구('15. 3~)
- 지상파 방송 등을 활용한 대국민 저작권 홍보('15.3~11월)
- 생활 속 저작권 존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광고뿐 아니라 방송프로그램 내 소재 반영 등을 통해 저작권 홍보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추진일정에 충실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음
	1-2. 관련기관 협업도	미흡	· 교육부, 시도연수원, 대학, 유관기관 등 충실하게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법무처 차원의 저작권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실적이 있음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미흡	· '13년, '14년 자체평가 지적사항이 없어 추진계획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100% 이상 목표치를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맞춤형 교육과 참여형 홍보 등을 통해 저작권 인식 제고. 특히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의식지수가 전년 대비 모두 향상되었음

34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보통

□ 총평

-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불법복제 단속·예방활동 전개한 결과 국내외적으로 저작권 보호 관련 성과 도출
  -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 구축' 목표를 세우고 다각적인 불법복제물 유통 단속 활동 및 예방활동 전개
    - \* 토렌트 등 새로운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한 온라인 기획수사, 불법복제물 유통 관련 상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SD 카드 등을 통한 신종 불법복제 음원 유통에 대한 단속, 대학가 불법 출판물 유통 근절대책 마련 등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평가
-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지 침해 대응 및 WIPO 등 국제기구와 해외 정부기관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을 통해서 합법 이용 환경조성
  - 해외 저작권 상담 및 법률컨설팅, 경고장 발송 등 침해구제조치 지원 및 합법시장 활성화를 위한 권리와 현지 콘텐츠 업계 간 교류촉진
  - WIPO 등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다자간 및 양자 간 공동 포럼 등을 통해 현지 저작권 인식 개선

□ 주요 성과

- 디지털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단속강화를 통해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망 구축 및 저작물 유통 환경 개선

◆ 불법 저작물 유통 환경 개선 성과(2014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 합법시장 침해율 감소 : ('11년) 18.8%→('12년) 16.2%→('13년) 16.0%
- 합법시장 규모 확대 : ('11년) 10조 8153억 원→('12년) 11조 4963억 원→('13년) 12조 5,723억 원

- 불법게임 사설서버, 토렌트 등 새로운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확산 방지

- **불법게임 사설서버 기획수사 추진(1월~7월)**
  - 불법게임 사설서버 10개사 압수수색
  - 불법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1명 구속)
  - \* '리니지', '리니지P', '블레이드앤소울' 등 인기 온라인 게임들의 게임 이용자들을 흡수하여 게임산업의 침해규모는 1,633억 원으로 추산
- **토렌트 사이트 기획수사 추진(7월~12월)**
  - 10개 토렌트-웹하드 업체 압수 수색 및 조사(7~11월), 검찰 송치 추진(12월)

- SD카드(일명, 효도 라디오)를 통한 불법 음원 유통 확대에 따라 재래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 추진(1월~11월)
- \* SD 카드 등 6,444개(14,985,630점)수거

**<관련 언론보도>**

- **언론보도 상황(KBS뉴스 등 23개 언론매체)**
  - <디지털타임스, 1.27> 온·오프 '저작권 지킴이' 내달 3일부터 활동 개시
  - <머니위크, 1.27> 저작권 보호, 장애인과 어르신에 앞장선다
  - <연합뉴스, 1.28> 2014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 <전자신문, 3.30> 토렌트 사이트 차단 이후 불법 저작물 유통 10분의 1로 감소
  - <전자신문,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5.15> 문화부, 저작권 침해사이트 169개 적발.. 스트리밍 사이트 급증
  - <KBS 뉴스, 7.10> 불법게임 사설서버 단속...15명 검찰 송치
  - <경향신문, 7.10> 리니지 등 게임 불법 사설서버 단속...연간 1633억 추산
  - <뉴시스, 7.23> '효도라디오' 불법입니다, SD카드 유통업자 실행
  - <뉴시스, 8.4> 문체부, '효도라디오' 음원 불법복제 유통업자 적발
  - <연합뉴스 TV, 8.4> 문체부, 부산서 음원불법복제 메모리칩 1천여건 압수
  - <동아일보, 9.5> 반년 걸리던 토렌트 단속, 2주안에 끝낸다

- 고소·인지 등에 따른 저작권 특사경 사법처리 실적('13년 1,192건 → '14년 2,099건)
- 대학가 불법복제 출판물 수거·폐기('13년 12,739점 → '14년 15,474점)
- 재택모니터링 등활용 불법저작물 복제·전송 중단 요청('13년 1,600건 → '14년 1,899건)
- 불법저작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시정권고('13년 171건 → '14년 286건)
-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불법복제 SW 예방활동('13년 2,400개 → '14년 2,500개)
  - \* 방문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의 SW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 성과('13년 86.3점 → '14년 88점)
- 공공기관 SW 자치점검 및 실사 점검 실시(자체점검 : 2,478개, 실사점검 : 200개)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발표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6년 연속 제외
- \* [USTR 2014년 특별 301조 보고서] 우리나라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평가

- BSA\*는 "정부 단속 노력의 결실"로 한국의 '13년 SW 불법 복제율이 **사상 처음 40% 미만인 38%**를 달성했다고 발표('14.6.24)
  - \*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70여개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각국 SW 불법복제율을 발표('11년 이후는 2년 마다 발표)
-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 구축 및 합법 유통기반 환경조성**

- \* 해외 저작권 상담(전화, 면담, 온라인) 및 현지 법률 컨설팅 : 581건('14.11월)
- \* 불법 저작물 경고장 389건 발송, 6,492개 URL 삭제('14.11월)
- \* 중국내 한국 드라마 온라인 서비스 차단(Geo-Blocking) 및 사이트 폐쇄 : 6,633건('14.11월)
- \* 국내 방송사 태국 내 저작권 침해소송 및 유통협상 지원(6월~)
  - 태국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 대상 한국 방송사 배상협의 등 지원
  - 태국 내 불법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
- \*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KMCA), KT뮤직 요청 베트남 내 음원 불법유통사이트 현황 조사 및 정보 제공(8월~9월)
- \* 중국 내 한국 저작권 인증 : 853건('14.11월)
- \* 해외 합법유통계약 지원('13년 69건 → '14년 76건)
- \* 합법유통활성화를 위한 한국 콘텐츠와 현지 콘텐츠 업계간 교류 촉진 : 5회(상해, 북경, 방콕)
- \* 방송, 웹툰 등 콘텐츠 분야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운영(4회)

- **WIPO 국제기구 및 한류 거점 국가 정부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 콘텐츠 보호 및 현지 저작권 인식 개선**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연례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연수프로그램 운영 : 3회
- 현지 저작권 인식제고 캠페인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 5회
- 현지 세미나·교류회 등 개최 : 6회

- 저작권 교류·협력 MOU 체결 대상국 정부 간 공동 저작권 포럼 개최 등을 통한 협력 채널 구축 및 저작권 인식 공유

- 2014 한-중 저작권보호 공동 캠페인 정부 간 MOU 체결('14.7.17)
- 한-필 양국 정부 간 MOU 체결('14.9.18)
- 국제 포럼 및 양국 간 포럼 개최 : 7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지연 없이 충실히 사업 추진
	1-2. 관련기관 협업도	미흡	· 검찰, 미래부,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 위원회 등 저작권 보호활동 유관기관과 여러 현안에 대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함 · 불법 게임 사설서버, 토렌트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유형 모니터링 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조치를 취함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13년, '14년 자체평가 지적사항이 없어 추진계획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불법복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강화 및 SW 예방활동 컨설팅 등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활동 집행을 통해 목표치 대비 116%이상 초과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 집행을 통해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산업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 *미국 USTR 지재권 감시대상국 6년 연속 제외, 합법시장 침해율 지속적 감소, 불법복제물 게시 웹하드 사이트 수 감소, SW 예방활동 만족도 높음

35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매우 우수

□ 총평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및 온라인 저작권 이용계약 서비스 지원으로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조성
  - 신탁단체 및 서비스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저작권DB 정제, 시스템 개선 등 추진
- 콘텐츠 산업과 일반 국민의 창작 활동의 원천인 자유이용저작물을 종합적으로 수집·제공함으로써 창조산업의 기반 조성
  -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양질의 자유이용 저작물을 수집하고 사업화 지원 등 민간이용 활성화 확대
- 저작물 창작·유통 환경 변화와 스마트 환경의 소비자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저작권기술 지원 강화
  - 클라우드, 복스캔, 3D 영상 콘텐츠 등 새로운 콘텐츠 유통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기술 연구과제 확대

□ 주요 성과

-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신속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 및 온라인 저작권 이용계약 서비스 운영
  - \* 음악(전송·복제), 어문(전송·복제 이용허락/도서관·수업목적 보상금), 뉴스(전송) 거래 계약 건수 3,810건('14년 12월 기준)
- '음악 전송사용료 종량제'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유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회 개최, 음악 로그정보 수집 및 제공 실시
  - \* 협의회 19회 개최(5개 음악서비스사업자,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참여)
  - \* 수집된 음악 로그정보의 가온차트 제공(35,782백만건, '14년 11월말 기준/누계)

- 법정허락 서비스 간소화 지원 서비스 활성화
  - 상당한 노력 수행 등 법정허락 간소화 지원을 위한 저작권찾기 시스템 운영 및 위탁관리저작물 및 3년경과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 수집
    - \* 위탁관리저작물 권리정보 수집·제공(음악·어문·방송대본·영화·방송·미술·기타 7개 분야) : 5,818,630건('14.11월말 기준/누계)
    - \* 3년경과 미분배보상금 대상 저작물 수집 및 상당한 노력 수행 : 1,014,942건('14년 11월말 기준/누계)
- 공유저작물 발굴 및 디지털화 지원, 일반국민이 자율적으로 저작물을 등록하는 민간자율등록시스템 구축 등 공유저작물 수집 강화
  - \* 민간단체(한국미술협회,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등)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총 6만건의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및 서비스
  - \*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신규협력으로 1천건의 만료저작물 디지털화 및 서비스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개최, 창작·나눔 갤러리 운영 등 공유저작물에 대한 홍보 강화
  - \* 콘텐츠코리아랩,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에서 공유저작물 창작·나눔 갤러리 운영
- 네이버 지식백과 등 민간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한 공유저작물 서비스 채널 다양화, 공유저작물 포털서비스 확대, 비즈니스 컨설팅 등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도모
  - \* 공유저작물 콘텐츠 DB 구축(누계 52만건)
  - \* 공유저작물 이용실적(다운로드+원문보기) : 259만건('14.11월 말 기준)
  - \* 공유저작물 사업화 지원 건수 : 39만건(EBS 문화센터, 미래엔 등 7곳, '14.11월 말 기준)
  - \* 공유저작물 비즈니스 컨설팅 운영(10회)
- 새로운 저작물 이용, 유통,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기반 마련 및 적용
  - 웹하드 등록요건에 포함된 기술평가 신청(19건, 1~11월)에 대한 8건(오디오 4건/비디오 4건) 성능평가 완료
  -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기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웹하드 서비스 운영사이트에 대한 기술적용(95개 사이트) 실태점검
  - 소프트웨어(모바일앱)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성능 평가 체계 마련

- 클라우드, 복스캔, 3D 영상 저작권 보호 등 핵심기술 과제 및 저작물 유통 라이선스 등 서비스 혁신 과제 수행(12개 과제)
- '14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위터마크 기반 앱 필터링 기술)
- 전자책 DRM 상호운용성 국가표준 제정(5건, '14.12.17)
- 저작권기술 R&D 기술의 실용화(1개 과제)
  - \* (주)나모인터랙티브, ePub 3.0 기반 전자책 솔루션 일본시장 진출('14.7월)
- 저작권기술 R&D 성과 확산 활동
  - \* 저작권 기술이전 설명회 2회(230여명 참석)
  - \* 저작권기술 홍보부스 운영1회(10여개 업체)
  - \* 저작권기술 정보자료집 제작 및 배포(10개 과제, 40개 기술 내용 포함)
- 등록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영구보존 환경 구축 및 등록복제물 재해 복구 체계 운영
  - 책자, 유인물, CD/DVD의 보존매체 전환 등 디지털 아카이빙(38,000건) 및 재해복구 체계시스템(이중보관) 운영을 통해 등록저작물 안정성 확보
- 대국민 저작권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통합(10개)·연계 및 서버가상화 추진
  - 홈페이지 통합 및 단일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One-Stop서비스 제공 및 민원 편의성 향상
  - 서버 가상화(15대→3대)를 통해 노후·단종된 서버의 안정적 운영도모
-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가디지털식별체계(UCI) 보급 및 시스템 표준화 마련
  - 디지털콘텐츠 유통 분야 및 성장 산업분야의 콘텐츠를 발굴하여, UCI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 신규 등록관리기관(5곳) : 공공(환경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민간(천재교육, 콘텐츠스퀘어, 아서랩)
  - 등록관리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UCI 식별번호 발급·변환서비스가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하였으며, 신규 기관이 UCI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편리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체계적인 기술 지원 체계 마련
    - \* UCI 식별번호 발급 건수 3,400만건(누적 1억7,200만건, '14년 12월 현재 기준)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됨 · 다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건은 6월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건 등 외부영향으로 8월에 개최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미래부, 방통위, 네이버, 서울시 등 권리자, 이용자, 사업자간 활발한 협력을 통해 목표한 성과를 거둠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자체평가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지연되고 있던 유관기관 워크숍을 3분기에 개최 하는 등 적시 대응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목표치 대비 100%이상 달성하였으며,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구축 및 시장에 적합한 저작권 산업구조 마련을 통해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온라인 이용계약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음악분야 저작권 DB 정제 및 음악로그정보 수집·제공 등을 통해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을 조성함 · 자유이용저작물의 수집 및 민간 개방 확대로 7개 단체(39만건)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등 민간분야에서 기대한 정책효과가 발생함 · 저작권 기술 특허등록 9건, 출원28건 등 기술적 조치 기반 마련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 이용, 유통, 서비스 환경변화에 대응함

36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다소우수

□ 총평

- 신문법 개정 및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 수립 등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체제 정비
- ABC 제도의 합리적 정착노력 및 정부광고 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화 추진을 통한 미디어시장 투명성 및 공정환경 조성
- 인터넷신문으로 인한 피해방지 노력, 뉴스콘텐츠 유료이용 환경 조성 등 디지털미디어환경 대응역량 강화
- 지역신문·잡지 등 취약매체 전략적 지원, 토요 NIE교실 운영·소외계층 신문료 구독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 언론의 자율심의 지원, 생애주기형 언론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양질의 분석기사 제작지원 등을 통한 저널리즘 정착지원

□ 주요 성과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체제 정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14.3월) 개정, △뉴스통신진흥법 시행령('14.11월) 개정, △지역신문발전 3개년계획 수립('14.9월) 등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14.3) 언론진흥기금 지원대상을 해외 한국어 신문까지 확대
- \* 뉴스통신진흥법 시행령('14.11) : 국가기간통신사 구독료 산정방식 합리화\* 및 구독계약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기존) 단말기 기준 → (개선) '공적기능 준비용 보전' + '뉴스사용료'
- \*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14.9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금운영방식 개선

<미디어시장 투명성 및 공정환경 조성>

- ABC 협회 재정 건정성 강화, 공사 신뢰성 확보 등 ABC 제도의 합리적 정착 노력('14.5월, ABC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 정부광고 대행제도 개선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광고법 ('13.7월 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교문위 계류) 법제화 추진

- \* 정부광고법(안) 주요내용 : 발행부수·유가부수를 신고, 검증, 공개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 우선배정, 복수 검증기관 지정, 유사광고 금지 등
- \* 현행 정부광고 대행제도는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

- 제2기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13.3.18~'16.1.31) 구성·운영
  - \* 1기 조사방식 보완 및 매체별 여론 집중도 추이 지속 분석 후 2기 여론 집중도조사 결과 발표('16.1월 예정)

### <디지털 미디어환경 대응역량 강화>

-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의 준수사항 실태점검('13년) 및 후속조치 추진('14년) 등 인터넷 신문으로 인한 피해방지 노력
  - \* 인터넷신문 실태점검 이후 후속조치 결과 : 총 677건 조치(자진폐업74, 직권등록취소26, 직권말소25, 행정지도552건 /12개시도)
- 뉴스저작권 상품 합법이용 홍보·모니터링, 뉴스 통합 라이선스 상품 판매 확대 등 뉴스콘텐츠 유료이용 환경 조성
  - \* 뉴스저작권 매출액 : ('11년)58억 → ('14년) 110억
  - \* 뉴스저작권 가격체계를 라이선스 방식으로 변경('14.7월~), 합법이용 확산
- '뉴스콘텐츠 공용 인프라' (클라우드 방식의 뉴스 가공·유통 시스템) 저변 확대를 통해 매체별 멀티 플랫폼 환경대응 지원
  -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활용사 : ('11년) 26개사→('14년) 52개사
- NIE 확산을 통한 미래독자 창출 등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 \* 지역미디어교육센터 확대를 통한 거점별 미디어교육 협력망 구축 : ('13년) 3개→ ('14년) 10개
  - \* 자유학기제 연계 NIE 과정 활성화를 위해 12개 교육청과 MOU 체결

### <취약매체·소외계층 대상 전략적 지원>

-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14~'16년)' 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지원과 동시에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선 추진
  - \* 연속 지원 대상사 성과평가 실시, 30~50%는 1년간 지원 중단, 콘텐츠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하 신문사에 대해서는 구독료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 우수잡지 선정·보급 확대 및 한류잡지 해외수출 기반 구축
  - \*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배포(54종, 321개처), 한류잡지 웹앱(K매거진) 고도화,

세계미디어마켓(WMM) 등 해외 잡지·도서전 참가 및 한류잡지 콘텐츠 홍보 책자 제작·배포(영어, 4,000부)

### <저널리즘 정착 지원>

- 인터넷신문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자율심의 지원 등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언론 자정노력 중점 지원
  - \* 언론진흥재단의 공모사업에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매체 광고자율심의 참여사에 가점 부여하도록 제도개선('15년부터 적용)
  -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관련 5단체가 제정·발표('14.9.16)한 <재난 보도준칙>을 언론재단의 언론인 대상 교육과정에 반영, 준칙 준수노력 확대
- 뉴스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전문적·심층적인 양질의 분석기사 확산(30여건의 시의성과 공익성을 담보한 뉴스기사\* 제작지원)
  - \* 사례 : 세계일보 '성평등 예산 세상을 바꾸다(14년 한국여기자협회상 수상)' 경향신문 '물은 기본권이다(13년 국제개발협력 언론상 수상)'
- 생애주기형 언론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심층 교육과정 운영 등 언론인 대상 교육 체계화
  - \* (1년차 미만) 수습기자 교육, (3년차 이상) 공통역량교육을 통한 취재실무 능력 강화, (5년차 이상) 현장중심의 전문취재역량 강화를 위한 디플로마 교육, (7년차 이상) 해외장기연수 기회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등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디어환경 변화 대비를 위한 법·제도·인프라 지속 확충 필요
  - 모바일 시대\* 등 급격한 미디어 환경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정비 및 정책연구기능 강화, 인프라 확충 필요
  - \* 몇 년 내에 모든 엔진이 모바일로 가는 추세가 될 것('14.11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 \* 모바일 기기를 통한 뉴스 유통·소비 대폭 증가하는 반면, 신문·잡지 구독률은 지속 하락('04년 48.3%→ '13년 20.4%)

### □ 조치계획

- 디지털·모바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기능 강화

- 미디어산업 현안 이슈보고서 발간 예정('15년~ / 월 1회)
- 미디어환경 변화에 걸맞는 언론진흥기금 사업 및 조직개선 방안 마련
- 언론재단 사업평가 및 조직진단 연구('14.12~'15.3, 고려대 산학협력단)를 통해 기금사업 및 조직정비 등 효율성 제고 노력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모든 사업을 추진계획의 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였음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권익위·복지부·식약처·여가부·방통위 등과 함께 청소년보호를 위한 선정적 인터넷 광고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운영('14.4~11월) - 권익위에서는 의결('14.10.27)을 통해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 개선방안 마련  · 인터넷신문 대상 신문법 위반여부 실태점검 후 시도와 연계하여 후속조치를 진행, 12개 시·도에서 직권등록취소 등 총 677건 행정처분이 진행됨  · 미래독자 창출 등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2개 지역교육청과 MOU 체결하여 공동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함 -서울시교육청(1월 16일), 충청북도교육청(8월 22일) -광주시교육청(8월 29일), 경남도교육청(9월 2일) -경북도교육청(9월 4일), 대전시교육청(9월 15일) -충남도교육청(10월 23일), 제주도교육청(10월 29일) -전남도교육청(11월 4일), 울산광역시교육청(11월 18일) -강원도교육청(12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12월 27일 예정)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2013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을 반영, 조치완료 -인터넷신문 대상 신문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13.6~9)하고 시도에 실태조사 결과를 송부하여 후속조치까지 연계, 미디어환경 개선 노력 * 총 677건 조치(자진폐업74, 직권등록취소 26, 직권말소25, 행정지도552건 /12개시도) · 2014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을 반영, 조치완료 -연합뉴스 이용자 만족도 관련,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조정(62.7→ 64점)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권익위·식약처·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여가부·방통위 등과 함께 협조체계 구축('14.4~11) - 또한,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해 언론재단 공모사업에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매체 광고심의 참여사에 가정 부여 추진계획 수립('15년적용)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4개 성과지표 모두 100% 이상 목표달성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신문사 활용실적' : 102% - 연합뉴스 연간정보제공 건수 : 100% - 연합뉴스 외국어홈페이지 월평균페이지뷰 : 107.0% (총 1,177만건) - 국내외 뉴스제공 계약사수 : 100.4% (총 695개사에 뉴스제공계약)
정책 성과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선정적 기사, 광고로 인한 국민 불만이 증가하였으나, 인터넷신문 실태점검 및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인터넷신문 유해환경 개선에 기여(12개 시도, 총 677건 조치)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각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발행하게 되는 개별비 중복투자(52개 언론사 시스템 구축비용 약 290억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발생  · 뉴스저작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이용현황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뉴스저작권 매출액이 지속 확대(11년 58억원→ 14년 110억)  · 급속한 미디어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독자 창출을 위한 신문활용교육 지속확대 추진 등을 통해 뉴스미디어산업의 환경대응역량을 강화함 (대학생 뉴스 멘토링 '다독다독' : '13년 2개 권역 112명→ '14년 4개 권역 240명으로 확대)  ·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8개 분야, 54종) 및 배포(321개처, 78,627부) 등 취약매체 전략지원을 통해 여론의 다양화, 국민의 알권리 확대 등



## □ 총평

- 방송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및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등 제도개선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창작 역량 기반 강화
-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에 따른 웹드라마 제작지원 등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한 제작지원 추진 및 방송포맷 제작지원을 통한 한류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
- 방송영상·광고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창의력 있는 방송산업 예비 전문 인력양성
- 스마트 미디어 도입·디지털 방송전환 등 고화질 차세대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제작 인프라 시설 구축·운영을 통한 방송영상산업의 성장기반 확보
- 지역별 맞춤형 해외진출을 통한 우수 한류방송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기반 조성 및 한류 문화 확산

## □ 주요 성과

-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스태프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서(근로·하도급·위탁) 제정·발표(8월)
  - 방송제작스태프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피해보상,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저작권 법에 따른 권리 보호 등을 규정
- 열악한 제작 환경에서 극분을 집필하는 방송작가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사(제작사) 작가 간’ 표준계약서 (안) 개발(12월)
-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공정거래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활용 및 보급
  - KBS 드라마다큐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활용 중( '13.10월)

- 방송콘텐츠의 기획·제작·편집·송출·유통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방송지원센터 ‘빛마루’ 운영
  - '13.12월 개관 및 시험가동 이후 안정적으로 시설운영, 서비스 제공 중
  - 스튜디오 37개 업체 이용 463회분 제작, 중계차 32개 업체 146회분 제작, 실버방송 및 환경TV 등 4개 채널 송출, 방송콘텐츠 3,323편 유통(2,579편 등록, 744편 다운로드, 88개사 회원가입)

## &lt; 빛마루 시설 현황 &gt;



<b>(조성부지)</b>	한류월드(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소재)
<b>(시설규모)</b>	부지 10,702㎡(3,237평), 연면적 56,594㎡(17,120평), 지상 20층 지하 4층
<b>(건립예산)</b>	2,192억(문체부 1,172억/미래부 1,020억)
<b>(주요시설)</b>	스튜디오 6(대형 1, 중형 1, 소형 4), 중계차 2, 편집실 17, 유통실 등
<b>(이용대상)</b>	독립제작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우수방송콘텐츠 발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드라마, 다큐멘터리,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장르별 특화 지원을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업계의 제작역량 및 해외 경쟁력 강화(연속물 3편/단막극 8편/다큐 17편/포맷파일럿 9편/포맷비블 6편)
    - \* '14년 미니시리즈 <닥터 이방인> 평균 시청률 12.7%, 약 75억 원 매출
    - \* '14년 미니시리즈 <골든크로스> 평균 시청률 10.1%, 약 45억 원 매출
    - \* '14년 단막극 지원작 <간서치 열전> KBS와 네이버 TV캐스트 동시 방영 및 네이버 TV캐스트 누적 조회수 130만 달성
- 다양한 방송영상산업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맞춤형 핵심 창의인재 발굴 및 육성
  - 다큐멘터리리디렉터스쿨(2과정, 51명), 드라마프로듀서스쿨(2과정, 41명),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정규강좌 38과정, 9,700명 수료/열린강좌 26과정 15,000명 입학)
  - 현장맞춤형 커리큘럼 제공을 통하여 '14년 교육생 평균 만족도 91점 달성

○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기반 시설 지원·구축

-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지원

\* UHD 4K 카메라 4세트 및 TV스튜디오 LED 영상장비 3세트 도입, TV부 조정실 음향시스템 2세트 업그레이드, 제작지원시설 종합 포털사이트 구축 등

- HD드라마타운 건립

\*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완료, 건축허가 취득, 문화재 표본조사 완료, 시설공사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등

○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국제마켓 개최지원 및 언어별·권역별 현지 규격에 맞는 재제작 지원으로 수출기반 확대

- BCWW : '13년 36백만 불 → '14년 46백만 불(10백만 불↑)

- BCM : '13년 29백만 불 → '14년 33백만 불(4백만 불↑)

- 수출용방송콘텐츠 재제작 : '14년 34개 업체 37개 작품 약 944백만 원 지원

○ 광고 분야 예비 인력양성을 통한 인재발굴 및 부산국제광고제 개최를 통한 광고산업 활성화

- 광고인재센터 운영으로 우수 예비인력양성 및 현장 맞춤형 프로젝트 실무교육을 통한 글로벌 창의인력양성

\* 글로벌 광고스쿨 29명 수료, 4개 광고제(뉴욕,스파익스,크리에이티브인터 내셔널,부산)10개 작품 수상

- 아시아 광고산업의 허브로서 '부산국제광고제' 개최를 통한 광고분야 글로벌 인프라 확산( '14.8월/62개국 12,591편 출품)

- '2014 광고산업 통계조사'를 통한 광고산업 관련 매출규모파악, 경제적 가치분석 등을 통한 객관적 데이터 제시( '14.11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HD드라마타운 건립 지연

- '14.12월초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 문화재

유적(조선시대 주거지 토층, 자기 파편 등)발견에 따른 문화재청의 문화재 시굴조사 추가 이행 통보로, 시굴조사 지역(34,950㎡/사업 부지 면적50%)에 대한 공사 시행 불가로 공사 실 착공 지연

\* 문화재 시굴조사 업체 선정 및 시행 : '15. 1~3월(예정)

\* 건축공사 실 착공 : '15.4.1(예정)

□ 조치 계획

○ HD드라마타운 건립

- 문화재 시굴조사 이후 공사 조속 추진('15.4월 착공, '17.3월 준공 계획)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 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당초 추진 계획의 일정에 맞추어 적기 사업 추진하였으나, HD드라마타운 건립 사업의 경우, 지표 조사 문화재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외생적 변수로 공사 착공이 다소 지연 * '14.12월 착공예정이었으나 3개월 지연 예정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방송산업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하여 미래부·방통위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책추진 ○방송분야 제작지원·해외진출 사업 시 미래부·콘텐츠진흥원·전파진흥원 및 시장참여자 간 지속적 의견수렴을 통하여 업계 수요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을 추진함 ○방송시장 및 광고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사업 추진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년도에는 의무 적용하도록 할 계획임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매우미흡	○방송영상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만족도는 목표지표 105% 달성하였음 - 다큐멘터리스쿨, 디렉터스쿨 취업을 평균 84%(14년) ○HD드라마타운 건립 사업은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 시굴조사(조선시대 문화재 발견)가 필요하다는 외생 변수 발생으로 일부 지연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시행을 통한 방송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으로 외주제작사의 창작역량 강화 및 '문화 융성'에 기여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한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기반형성 및 해외 시장 확대 ○방송영상·광고산업현장 맞춤형 예비인력을 양성을 통한 제작역량 강화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 □ 총평

- 새로운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값 안정화, 지역서점 매출 증가
  - 새도서정가제 시행 1개월 평가 결과, 신간은 전년 동기 대비 11% 인하, 초등참고서는 약 4% 인상(예년 수준)
  - 할인 축소로 온라인서점은 매출 감소(약 7%), 지역 서점은 소폭증가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7종)으로 출판사와 작가 간 출판 계약시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기틀 마련
- 출판 내수 및 수출 촉진 프로그램 시행으로 출판산업 활력 제고
  - 우수도서 보급 등 170억원 규모의 내수촉진 프로그램 시행
  - 런던도서전 주빈국 참가 등 10여개 해외 도서전 참가 지원
- 전자책 제작, 전문인력 양성, 수출지원 등 전자출판산업 성장 강화 프로그램 시행으로 미래 출판 산업에 대비

## □ 주요 성과

- 새로운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출판시장 정상화
  - (새도서정가제) 도서할인율 축소(19%→15%), 적용범위 확대(공공기관 및 학습참고서, 18개월 미만도서 제외 → 포함)
    - ※ 법률 개정(2014. 4월), 시행령 개정 시행(2014. 11. 21)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보급('14.6.12)
  -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등 7종\*
    - \* 표준계약서(7종) : 출판권 설정계약서, 단순출판 허락계약서, 독점출판 허락계약서, 배타적 발행권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해외출판계약서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출판계 인식제고
    - \* 공정위, 표준계약서 토대로 불공정 약관 시정(25개 출판사, '14.8.9)
  - 교육영상(30분) 및 홍보물(1만부) 제작·배포('14.9)

## ○ 우수출판 콘텐츠 선정·보급 등 출판 내수 진작

- 세종도서 선정 보급 사업 추진으로 국민독서 기반 마련
  - ※ 학술도서 10개 분야 336종, 교양도서 10개 분야 410종, 문학도서 5개 분야 599종 총 110만 3천권을 공공도서관 및 소외계층 지원 시설에 배포
- 우수 출판콘텐츠 140편 제작 지원(편당 출판제작지원금 700만원, 저작상금 300만원 지원)
- 청소년 대상 도서교환권 서울교육청 등 3만장 배포(1만원권)
- '청소년권장도서' 선정·홍보 등 사회 전반의 책읽는 분위기 조성
-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25개소), 서점전문인력양성 지원교육(4회)

## ○ 시장 맞춤형 한국문학 번역지원 등 출판산업 수출 기반강화

- 신규 번역지원: 총 21개 언어권 108건(샘플번역 60건, 완역번역 48건)
- 문화콘텐츠 번역지원: 총 6개 언어권 40건 지원
-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출판사 및 에이전시 대상 해외출간 섭외용 번역지원(초록번역 428건, 샘플번역 200건)
- 해외 출판관련 법제 등을 담은 '수출가이드북 심화편(중국, 동남아)' 제작
- 해외 수출전문가 파견 지원(13개 도서전에 16개 에이전시 파견 등)

## ○ 출판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정보제공, 컨설팅 등 수출인프라 강화

- 해외 출판관련 법제 등을 담은 '수출가이드북' 제작 보급
- 해외출판 정보 조사 및 제공(6개국), 해외도서전 수출전문가 파견(13개 도서전 16개 업체), 수출용 포트폴리오 제작지원(35개사)

## ○ 전략적 쌍방향 문화교류로 저작권 수출 활성화 도모

- 독일, 중국 등 해외 거점도시 및 주요 도서전 문학행사 12회
- 해외교류 기획사업 28건(현지 출간기념회, 해외문예지 발간 등)
- 아세안 문학축제 등 해외 주요 국제문학축제 작가 파견 11건
- 작가, 언론인 등 해외인사 한국 초청(7건), 독자 대상 한국문학 독후감 대회 시행(16개국 17건 대회 개최)
- 서울국제작가축제 개최(국내외 작가 28명), 해외편집자·에이전시·유통전문가 등 분야별 국제교류(5회) 강화

○ 주요 국제도서전 참가지원 등 새로운 시장 개척

- 런던도서전 주빈국 참가(4월), 독일 라이프치히(3월), 이탈리아 볼로냐(3월), 일본 동경(7월), 중국 베이징(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10월), 터키 이스탄불(11월), 멕시코 과달라하라(11월)
- 해외 한국학과 설치대학 등에 한국도서 보급(19개국 35개처 1,500여권 도서 전달)

○ 양질의 전자출판 콘텐츠 확충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우수도서·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에 대한 전자책 제작지원(1,018종)
  - ※ '12~'16년간, 총 1만종 우수 전자책 제작지원 목표
- 대한민국 전자출판 대상(작가, 전자책) 시상으로 콘텐츠 창작 활성화
  - ※ 총 24편 시상(전자책 12편, 작가 12편 / 총상금 112백만원)
- 전자책 불법복제 추적차단을 위한 '전자책 바로센터' 운영
  - ※ '13.1.7 서비스 개시, '14.12월 말 기준 회원사 610곳(출판사, 유통사 등), 불법복제추적 및 차단 3,152건, 전자출판물 등록권수 33,442건
- 전자책 제작 설비 지원, 상담, 전시, 테스트베드를 갖춘 전자출판 지원센터 운영
  - \* 일반인 전자책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작사 대상 전자책 품질검증 지원'14.12월 현재 1,982명 이용

○ 국내 전자출판 콘텐츠의 수요 확대 발판 마련

- 국제도서전(런던, 북엑스포아메리카, 북경, 프랑크푸르트) 전시 지원, 수출 전자책 번역 지원(24종) 등 우수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
- 국내 유일 산업전문 전시(디지털북페어코리아) 개최로 전자책에 대한 대국민 관심제고 도모, 업계 정보교류 및 홍보의 장 마련
  - ※ 2014.11.6.~8(3일간), 일산 킨텍스, 106개사 128개 부스 참여
- 북카페, 지역학교 및 도서관(총 7개소)에 전자책 전용단말기 및 콘텐츠를 지원하는 전자책 체험공간 조성, 이용자 확대 및 독서 접근성 향상 도모

○ 출판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 차세대 출판 산업을 능동적으로 주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 및 출판 일자리 창출 교육(5억)
  - ※ 1인 창조 출판사 창업과정(주간, 야간), 출판사 재취업 역량강화 과정 등

2개 정규 교육 과정(72명 이수), 전자책 셀프 퍼블리싱, SNS마케팅 등 이슈별 기획특강(414명 수강)

- 중소출판사 대상 청년인턴 지원
  - ※ 청년인턴 126명 선발, 실시출판사 78곳, 6개월, 1인 월80만원,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원지원

○ 파주출판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 복합공간으로 조성

- 파주출판단지의 문화 클러스터, 국제적 지식거점 조성계획 마련
  - ※ 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출판단지 활성화 포함(문체부·미래부, 13.7.4)
  - ※ 조성효과 : '13년 매출 1조5천억원, 고용 4,965명
  - ※ 산업통상자원부 시상 우수디자인 산업단지 최우수상 수상(2014)
- 출판단지를 문화창조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저자, 편집자, 방문객 등이 소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출판시설구역에 허용하도록 제도개선
  - ※ 산업용지 시설에 북카페(자사책 판매시설 + 비알콜음료업)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산업부, 국토부 공동, 2014.4월)
- 기증자도서로 구성된 '지혜의 숲'을 열린 독서 공간으로 조성(20만권)
  - ※ 지혜의 숲, 제9회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우수상(문체부장관상) 수상('14.11.5)
- 인문학 강좌인 '출판도시 인문학당' 개최(103회, 5,325명) , 파주 어린이 책 잔치(13만명), 파주북소리축제(50만명) 등 출판단지를 활용한 출판문화운동 추진

○ 인쇄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 해외전시회 한국인쇄관 조성(4회)
  - ※ 볼로냐아동도서전(3.24.~27.), 런던도서전(4.8.~10.), 모스크바도서전(9.3.~8.), 프랑크푸르트도서전(10.8.~12.)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2회) ※ 일본(7월), 미국(11월)
- 국내(오송, 코엑스 등 10개), 해외(북경, 뉴욕, 프랑크푸르트 4개) 주요 도서전에 직지 등 인쇄문화 전시 지원
- '14년 세계인쇄회의의 참가(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개최준비 활동

○ 고품질 인쇄 및 비용 절감 위한 친환경 인쇄기반 조성

- 친환경인쇄 국제 인증(FSC) 획득 지원(20개 업체)

-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친환경 경영 지도위원회 구성, 세계 친환경 동향 분석(3~11월), 친환경인쇄 국제세미나(8월)
- 청주직지축제에 친환경·디지털 인쇄관 조성 및 운영(9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황 및 문제점) ① 인쇄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주소 변경시마다 민원인이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을 찾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
- ② 인쇄사가 경영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 인쇄사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인쇄사 설립 및 산업 진흥을 저해함
- (개선방안) ① 인쇄업 경영자 주소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 ② 신고하지 않고 인쇄사 영업행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 (기대효과) 경영자 주소 변경시마다 신고해야 하는 불편 해소, 인쇄사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 조치계획

- 법률 개정 추진('15년)
  - 동 내용 포함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중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전반적인 사업 수행이 계획수립 일정에 맞춰 충실히 이행하였음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출판진흥원, 문학번역원, 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상시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하여 출판산업 진흥정책 등 충실히 이행 · 표준계약서 제정, 파주출판단지 제도개선 등 어려운 과제를 부처 및 관련기관 협업을 통해 해결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지적한 성과평가 지표 수정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충실히 반영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한국문학 및 도서 해외 번역출간(개수), 우수출판콘텐츠 생산기여율(비율) 등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 도서정가제 할인을 조정으로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출판법을 개정하는 등 출판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반 조성

## □ 총평

- 다양한 안내체계 구축 및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 편의 제고
  -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지도 등 관광안내체계 구축
  - '1330' 콜센터의 연중 24시간 운영을 통해 관광안내, 관광불편신고 접수, 통역 등 관광객 편의 제고
- '관광경찰제도' 확대운영으로 '안전한 한국관광'의 이미지 제고
  - 관광지에서의 범죄예방,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수사, 관광 불편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관광경찰' 확대운영('13.10월 서울/' 14년 7월 부산, 인천)
- 관광숙박산업 다양성 확대 및 관광숙박시설의 서비스 질적 제고
  -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시행, 관광숙박시설 등록기준 및 사업계획 승인기준 완화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기여
  -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우수 숙박시설 지정을 통한 관광인프라 경쟁력 강화 및 품질관리 강화
  - 3년 단위 호텔업 등급제도 의무화 시행 및 호텔업 등급결정기준 및 체계 개편으로 숙박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 제고

## □ 주요 성과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기준 마련(1인 8시간 40,000원)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환경 개선, 신규양성교육·보수교육 지원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질적 수준 제고
- 다양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관광기반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제공
  -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등 11개소(신설 2, 개보수 9) 지원, 전국 303개 관광안내소 대상 모니터링 및 평가('13.7~10월)
    - \* 관광안내소에 외국어(영·일·중) 기능자 배치·운영으로 관광편의 서비스 제공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및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원
    - \* 외국어표지(영·일·간체·번체 등 4개국어) 번역 및 감수지원((3,499건)

\* 관광안내표지판 1,200개, 관광안내지도 970만부

- 디지털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축 및 스마트투어가이드 이용 활성화
  - '14.12.6 기준 962,471건 다운로드(' 14년 목표 : 900,000건)
  - 유네스코 중국어(간체) 서비스 구축 및 명동남산 콘텐츠 신규 추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올리시스상 연구&기술 혁신부문 수상 '14.1.22)
- 관광안내, 관광불편신고접수, 통역 등을 제공하는 '1330' 콜센터 운영을 통해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
  - \* 한·영,일,중 4개 언어/ 34명 안내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 '14년 11월 현재 294,109건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 ('13년 11월 현재 262,895건/'13년 연간실적 279,127건)
  - \* 관광불편신고접수건수(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1,068건(내국인 166건, 외국인 902건 / 감사편지 89건 포함)
- 관광경찰 제도 확대운영을 통한 '안전한 한국관광'의 이미지 제고
  - 관광지에서의 범죄예방,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수사, 관광불편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관광경찰' 확대운영('13.10월 서울/' 14년 7월 부산, 인천)
    - \* 관광경찰 : 160명(현역경찰 111명, 의무경찰 49명)
    - \* 활동지역 : 외래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부산, 인천 지역 순찰 및 단속
  - 관광경찰과 연계한 상시 관광수용태세 점검활동 추진(지자체, 지역별 관광특구협의회, 상가연합회 등과 협조)

< 2014년 관광경찰대 활동 실적 >

합 계	단속·수사											관광 안내	불편 처리
	소계	무자격 가이드	택시 (콜밴)	무허가 숙박업	가격未표시	원산지未표시	상표법	관광 버스	외환 관리법	호객 행위	기타		
62712	2280	422	288	150	266	35	19	569	88	116	327	59411	1021

-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기간\*에 수용태세를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 및 개선 조치(집중점검, 업계 자정활동 유도 등)를 통하여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 중국춘절(1.31~2.6), 중국노동절·일본골든위크(4.27~5.6), 중국국경절(10.1~10.7) 기간 대비, 사전 2~3일 전부터 기간중 점검
    - \* 수용태세 점검대상 : 음식점, 기념품 판매, 쇼핑, 가이드, 택시, 콜밴 등
- 개별관광객 증가 등 여행트렌드 변화에 맞는 중저가숙박시설 확보
  - 모텔·여관 등 일반숙박시설을 관광형 호텔화(우수숙박시설\*) 전환

확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지정규약 개정\*\*

\* '13년 612개소 23,090실 → '14년 652개소 24,441실 /\*\*지정합격선 상향, 동일 건물 내 휴업소 입점 불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박 허용 특례 개정
-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시행('14.4.1), 관광숙박시설 등록기준 및 사업계획 승인기준 완화로 관광숙박시설 확충
  - 관광숙박시설 일반주거지역 입지 시 조경의무비율 완화(호텔업은 제외), 의료관광호텔업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기준 완화
- 관광호텔의 등급평가 의무화 시행, 국제 표준에 맞는 5성 체계, 등급별 기준 및 압행평가 방식 도입 등의 호텔 등급 평가 기준 도입하여 숙박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 제고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 조치계획

- 해당없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성과관리시행계획서상의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관계기관과 전문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지적사항 없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외래관광객의 관광안내서비스 만족도는 목표치 대비 102% 달성(목표치 79.2점 → '14.11월 80.8점) ○ 관광숙박시설 확충 객실수는 목표치 대비 103.7% 달성(목표치 11,695실→'14.12월 12,132실) * '15.3월경 최종 확인가능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안내표지 개선, 관광통역안내원 확충, 디지털스토리텔링서비스 등으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

40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 관리

다소우수

□ 총평

- 관광주간 최초시행('14년 5월, 9월 / 소비지출액 8,951억원), 내나라 여행박람회('14.2월), 한국관광의별 시상('14.7월)으로 국내관광 수요의 분산·창출 및 국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 사업 발굴
  - 관광시설·숙박·음식 등 할인, 휴가 촉진, 부처간 협업과 함께 관광주간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지역 관광주체의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창조관광 공모전 및 발굴, 중기청 고시 개정 등 창조관광기업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14.5.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4년 관광분야 102억원), 장애물 없는 관광지 평가 지표 마련, 장애인 관광정보 제공 등 취약계층 관광활성화 추진

□ 주요 성과

- 관광주간 실시(5월, 9월) 및 하계 국내관광활성화 캠페인(6.16~7.31)으로 국내관광 수요 증대 및 내수 활력 제고
  - 봄·가을 관광주간 총 이동총량 2,047만일, 소비지출액 8,951억 달성

구분	관광주간	추진 성과			
		5월 관광주간	가을 관광주간	총합	증가율
이동총량		826만일	1,221만일	2,047만일	47.8%
총지출액		4,018억원	4,933억원	8,951억원	22.8%
파급효과	생산	6,640억원	8,152억원	1조4792억원	22.8%
	부가가치	3,347억원	4,110억원	7,457억원	22.8%
	고용	5,177명	6,356명	1만 1533명	22.8%

\* 문화관광연구원 「가을 관광주간 국민여행참가실태조사」 '14.10월 (1,486명 대상)

- 관광주간 평균 여행 기간 3.1일, 1인당 1회 평균 지출액 13만 7천원으로 평상시보다 더 오래 여행하고, 더 많이 지출

\* 1인 평균 숙박 관광여행 일수 2.79일, 1회 평균 국내여행 지출액 109,751원  
(문화관광연구원, 2013 국민여행실태조사, '14.5월)

- 관광주간 혜택 경험 비율 40.7%, 혜택에 대해 83.4%가 만족 (4.4점 / 5점)

<p><b>* 봄, 가을 관광주간 실시 (5.1~11/9.25~10.5)</b></p> <p>- (목적) 하계 휴가에 집중된 국내 관광 수요의 분산·창출 및 내수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여행 제약 요인 개선</p> <p>- (참여기관) 16개 정부부처, 16개 공공기관 및 협회, 지자체, 12개 국내 기업 및 지역 숙박·교통·음식·쇼핑 업체 등</p> <p>* 한화리조트, SK 에너지네트웍스, 롯데마트·시네마, 하나은행, 하나SK 카드, 금호고속, 엔젤리너스 커피, 아웃도어 업체 콜핑, 세일 투나잇, 호텔엔조이</p> <p>- (주요 내용) △관광시설·숙박·음식·교통 등 3,500여개 할인 △생애주기별 수요층 대상 시·도 관광주간 맞춤형 가을 여행 코스 156개 지원 및 '관광주간 지역협의회'운영 △근로자 휴가문화 조성과 자율 휴업 유도 △여행 콘서트 165회</p> <p><b>* 하계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 (6. 16 ~ 7. 31)</b></p> <p>- (주제)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는 여름날 치유여행'을 주제로 경제계 등 참여, '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 전개</p> <p>- (내용) TV 광고(85회) 및 특집 프로그램 제작·방영, 여행사 대상 치유 여행 상품 홍보 지원 등</p> <p>* 하계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14.7.15)</p>
---------------------------------------------------------------------------------------------------------------------------------------------------------------------------------------------------------------------------------------------------------------------------------------------------------------------------------------------------------------------------------------------------------------------------------------------------------------------------------------------------------------------------------------------------------------------------------------------------------------------------------------------------------------------------------------------------

- 전국 지자체 참가 대규모 국내관광 박람회 '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 ('14.2.27~3.2) 및 한국관광의 별 선정을 통한 국내관광 수요 촉진
  - '내나라여행박람회' 307개 업체, 547개 부스 참여, 관람객수 108,968명 \* '13년(107,886명) 대비 1,082명 증가
  - '한국관광의 별' 4개 분야 11개 부문 시상으로 국내 관광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환기 및 우수 관광자원 발굴, 확산

2014년 시상부문		선정
관광매력물	생태관광자원	경남 창원군 우포늪
	문화관광자원	강원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	경남 통영시 케이블카
관광정보	단행본	New 내일로 기차로
관광현대시설	체험형숙박	전남 여수시 오동재
	쇼핑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체험형음식	강원 평창군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
특별부문	창조관광	전남 곡성 기차마을
	공로자	전지현
	휴가문화우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휴가문화우수기업	주성엔지니어링(주)(중소), 한화케미칼(대)

- 창조관광사업 공모전('14.2월~4월)을 통해 '14년 1,470건 90개 사업 발굴, '12년 이후 총 113개 업체 창업, 319명 고용창출
  - 정책자금 융자 계획 및 벤처확인요령 개정, 창조관광기업육성 펀드조성('15년 260억)으로 창조관광기업 단계별 지원체계 개편
  - \* 규제 개선 계획 VIP 보고('14.2.3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관련 고시 개정 ('14.10.1 시행)

<p><b>&lt; 중기청 고시 개정 성과 &gt;</b></p> <p>◆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 중 <b>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해제</b> : 18개 기업 수혜 가능 (공고 계획 1. 27 시행)</p> <p>◆ 벤처 확인 제한 업종 중 <b>기타 관광숙박시설업 (55119) 해제</b> : 1개 기업 수혜 가능 (벤처기업 확인 요령 '14.10.1 시행)</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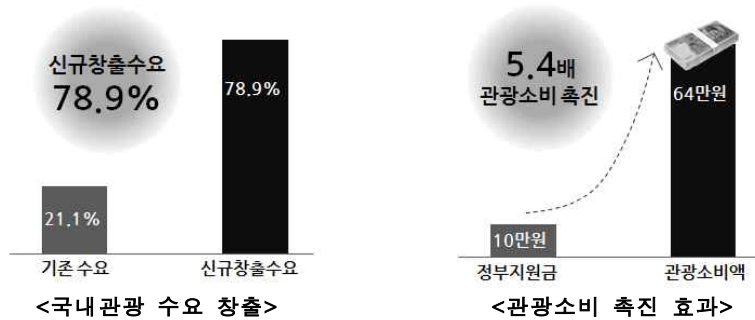
- 관광취약계층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 여행이용권의 정의 및 통합 운영 관리 등 관광진흥법 개정 및 시행
  -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1가구당 10만원) 지원, \*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평가지표 개발
  - \* 발급매수 671,318매, 수혜자수 993,316명
  - \*\* '15년 열린 관광지 공모(5개소 대상/ 2억원 이내 시설 개보수 및 홍보 지원)
  - 관광지 접근성 정보 관련 '함께 하는 여행' 홈페이지 콘텐츠



신규 개발, 장애인을 위한 ‘함께하는 여행’ 실시

\* 관광주간 모두를 배려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가족여행(‘14.4.18~20)실시

- 생애초기 여가력 개발을 통해 장단기 국내관광 수요를 확대하고자 청소년 대상 맞춤형 체험여행(32개교, 5,369명) 운영, 도서산간지역 및 소외계층 청소년 체험 여행(89개교 5,339명) 지원
  - 교육부의 수학여행 재개방침에 의거,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산업과 인문학을 탐구하는 수학여행” 실시(경기관광고 118명, ‘14.9.15~17)
- 근로자휴가지원(총 180개사, 2,526명 참여)으로 국내관광 수요 및 소비 창출,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제고
  - 국내관광에 참여한 비중은 78.9%, 근로자 1인당 관광소비 규모 643,935원, 정부지원금 이외에 5.4배의 국내관광 소비 창출, 총 13 억원 규모의 관광소비 창출
  - 참여 근로자의 평균 국내여행 참여일수는 2.7일, 참여 근로자의 만족도는 4.26



- 국내여행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통하여 매월 “이달의 추천 가볼 만한 곳”을 선정·홍보
  - 여행작가 등을 활용하여 매월 잘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관광소재 발굴 및 연계 코스 홍보

- 여행상품 활용 제고 및 여행사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행사 대상 공모를 통한 추천내나라여행상품 선정 및 전국 홍보

-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 강화, 관광 POI 구축 및 관광객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로 맞춤형 관광 서비스 환경 마련
  - 관광정보 웹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국내 여행 정보 제공
  - 관광분야 관심지점 정보(POI)\* 30만건 개발(국토부 협업)로 범국가적 투자관리비용 절감 및 외래관광객 길찾기 지원
- \* 국가기본도의 정보(지명, 지형·지물 등)와 정부에서 구축된 각종 공공정보를 추가 수집·정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쉬운 형태(명칭+위차+분류체계+속성)로 가공한 위치 정보
- 서민 및 관광객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333개) 설치로 스마트관광 이용 환경 개선(미래부 협업)
  - \*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5개 시장 중심
  - 디지털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축 및 스마트투어가이드 이용 활성화
- \* ‘14.12.6 기준 962,471건 다운로드(‘14년 목표 : 900,000건)
- \* 유네스코 중국어(간체) 서비스 구축 및 명동남산 콘텐츠 신규 추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올리시스상 연구&기술 혁신부문 수상(‘14.1.22)
-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및 컨설팅 실시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질적 수준 상향화
  - 정선군, 고창군 등 총 10개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컨설팅 실시
  - ‘10~‘13년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실행 사업 공모, 총 4개 지자체 선정 및 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청소년 관광활성화 사업이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부 수학여행 잠정 중단 조치에 따라 운영 중단

□ 조치계획

- 교육부의 수학여행 재개방침에 의거,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기획('14.7월)
- “산업과 인문학을 탐구하는 수학여행” 시범사업 실시(경관광고 118명 '14. 9.15 ~ 17)
  - 산업시설 탐방·역사유적지 답사(부산, 통영), 사전 안전교육, 은퇴 119요원 동행, SNS 알림서비스 활용 등 안전관리 강화
-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실시('14. 10~11월/3회)
- 청소년을 위한 우수 수학여행 추천코스 개발 및 가이드북 제작·배포('15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추진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정상추진 되었음 · (관광주간) 사업 추진 계획대로(5월, 9월) 시행되었고, 사전 의견 수렴 절차(시도관광국장회의 4월, 8월 등)를 통해 추진하였기에 충실로 평가하였음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관광주간 및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시 안행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16개 부처와 교통·숙박·유통·금융 등 12개 민간기업, 전경련 등 경제유관단체와 협력하여 관광의 외연 확대에 노력하였음 · 복지관광 사업 추진시에는 장애인단체 및 보건복지부 등과 원활히 협력하였고, 계기별 국내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음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국민 국내관광 참여일수 및 소비지출액 증대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수요지향적 관광소재 개발, 취약계층 관광활동 참여 지원 등 정책 개선점을 적극 반영·운영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하였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광고 접촉 후 국내여행에 대한 태도 변화 목표(86.9) 보다 다소 미흡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관광주간이 '14년 첫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3년 수치 및 목표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봄·가을 관광주간 총 이동총량 2,047만일, 소비지출액 8,951억 달성 및 관광주간 평균 여행 기간 3.1일, 1인당 1회 평균 지출액 13만 7천원으로 평상시보다 더 오래 여행하고, 더 많이 지출함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국내관광 활성화 광고, 다양한 캠페인, 여행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창조관광 공모전 및 발굴, 중기청 고시 개정 등 창조관광기업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회 취약계층에게 관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및 관광복지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 총 평

## ○ 주민참여형 관광개발 모델 “관광두레” 모델 도입

- 지역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 주민이 협력적으로 관광경영공동체를 창업·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관광의 효과가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시범사업 및 2기 사업 총 25개 지역에서 139개 주민 공동체 조직 발굴, 1,442명 참여

## ○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마련

-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 진단 및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개발사업의 성공적 시행 지원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총 86개 내역사업 기획 평가·진단 실시
- 관광개발 사업계획 및 추진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관광자원개발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 외부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포럼 운영으로 핵심 신규 사업 발굴 등

## □ 주요성과

## 【관광두레】

기존의 관 주도·인프라 조성 위주에서 주민주도 프로그램 위주로 관광개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관광의 효과가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주민공동체 조직 발굴·육성 추진

- 2013년 5개지역 시범사업(29개 조직발굴, 주민 331명 참여)/ 2014년 20개지역 본격추진(110개 조직발굴, 주민 1,111명 참여)
- 관광두레 시범지역(2013년, 5개지역) 육성조직 유망사례 발굴
  - <양평 카누레저>
    - 14. 6월 시범 운영, 양평펜션협동조합한화리조트 등을 통한 모객 실시
    - 7~10월 체험객 2,484명, 매출액 2,310만 원(월 평균 620명, 580만 원)

## &lt;청송 덕다헌&gt;

- 14. 5월 시범 운영, 고객 맞춤형 음식 메뉴 선정 및 판매
- 5~10월 방문객 2,650명, 매출액 3,062만 원(월 평균, 441명, 510만 원)





## &lt;제천 공전자연학교&gt;

- 14. 6월 시범 운영, 지역리조트(리솜, ES 등) 고객 대상 홍보
- 7~10월 방문객 4,614명, 매출액 7,800만원(월 평균 1,153명, 1,950만 원)

## ○ 관광두레 대국민 인식 제고 홍보 추진

- 방송 14회, 언론 441회(14.1~11월 기준) : KBS 6시 내고향, 굿모닝 대한민국, VJ 특공대, SBS 모닝와이드 등 14회 방송 및 중앙·지방 일간지 440회 언론 보도
- 기자 팸투어, 블로거 방문, 방송프로그램 촬영, 리플렛 제작 등 46회의 홍보마케팅 지원
- 관광두레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및 SNS(카카오토티, 페이스북)운영

## &lt;사례 : 관광두레 육성조직&gt;

명칭	내 용	
제천 공전자연학교	○제천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자작문화예술협동조합에서 공전자연학교 운영 - 효소전문가가 효소체험, 효소밥상 제공, 도자기 쿠키 작가와 함께 쿠키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	
제천 교동민화마을	○마을에 살고 있는 민화작가, 지역 문화예술작가, 마을 주민(가훈쓰는 할아버지, 음식만드는 할머니 등), 민화마을 향교관계자 등 참여하여, 민화기념품 판매, 체험 상품 등 운영	
여수 수레인보우	○관광두레를 통해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활성화 도모 - 다문화레스토랑 리틀아시아(일본,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음식) 운영, 여수 로컬푸드를 활용한 다국적 간편 먹거리 개발 및 판매	
순천 청년창업 집단 수토리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정착기회 제공 - 사진작가, 화가 등 20여명으로 구성 상주직원 외에 서포터즈 운영 - 인근 게스트하우스와 연계한 원도심 야간투어프로그램, 순천역 광장에서 '내일로 축제' 시범운영 등	

**【기획평가】**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05년 1,941억 원 → '15년 4,851억 원), **중복과잉 투자, 사업성 결여 등 문제가 지적되는바, 추진 단계별 사업 진단 및 평가, 컨설팅 등을 통해 개발사업의 성공적 시행 지원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지역계정 : 15년 예산요구사업, 14년 신규사업, 진행사업, 심층컨설팅 등 총 80개 사업 평가진단
  - 2015년 예산요구사업 60개 사업 중 11개 사업 부적합 의견 제시 하여, 8개(73%)사업에 대해 기재부 예산 미반영
    - \*예산 반영 3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사전적합성조사 추진 예정
  - 사전적합성조사 결과 부적합 사업 2건(청양, 무안)에 대해서는 심층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 양 지자체 모두 컨설팅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하여 추진 중
- 광역계정 및 기금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및 기금사업 6개 대상 집행평가
  -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집행평가 지표 개선 활용, 평가결과는 해당 지자체로 발송하여 사업 개선 방향 제안
- (기타) 찾아가는 지역관광개발 워크숍 개최(11월, 3개 권역)
  - 2014년 지역관지역관광개발 평가 결과 공유를 통한 바람직한 관광 개발 인식 확대, 사업담당자의 추진역량 제고 및 성공노하우 공유

< 2014년 평가 대상 기획평가 현황 >

구 분	예산요구사업		신규 사업	기존 사업	심층 컨설팅	계
	서면	현장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8	3	5	0	0	16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34	12	8	3	2	59
광역권	서해안권	1	2	1	0	4
	지리산권	0	0	1	0	1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0	0	0	3	3
기금 사업	0	0	0	3	0	3
총 사업 수	60		15	9	2	86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포럼 운영】**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 개발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핵심정책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포럼'을 구성(15.3월 / 문화·관광·예술 등 각계 전문가 28명 위촉), 총13번의 포럼 및 2차례 공개세미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8대 핵심 전략, 16개 전략사업 발굴

정책 목표	추진전략	전략사업
문화 융성 선도	지역자신의 창조적 관광가치 창출	· 지속가능한 스포츠이벤트 유산 관광자원화 · 지역문화자원을 연계한 문화예술관광 상품화 · 콘텐츠 융합형 관광지 업사이클링 · 외래관광객 지방분산을 위한 핵심 관광명소 육성
	문화재생형 신(新)관광공간 창조	
국민 행복 실현	수요 만족형 관광 서비스 강화	· 맞춤형 스마트관광 서비스 구축 (가칭, 스마트 관광도슨트 서비스 개발) · 한국형 관광통합이용권 활성화
	수요 맞춤형 관광 인프라 조성	· 지방관광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교통체계 연계 · 연계 협력형 관광클러스터 조성 (가칭, 테마패키지관광, 관광클러스터 등)
창조 경제 구현	지역주도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지역관광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구축 (가칭, 지역관광파트너센터 설립) · 지역밀착형 창조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가칭, 지역관광 서비스 아카데미 개설)
	성장 촉진형 관광사업 모델 확산	· 주민참여형 지역특화 관광사업 역량 강화 · 지역관광 창업 및 창작 플랫폼 조성
지역 발전 견인	지속가능한 관광 성장동력 구현	· 지역 간 공동 관광 브랜드 구축 (가칭, 공동관광마케팅위원회 육성) · 부처 간 통합적 협력 체계 구축 (가칭, 확대관광특별위원회 설치) · 관광자원개발사업 재정체계 개선 · 통합적 관광품질관리 제도(KT-QUAL) 도입
	효율 강화형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지역 관광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축적부재 등으로 중복과다투자, 경쟁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으로 관광자원의 통합적인 정보 체계화가 시급

- 1차 시스템 개발 및 시연 워크숍 완료('14.12.23)
- 관광자원개발사업 DB기반 구축, 사업정보조회, 통계 및 지리정보

### 시스템(GIS) 기반 구축 등 추진

\*국고지원사업 정보조회서비스 구축(공정 60%), 관광자원개발사업 통계서비스 구축(공정 50%),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서비스 구축(공정 60%), 관광자원개발사업 DB 구축(공정 45%)

△사업기간 : '14~'16(1차년도 '14. 2월 ~ '15. 3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총사업비 : 20억원('14년 8.9억원, '15년 8.9억원, '16년 2.2억원)

서비스 방향	2014년 실적	2015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자원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DB기반 구축</li> <li>■ 사업 정보조회, 통계, 공간정보서비스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자원개발사업 신규DB 및 3D 공간정보 연계 구현</li> <li>■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기반 구축</li> </ul>

사업 내용	국고지원 사업정보조회 서비스(공정률 60%)	국가 보조금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개발사업 조회</li> <li>- 관광개발사업 세부정보 조회</li> <li>- 관광개발사업 입력</li> <li>- 사업 담당자 입력/조회</li> <li>- 연도별, 기반별, 광역별 재정집행 통계현황</li> <li>- 지역별 시설 통계현황 조회</li> <li>- 세부 변경 시설 통계현황 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기반구축</li> <li>- 계획, 집행, 관리운영단계별로 구분,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관리 기능</li> <li>-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관리기능</li> <li>- 평가 일정 및 계획 관리 기능</li> <li>- 정량적, 정성적 평가결과 관리 기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자원개발사업 통계서비스(공정률 50%)</li> <li>-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광역권 관광 개발 사업 등 통계정보 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자원개발사업 통계서비스</li> <li>- 연도별, 기반별, 광역별 재정집행통계 보완</li> <li>- 입체적 시설현황 통계 신규 DB(부가정보)입력</li> <li>- 세부 변경 시설 등 통계 시스템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정보서비스(공정률 60%)</li> <li>- 3D 공간분석연계, 입체적 지리정보분석</li> <li>- 시범 3D분석 API 매쉬업 형태 제공</li> <li>- 기 구축 유관기관 자료 협조체계 구축</li> <li>- 국토부, 산림청 자료 협의 및 구축 완료</li> <li>- 문화재청, 산림청 공문협의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자원개발사업 공간정보서비스</li> <li>- 3D 공간분석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및 사업기획자 스케치업 제공</li> <li>- 세부속성 정보 연계한 입체적, 다각적인 공간분석 기능(반경시선 등)</li> <li>- 기구축 유관기관 관련 속성정보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숍, 자문위, 시스템 교육(공정률 40%)</li> <li>- 업무요구도 수립 워크숍 1회 개최</li> <li>- 전문가 자문위 3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숍, 자문위, 시스템 교육</li> <li>- 공공분야(문화부, 지자체) 시스템 교육</li> <li>- 전문가 자문위 2회 개최(4차,5차)</li> <li>- 민간분야(사업담당자) 이용교육</li> </ul>	

DB 구축	관광개발사업 DB구축(공정률 45%)	관광개발사업 신규 DB 및 세부속성DB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DB(2011~2013)구축(1,387개 DB구축)</li> <li>- 광역발전계정(504개),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입력완료(24개), 지역발전계정 원문자료 요청(859개)</li> <li>- 시범서비스 기구축 DB(1999~2010) 보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정보서비스 DB(세부속성자료)구축</li> <li>- 사업 유형별 부가 세부속성DB(3D연계) 구축</li> <li>- 기타사업(타투어 등) 및 신규 DB 갱신</li> </ul>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관광두레) 관광두레 사업의 동태적 특성과 사업대상 지역의 증가에 따른 관광두레PD와 육성조직의 증가 등을 감안, 관광두레 사업 단계별(연차별 사업수행 등) 성과 관리 기준(틀)을 수립 필요
- (기획평가) 평가 대상 선정과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제도 필요
  - 기획평가 대상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정되도록 시스템 구축, 일정기준 이상 사업에 대한 의무적 평가 이행 및 평가결과 반영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DB구축 및 시스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진흥법, 관광자원개발 보조금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신뢰도 있는 데이터 획득 절차 체계화 및 평가의견의 사업 반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병행 연구 필요

□ 조치계획

- (관광두레)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14.12) 및 평가(15.1월)
- (기획평가)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획평가 입법화 지원
  - 지역관광개발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조문, 평가담당기관, 세부 실행방안 등 근거마련
-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시스템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시( '15.1) 통합정보화시스템 DB구축 관련 사업관련 제출 양식,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근거조문 마련 병행 연구 방안 수립 ( '15.3~' 15.12.)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당초 계획을 충실히 이행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문체부·문광연·관광공사 사업공유를 위한 매월 협의, 관광두레PD 지역주민 워크숍 등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 1~5차 기획평가위원회 개최.심의를 통해 추진 · 13회의 전체포럼회의 및 분과회의와 2회의 공개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관광두레 조성사업지역 지속적 확대추진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포럼 정책과제는 향후 예산사업으로 반영 검토 추진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14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 관광두레 기업창출 100개→110개 기업 * 기획평가 40개→83개 * 지속가능 관광개발 정책과제수 10개발굴→16개 발굴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지속가능한 과제발굴과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사업 콘텐츠 발굴 등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총평

- 한국적 특색에 맞는 생태녹색관광 육성과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관광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
  - 녹색관광기본계획( '10.4월) 및 생태관광활성화 추진계획( '14.7월, 국무회의 보고)을 토대로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생태관광인증제 시행 등 생태기반 지역관광 자원을 발굴·지원하여 **생태·녹색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노후화된 관광시설, 관광환경 및 관광기능을 개량·개선·회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일자리 창출 도모(문화콘텐츠 중심으로 융합기능 강화)
  - 지역주민이 주체적·자발적·협력적으로 관광사업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관광경영체 형성(주민주도형 관광 경영 공동체, 슬로시티 주민협의체, 관광두레 등)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최근, 자연 및 생태관광 등 느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개발, 운영**을 통해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이를 통한 생태관광 저변 확대('14년에는 신규 녹색관광자원 18건 발굴·지원, 목표 120% 초과 달성)
  - 야생화·식물원·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및 지원 기반 마련을 통해 문화적 가치의 국내외 확산(문화생태탐방로 연계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전국 유명 야생화 군락지 팸투어, 야생화 홍보동영상 제작)
  - 슬로시티 지역의 고유 향토자원(자연자원, 전통음식, 전통 전승문화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 생태관광 전문가 육성을 위한 찾아가는 생태관광 아카데미 운영

## □ 주요 성과

- 생태기반의 새로운 아이템의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하여 생태관광의 다양성 및 새로운 패러다임 추구

## ① 문화생태탐방로 연계,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 시범 사업지 4곳 선정, 국비지원(660백만원) 및 컨설팅(강릉 대관령너머길, 정선 동강길, 홍성 홍주성 천년여행길, 충주 중원문화길)
- 야생화 공원(단지) 조성, 프로그램 운영, 해설사 양성 및 스토리텔링 개발, 축제 개최 등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야생화를 식재, 지역 특화 관광자원으로 육성

## ② 야생화 군락지 홍보영상콘텐츠 발굴·제작

- 지속가능한 관광소재로서의 야생화 관광 인지도 및 참여도 제고 국내 우수 야생화 군락지 명소화를 추진하여 야생화 관광지 관광 활성화(전국 정책 광고판, 오프라인 홍보)



## ③ 전국 유명 야생화 군락지 및 우수 생태관광지 팸투어

- 여행사 상품개발 담당자 및 관광기자 대상 유명 야생화 군락지 및 우수 생태관광지 팸투어를 실시하여 생태관광 상품 신규 개발 및 야생화 등 생태관광지 관광활성화
-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시설로서 본연의 기능이 쇠퇴한 지역의 관광기능과 역할 재생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관광일자리 창출 도모
- 생태관광인증제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으로 건전한 생태관광 도모
  - 생태관광 신규 인증(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관광객 이용시설), 생태관광 인증 모니터링, 홍보(인증 마크 제작), 국제협력 등

○ **슬로시티 지역의 고유 향토자원**(자연자원, 전통음식, 전통 전승문화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농악, 사물놀이, 탈춤 등 마을별 전통문화, 생산 농산물로 음식 만들기(달팽이식당), 딸기·포도따기, 고구마캐기 등 농업체험, 새끼꼬기, 도리깨질 등 놀이(공예)문화 체험

\* 10개 슬로시티 지역, '14년 총 방문자수 9,350천명

**○ 슬로시티 관광상품 고급화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12.3, 국회)**

- 주최/후원 : 한선교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 슬로시티 관광자원 활성화 및 고급화 방안 토론
- 참석 : 장관, 국회의부장, 슬로시티 협의체, 지역대표 등 300여명

○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지의 고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태학습장 조성·운영, 걷기프로그램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태해설사 등 전문 해설사 교육 등 육성

○ 생태관광 정책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태관광정책협의회” 운영 및 부처 확대**(교육부, 농식품부, 산림청, 해수부)

\* 문체부-환경부 협업과제 발굴('14.1.6), 생태관광정책협의회간사회의('14.1.13, 2.26), 생태관광정책협의회('14.9.2)

○ 습지, DMZ 등 우리 고유의 **생태자원, 한국형 슬로시티·야생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개발 모델 도입**

- 야생화 관련사업(5건, 660백만원) 추진으로 야생화 관광지 명소화  
-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 양구 DMZ 통일관, 원주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 조성, 김제 벚골제 관광지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8건, 2,960백만원)

-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신규사업 발굴·추진(8건, 8,742백만원)

○ 소득과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레저 융합형·저탄소 관광문화 확산

- 주5일제와 여가문화 확산으로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추구하는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과 스포츠 활동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저변 확대

\* 복합레저관광열차(3,684명), 카누·카약 등 수상레저 체험(27,030명), 승마체험(1,500명) 등

○ 지역의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 자원을 탐방로와 연계시켜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 관광객 증대 및 걷기여행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걷기여행길 종합안내포털 서비스('14.1월~), 통합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14. 12월), 탐방로 정비·관리 등 27건, 걷기여행기 활성화 탐방로 스토리텔링 8건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생태관광 모델사업) 기존 관 주도의 인프라 조성에 치중하거나 사업비 지원 관행으로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개발 사업의 이해 부족 및 참여도 미흡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슬로시티 지역별 고유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부족으로 관광목적지로서의 다양한 자원 활용 전략 부재

**□ 조치계획**

○ (생태관광 모델사업) 현 10개 지역 일률지원방식에서 공모사업으로 부분전환,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발굴

⇒ 2-Track 사업 추진 : 10대 모델 사업 및 에코투어 인큐베이터 사업

⇒ 사업지별 차등 지원방식 도입, 부진사업은 특화사업으로 대체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사업지별 예산 차등 지원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방식 질적 제고

⇒ **(농림부)** 슬로시티 지역별 친환경(유기농) 특화 농산물 보급

\* 특산물 예) 영월(포도), 남양주(딸기), 담양(엿, 한파), 상주(꽃감) 등

**(교육부)** 지역별 특화 농사체험 프로그램 확산

- 학교 현장학습 시간을 체험프로그램 참가로 인정

**(산자부)** 지역별 전통방식 공예품 판매 지원

○ 지역별 고유의 야생화를 활용한 야생화 단지 조성, 웰빙·힐링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야생화 약초를 활용한 건강음식 개발, 관광·조리·시식 체험프로그램 운영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추진계획상 추진실적 대체적으로 준수하였으나 1개 과제 지연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관계 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생태관광 정책협의회, 걷는 길 관계부처 협의회, 관광레저기반구축 협의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TF 등), 사업별 컨설팅단 운영, 수시 자문회의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관계기관과 상시 연계, 주변환경 및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성과지표 '관광자원 개발 관련 예산 집행행렬'에서 '예산 집행행렬'을 '사업 진척률'로 수정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녹색관광 프로그램 만족도 : 목표치 72점에 대해 76점 달성, 105% 초과 달성 · 신규 녹색관광 자원 발굴지원 건수 : 목표치 15건에 대해 18건 달성, 120% 달성 · 관광자원개발 관련 사업 진척률 : 목표치 45%에 대해 45% 달성, 100%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 생태관광자원을 발굴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야생화 관광자원화 등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관광(단)지의 질적수준 제고 및 고품질 관광기반 마련 등의 당초 기대효과 및 상위목표(지속가능한 지역관광활성화) 달성 미흡

43

역사· 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

보통

□ 총평

- 고궁, 템플스테이, 전통한옥 등 우리 고유의 역사가 살아있는 전통문화와 문화관광 축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 제공
- 전통국악공연 해외홍보사업 확대 및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양적 성장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인천공항 외국인 전통문화체험 참가자 수 전년대비 8.5% 증가 ('13년 266,297명 → '14년 288,846명)
- 2014년 상반기 세월호 사고 이후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단체 방문예약 취소, 문화관광 축제 개최일정 축소 등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정책수정을 통해 당초 성과목표 대체로 달성
  -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185천명 성과목표 100% 달성
  -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사회적 추모 분위기 및 행사규모의 축소 등으로 인해 전체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41.2% 감소했으며(29백만명 → 17백만명), 관람객 만족도는 현재 집계 중임('15.2월경 확정)
- 템플스테이 전용시설 구축, 한옥스테이 인증제를 통해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우수 대체숙박시설 확충에 기여
  - 템플스테이 전용·특화프로그램 시설 신축·개보수 지원 확대 ('12~'13년 24개소 → '13~'14년 33개소)
  - 전국 339개 우수한옥숙박시설 인증제를 통해 2,115객실 확보
-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의 문화관광 자원화 및 관광상품으로 특화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문화관광축제 40개 축제 지원(대표 2개, 최우수 8개, 우수 10개, 유망 20개)

- 2014년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100%)하였으며, 고궁, 템플스테이, 전통한옥, 문화관광 축제관련 유관기관과의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 □ 주요 성과

- 한국의 전통국악공연예술인 '미소(춘향전, 배비장전)'의 지속적인 해외홍보 및 해외공연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공연관람률 증가(전년대비 3.7% 증가) 및 재방문 유도에 기여

※ 명동정동극장 <미소> 상설공연 외국인 관람객 수

연도	외국인 단체(여행사)	외국인 개별(FIT)	외국인 제휴	합계
2014년	69,490명	10,800명	7,000명	87,290명
2013년	69,857명	8,293명	6,034명	84,184명

- 전통국악공연 '미소(배비장전)' 해외공연('14.6.8~16/중국 복주, 상해)
- 방한 외국인 및 주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집중홍보를 위한 광고('14.8~9월)
-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련, 순례인증상품 신규개발 및 홍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 홍보
  - 남한산성 활용 세계문화유산 순례인증 캠페인 확대('14.6월) 등 판촉활동 전개
- ※ 2014년 상반기 외래관광객 모객 수 : 단체 6,298명, 개별 976명
-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기여
  - 외국 국민 방문 코스 정례화, 전통문화 브랜드화(문화센터, 국악공연),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공예전시, 문화체험), 공항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신규행사 추가 개발(K-Music, 태평성대)
  - 외국인들을 위한 명절행사 실시, 언론 노출\*을 통한 홍보 극대화
- ※ 설날 명절행사('14.1.31/인천공항 전통문화센터, 한국문화거리) : 국악 실내악공연, 한과 및 떡 나누기, 차례상 전시 등 / 5,950명 참여
- \* '14.2.3. 매일경제(설 연휴 인천공항 찾은 외국인, 전통문화체험에 반하다), 한국일보(인천공항 설 연휴기간 전통문화행사에 1만명 관람) 등

-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 재발견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전국 110개 사찰 운영)
  - 브랜드 운영 템플스테이 사찰 전용 및 일반 사찰용 체험권 개발·보급(5,000매)하여 템플스테이 참가 적극 유도
  - 서울시민 2,500명 대상 '템플스테이 Week'\* 추진('14.12.1~7)
    - \* 서울 템플스테이 운영 9개 사찰에서 당일 또는 1박2일 템플스테이 무료 체험
    - ※ 'KBS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송일국과 세쌍둥이 체험 참가
  - 세월호 유가족, 안산시 소재 중고생 및 교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세월호 사고 치유를 위한 템플스테이' 추진('14.7~12월)
-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홍보·마케팅 전개
  - MICE 연계 '사찰음식 홍보' 행사\*를 통해 한식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음식관광 활성화에도 기여
    - \* 사찰음식 전시관 운영('14.6.19~20/KINTEX), 해외 바이어 및 외신기자 대상 사찰음식 팸투어('14.6.21/진관사), 해외 MICE 연계 사찰음식 홍보('14.11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 '14.7.3. MBC TV뉴스/백악관 셰프 한국음식 사랑 '사찰음식' 배우러 방문
  - 사찰음식 특화사찰(11개소)\*에 대하여 일반인 대상 강좌 및 체험 행사비 지원(1개소당 2억원 이내, '14.9~12월), 외국인 대상 MICE 연계 사찰음식 체험형 상품 시범 운영(진관사·봉은사, '14.6~12월)
    - \* 서울 2개소(법통사, 진관사), 대전 1개소(영선사), 경기 2개소(봉녕사, 수도사), 경북 2개소(고운사, 불영사), 경남 3개소(금수암, 대원사, 통도사), 전남 1개소(백양사)
- 템플스테이 전용 및 특화프로그램 시설 신축·개보수를 통해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대체숙박시설 확충에 기여('12~'13년 24개소 → '13~'14년 33개소)
- 2014년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전년도 목표치 대비 3% 증가한 185천명으로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으며, 한국전통불교문화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큼
- '한옥스테이 인증제' 및 '명품고택 브랜드화'를 통해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우수 대체숙박시설 확충에 기여
  - 전국 339개\* 우수한옥숙박시설 인증제를 통해 2,115객실 확보

※ 한옥스테이 및 명품고택 상표권 등록, 인증현판 제작배포, BI활용 홍보물품 제작

- 전통한옥을 관광숙박 체험시설로 활용, 한국 고유의 대표적 생활 문화체험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령상 '한옥 체험업'으로 지정된 한옥을 대상으로 공모 추진('14년 3차 공모)
  -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 개보수, 10개시도 54개 한옥 16억원 지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 11개시도 35개 한옥 6억원 지원
- 축제는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관광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이미지 개선, 국민의 여가기회 제공 등에 기여
  - 또한, 축제는 복합서비스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벤트산업, 전시산업, 물품대여산업, 무대음향연출산업, 지역특산물산업, 지역향토음식산업 등에서 전문적 일자리 창출 효과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인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 관련 우수사업 선정 및 심사과정 내실화 필요
  - 한옥소유자의 사업지연, 사업포기 등으로 재정누수 발생 우려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가시적 성과 미비
- 템플스테이 사업관련 범종단 차원의 템플스테이 사업 참여 유도를 통한 국내외 대표 전통문화체험관광 상품으로의 육성 필요
  - 템플스테이는 불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조계종 사찰 점유율이 높아 타 종단 사찰에 대한 참여정책 수립 필요
- 지역 간 축제의 연계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및 낭비적 요소 제거 필요
  - 다만,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편성 및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

□ 조치계획

- 한옥소유자의 사업지연, 사업포기 등으로 재정누수 발생 우려

- 지자체의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자격검증 강화
  -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정산 및 사후관리에 문제있는 사업자 제외
  - 2014년 이전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사업지연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 2015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공모사업 지원계획 통보('14.12.18)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가시적 성과 미비
  - 한옥체험업 운영자(개별 한옥) 이외 사회적 기업 및 문화·예술 기관이 한옥체험업 밀집 지역 및 마을 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도 지원
  - 한옥체험업 활성화 및 다양한 양질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참여 기회 제공
- 범종단 차원의 템플스테이 사업 참여 유도 필요
  - 템플스테이 제도개선 범종단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14.7~10월/5회)
  -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한 범종단 동반 성장방안 연구용역 실시('14.10월~'15.1월)
- 지역축제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 간 축제의 연계 및 상호 협력 유도
  - 지자체 축제 담당자 워크숍('15.2월) 등을 통해 지자체간 협력 유도
    - \* 전국 지역축제 실태조사('14.12~'15.11월, 문화관광연구원)를 통해 각 지자체의 정체성에 맞는 특성화된 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15.12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작성)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계획서상의 추진계획을 100% 충실히 이행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전통한옥, 문화관광 축제 사업 지자체 담당자와의 수시 업무협약 및 워크숍 개최('14.2월)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정 점검 및 업무 애로사항 공유 등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세월호 사고 이후 축제기간 및 프로그램 조정 등 국내 관광객유에 신속하게 대응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명동정동극장, 한국문화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역사전통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

			<p>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홍보를 위해 관련기관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p>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p>○ '14년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14.5.22)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음</p> <p>- 지적사항 : 당초 지표(문화관광축제당 평균 관람객 수)가 측정의 신뢰도 문제도 지적되는 상황이므로, 이제 질적인 측면인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p> <p>- 개선사항 :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표를 '문화관광축제 만족도'로 변경</p>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p>○ 세월호 사고 이후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단체 방문예약 취소, 문화관광 축제 개최일정 축소 등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전년대비 3% 증가한 185천명</p> <p>○ 문화관광축제 만족도 : 집계 중('15.2월 확정)</p>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p>○ 템플스테이 체험사업을 통해 불교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 관광부가가치 창출</p> <p>- 템플스테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중 직접효과는 약 277억원, 간접효과는 약 1,280억원으로 추정</p> <p>○ 문화관광 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06백억원으로 추정</p> <p>○ 명품고택 브랜드화, 우수한옥인증제, 고품격 고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명품 관광한국 실현에 기여</p>

44

전략적 해외홍보 마케팅 실현

부진

□ 총 평

- 세월호 참사, 엔화 약세 등 관광산업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 1,400만명 유치 달성( '14.12.29), 국적별로 중국(612만 명), 일본(약 230만 명), 미국(약 77만 명) 순으로 전년대비 16% 증가
- 중국·일본 등 주요시장에 대한 전략적 지원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 유치 마케팅에도 주력하여 홍콩(약 55만 명, +38.4%), 태국(약 47만 명, +25.3%), 중동(약 10만 명, +23.5%), 러시아(약 21만 명, +22.2%) 등이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중국 <여유법> 시행 직후 28% 가까이 상승한 패키지 상품 가격이 빠르게 시행 이전 수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회귀하는 등 상품가격, 지상비, 쇼핑·옵션 횡수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위기 환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적절한 대책마련을 통해 방한 중국관광객 600만 돌파 달성(전년동기 대비 증가)
- (중국) 한중관광 품질향상 협력발전 심포지엄 개최, 중국 전담 여행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명의대여 4개 업체 지정취소),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대상지역(양양, 청주, 무안, 대구 공항) 및 시간(72시간→120시간) 확대
- 한중 정상 간 “2015-2016 한중 관광의해” 지정 합의(7.3. 정상 공동성명 발표), 제9회 한중 관광실무협의회(국장급, 5월/한국 서울), 제29차 한일 관광진흥협의회(12월/일본 동경), 한일관광교류 확대 심포지움 개최(8월/한국, 12월/일본), 제9회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및 한중일 정부 간 실무급 교류(과장급, 7월/한국 광주) 등 양자·삼자 정부 간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개최하는 등 한중일 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증진의 계기 마련
- 쇼핑관광, 한국드라마 인기에 의한 한국여행 선호도 상승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612만명('13년 대비 41%성장) 및 일본인 관광객 229만명 유치로 전체 외래관광객 1,400만 돌파 달성(14,195천명,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

- 한류관광, 스키관광, 의료관광 등을 국가별, 수요자별 특징에 따라 마케팅하고, 신규 한국관광 브랜드 개발 및 급성장하는 중국시장 집중 공략 등 전략적 정책 추진을 통해 외래관광객 1,400백만 유치에 기여함
- MICE, 크루즈,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함
-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내 주도적 위상을 제고하여 관광외교역량 강화 및 선진 관광 한국의 위상 제고

## □ 주요 성과

-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강화를 통한 저가관광 및 수용태세 개선
  - 한국여행업협회 내 중국전담여행사 전담팀 구축 및 가동('14.1월~)
    - \* 중국 전담여행사 대상 모니터링, 실태점검, 상시제보시스템 구축, 우수상품 지원, 시장조사분석 등 업무 수행
  - 중국 전담여행사 합리적 운영을 위한 대토론회(1.22.)
    - \* 갱신제 시행 이후 향후발전방향 논의, 업계자정결의문 채택 등
  - 노동절 계기 방한 중국상품 모니터링 및 업체현황 실태점검(4.12-5.1.)
    - \* 방한저가상품(6개)의 소핑옵션 실시 등 현황파악, 전담여행사(23개, 서울·제주) 방문·점검
  - 방한 중국인바운드시장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실시('14.5~11월, 갤럽, 중국 전담여행사 전수조사)
  - 중국 관광객을 위한 방한 우수상품 지원사업 실시('14.5월~)
    - \* BI 및 로고개발, 우수상품 대상 인센티브(광고비, 포상금, 팸투어 등) 제공
  - 제1회 한중 관광업계 교류회 개최 및 '관광품질향상' 공동합의문 채택(5.29. 서울)
  -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및 업무시행 지침 개정('14.8월, 11월)
    - \* (지정취소) 명의대여 적발 업체 4개사 지정취소 실시(2.11 1개 / 8.4. 3개)
    - \* (지침개정) 신규지정 시기확대(2년 1회→분기별 1회) 및 관리감독 강화 (무자격가이드 고용 관련 3진 아웃제 도입)
  -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19개) 및 무자격가이드 고용 업체(21개) 진입제한('14.9-12월)

- 방한 중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품질 향상 및 FIT 유치확대 활동 전개
  - 방한 중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품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 상품 개발
    - \* 초고가 한국 글로벌 국제리더십 아카데미상품 개발(660만원, 25명 모객), 슈퍼리어 여성/가족층 대상 고급 방한상품 개발(500만원, 8명 모객), 방한 골프상품 출시(200만원, 86명 모객), 여성 뷰티/쇼핑/미용 특화 상품 '여인천하' 출시(100만원, 400명 모객), Chua Lam 초고가 미식상품 출시(600만원, 31명 모객)
  - SNS 활용 중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한국관광 홍보 활성화
    - \* 중화권 전지사 SNS 채널개설·운영(SNS 회원수 414,278명, 포스팅 4,185건), 제한 중국인유학생 SNS 기자단 운영(콘텐츠 생산 수 3,932건 전년 1,095건 대비 360%증가, SNS 회원수 387,565명 전년 31,538명 대비 1,129%증가), 파워블로거·SNS유저 초청팸투어
  - 중화권 FIT 대상 양질의 관광콘텐츠 제공 및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FIT 전용 가이드북 제작
    - \* '한국자유행with쌍얼' 제작(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제주편)
  - “별에서 온 그대” 신드롬 연계 방한관광 마케팅 추진
    - \* 촬영지 및 연계 상품 출시(전지현 웨딩따라잡기, 송도 석산 비너럴기, 치맥 활용 상품 등 출시 상품 130여건), SBS에 제안, '별에서 온 그대 체험관' 공동 OPEN(1차 동대문 DDP(6.10~8.17), 2차 킨텍스(9.5~2015.8.31), FIT 용 '별그대 교통카드' 특별 제작 등으로 외래관광객 11만명 유치), 주연배우 한류스타 “전지현”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 전격 위촉(8.12, 홍보대사 위촉 동영상은 youtube, youku등 방영(조회수 113,558회), 기자회견은 1,281건으로 단일 행사 최대(국내 403건, 중화권 878건, baidu·구글 기준))
  - FIT 유치 확대를 위한 체험 투어 활성화 추진
    - \* 2014 창조관광 최우수상 프로그램 “가정집 집밥 체험” 상품화, 노동절 관광어권 “2nd Passport” 투어, 국경절 및 연말 스템프 투어, BC은련카드 쇼핑 투어 및 스마트앱 체험, 호텔 부가세 환급 대대적 홍보 및 케이트츠 공동 TAX FREE 및 도심환급 체험, 동계 1박2일 눈+스키+썰매+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Snow Tube’ 최초 출시, 인천아시아게임 자국 응원 상품 출시 FIT 모객 실시, 신개념 여행서비스 ‘한귀덩니’(맞춤형 여행가이드-현지친구사귀기) 대학생 맞춤형 매칭 프로그램 만족도 92점, 179명 참가

<2014년 12월 관광통계>


(단위: 천 명, 전년 대비 성장률(%), 추정치)

구 분	외래객 입국		국민 해외여행		관광수지	관광수입		관광지출	
	인 원	성장률	인 원	성장률		금 액	성장률	금 액	성장률
2013	12,176	9.3	14,846	8.1	△2,816	14,525	8.7	17,341	5.1
2014.1	843	11.8	1,469	3.0	△452.9	1,180.7	9.9	1,633.6	6.5
2014.2	886	8.7	1,313	10.8	△245.6	1,190.3	20.3	1,435.9	14.0
2014.3	1,132	12.0	1,151	3.3	△21.6	1,422.5	17.6	1,444.1	14.6
2014.4	1,251	28.7	1,180	7.5	△239.9	1,456.9	15.4	1,696.8	28.4
2014.5	1,240	34.8	1,223	3.2	△186.2	1,432.7	19.8	1,618.9	15.0
2014.6	1,274	20.3	1,270	4.0	△238.3	1,464.5	14.7	1,702.8	28.0
2014.7	1,355	12.4	1,455	2.6	△207.8	1,615.9	27.2	1,823.7	10.6
2014.8	1,454	7.0	1,547	9.9	△264.6	1,544.9	32.4	1,809.5	17.2
2014.9	1,246	7.7	1,321	10.5	77.6	1,765.4	26.7	1,687.8	11.5
2014.10	1,317	21.1	1,432	15.6	54.0	1,707.8	26.2	1,653.8	8.2
2014.11	1,110	22.3	1,288	11.7					
2014.12(추정)	1,080	16.3	1,370	13.7					
2014 (누계)	14,195	16.6	16,020	7.9	△1,725	14,782	21.2	16,507	15.1

-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형프로모션 추진
  - \* 기존 B2B 국가 박람회 단순 참가 지양, 한국 단독 B2C 대형 FIT 티켓 문화관광대전 개최(관광·한류·음식·K-POP·웨딩·미용·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행사로 저가관광 이미지 탈피)
  - \* 베이징문화관광대전(5.30-6.1), 타이베이문화관광대전(7.5-6)
- 세계 3대 검색엔진 '바이두'와 업무협약 체결(11.26)
  - \* 글로벌 최대 중국어 검색엔진 바이두 사용자의 검색 트렌드와 해외여행 및 방한관광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시장 관광마케팅에 활용
- 일본인 방한여행 수요의 회복 및 한일관광교류 확대 촉진활동 전개
  - JATA-KATA 공동 방한일본인 300만 회복 “2014 한국관광캠페인” 전개(4~12월)
  - 문체부장관-일본 국토교통대신 면담, 2015 한일관광교류의 해 추진 협의(14.4.29)
  - 지자체 공동 MVP-shuttle (서울↔안동)유료 셔틀버스 시범 운영(4월)
  - 민관합동 방일 한국관광설명회 개최(7.14~16, 도쿄)
  - 한일 관광교류 확대 심포지엄 개최( '14.8.29/서울)
    - \* 일본 관광청 장관, 경단련 및 관광업계 대표단 등 약200명 방한, 양국 관광교류 회복 위한 방안 모색
  - 방한수요 조기회복 현지 프로모션(훗카이도, 오사카 고베, 아키타 아오모리, 10월)
  - 일본인관광객 감소에 따른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계 긴급 용자 지원 (11개 업체 관광기금 72억원 지원/10월말)
  - 한일 관광분야 실무자 협의(국장급) 및 합의문 발표(12.2)
  - 한일 관광교류 확대 심포지엄 in JAPAN 개최( '14.12.3/도쿄)
    - \* 한일 정부(문체부 차관, 일본관광청 장관) 및 관광업계 대표단 등 약300 참석
  - 일본여행업협회(JATA) 공동 MEGA FAM TOUR(12.8~12)
    - \* 방한관광 신소재 홍보 및 '2015 국교정상화 50주년' 연계 방한객 유치 확대 기반 조성 (전국 10개 코스 팸투어, JATA 회원사 직원 및 언론포함 약 1,000명 참가)

○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 개선

- '14년 9월과 10월 2달 연속 관광수지흑자 기록하여 '12년 6월 이후 28개월 만에 흑자 전환.
- 전체 방한객 증가와 방한객 1인당 지출 증가로 관광수입은 '14년 10월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한 147억불 기록, 관광지출은 원화강세에 의한 해외여행 수요증가로 15% 증가한 165억불을 기록함 (관광수지 17억불 적자)
- 외래객 2천만 조기 달성을 위한 신규 한국관광 브랜드를 개발, 성공적으로 론칭(7.22)하였으며, 한류스타인 빅뱅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실시를 통해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신규 한국관광 브랜드 의미 및 디자인	
	○(의미) 세계인들의 인식 속에서 한국이 다양한 상상이 실현되는 나라, 새로운 가치,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나라임을 표현 - 개개인들이 '각각의 한국'을 직접 상상하고 현실화하는 상호 소통형 브랜드
	○(디자인) 현대적 서체로 활력·생동감을, 강한 필체 통해 한국의 역동적 모습을 표현 - 'O'자는 전통적인 상모돌리기에서 모티프, 상상의 에너지가 이어져 나오는 모습 - 한복의 선에 색동을 더하여 한국의 상징성 표현, 색동은 다양한 체형 상징 - 'K'자는 두 팔을 벌려 세계인의 방문을 환영하는 모습 형상화

○ 관광 분야 국제 아젠다 주도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국제관광계 영향력 강화 및 선진 관광 한국 위상 제고

- 한국은 ‘지속가능한 관광’ 아젠다의 국제적 확산 기여를 인정받아 전 세계 ‘지속가능한 관광 10개년 계획’ 을 이끌 주도국으로 선정
  - \* UNEP(유엔환경계획), 전 세계 37개 신청 국가 중 한국을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에 관한 10YFP(10개년 계획) 관광 프로그램’의 공동 주도국(Co-Lead)으로 선정('14.8월)
- △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초청 포럼 및 연수’ 개최( '14.11월, 20개국 관광공무원업체 종사자 104명) △ 베트남 관광 ODA 컨설팅 등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2014-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계기 러시아 내 전략적 한국 관광 홍보를 통해 고부가가치 시장인 러시아 관광객 유치 확대

\* '14년 1~11월 러시아 관광객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13년 161천명→'14년 199천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한일 관계 영향 및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한 방한 일본관광객 감소세 지속 대책 필요

□ 조치계획

- 2015년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한-일 관광교류활성화
  - ①한일 관광교류의 해 선포식 ②홍보대사 임명 및 마케팅 활용 ③일본 관광업계 대상 대규모 팸투어 실시 ④ KOREA week in Japan 추진, 지자체 및 청소년 교류 확대 등
-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계 긴급 용자 지원 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분기별 일정을 대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일부 과제 지연
	1-2. 관련기관 협업도	미흡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항공 분야 민관 협의체 구성 등 협조체제 구축은 수행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영 성과 미흡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미흡	· 14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 개선조치 불이행, 단 기존 목표 달성은 인정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방한 일본, 중국 외래관광객 수는 2014.12월말 기준 840만명으로 예측되며, 목표치 초과 달성 · 온라인플랫폼 회원수 92,821명(2013 신규가입자 39,159명)으로 2012년 대비 20% 상승이라는 적극적인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초과달성 · 위 두 지표의 평균 달성률이 121% 범위 내 있음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 2014년 12월 ‘외래관광객 14백만명’ 돌파되는 등 목표달성하였으나, 일본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외래관광객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문제점이 있으며 잠재시장 개척 미흡 · 신규 한국관광 브랜드(imagine your korea)를 론칭하였으나 한국 이미지 제고 효과 불분명
가점	정부3.0 ‘일하는 방식’	우수	· 자체 정부 3.0 경진대회 출품(빅데이터 활용 외국인 신용카드 지출행태 분석)

## □ 총평

- (MICE) 중장기 산업 육성계획 시행, 마이스 지원제도 운영 및 대규모 마이스 집중 유치, 개최 지원 등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대표적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의료관광)
  - '의료'와 '한류'의 결합을 통한 주요 지역별·거점별 해외홍보 마케팅을 실시했으며 한국의료관광 통합 플랫폼을 오픈해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이 가능하게 됨
  -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기반을 마련함
- (한류·공연관광)
  - K-pop 콘서트를 활용한 한류관광객 모객을 추진하여 연간 1천명 이상의 한류 관심층 모객에 성공
  - 대형 한류콘서트 및 이벤트를 활용하여 대규모 방한객 모객에 성공함(예 : 롯데면세점 한류콘서트 3만명 모객)
  - 상설공연 등 공연관광 홍보와 예약결제까지 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한 공연관광플랫폼(kperformance)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향후 한국공연관광의 체계적인 지원틀 마련
  - 잠재 중국관광시장을 대비하여 중국 주요도시(북경, 상해)에서 다양한 공연의 full-version 공연을 지원하여 한국관광 매력 홍보 효과 극대화
- (크루즈관광)
  - 성별·국적별·항구별 국가공인 크루즈관광객 입국통계 집계 및 크루즈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통한 타겟국가별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기반 마련

- 크루즈관광객 및 크루즈 선원 대상 입학 환영행사 및 시내투어 지원 등 방한 크루즈관광객의 관광만족도 제고 도모
- 주요 타겟국가인 중국 크루즈전문 여행사 및 선사 초청 Korea Cruise Travel Mart 개최 등을 통한 국내 크루즈 기항지 적극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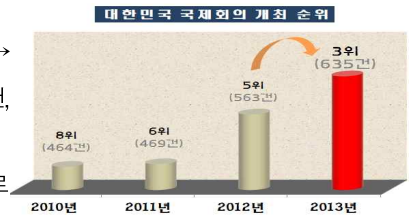
## □ 주요 성과

## ○ (MICE)

- 대한민국의 국제회의 개최순위(2013년) 세계 3위·아시아 2위 달성 (UJA 기준, '14.6월 발표)

- \* '11년 469건(6위) → '12년 563건(5위) → '13년 635건(3위, 1위 싱가포르 994건, 2위 미국 799건)

- \*\* 국제회의 참가자 소비자출액은 \$2,621로 일반 외래관광객의 2배에 달함



-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14~2018)' 수립 및 시행('14.1.2)
  - \* 비전 : 국제회의 산업 발전을 통한 문화융성·창조경제 실현
- '국제회의 유치-해외홍보-개최 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 운영 통해 한국 MICE 시장 지속 확대, 고품격 한국 문화관광 지원 통해 회의의 질적 향상에 기여
  - \* '14년 유치 지원 62건, 개최 지원 174건, 해외홍보 지원 56건 달성
- 역대 최대 인센티브(포상관광) 방한단체 대상 한류한식 활용 성공적 지원 통한 참가자 만족도 제고, 인센티브 목적지로서 한국 위상 강화
- '14년 단체 규모에 따른 기념품·관광지 입장료·관광 프로그램 등 2,212건 181,400명 지원(중대형 46건)
- Korea MICE Expo 2014 개최 등 전 세계 MICE 전문 바이어 대상 대한민국 MICE 홍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지원
  - \* 전시회 참가 244개사 467 부스(전년대비 37% 증), 국내외 바이어 386명, 전체 비즈니스 미팅 건수 4,102건 등 달성



### ○ (의료관광)

- '14.9월 실시한 보건산업진흥원의 유치실적 중간점검 결과, '14년도 목표치인 25만명을 상회한 **약 26만 5천명**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기대
  - \* '14년 통계조사 결과는 '15.3~4월경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 예정
- 의료+한류(K-Beauty, 공연, 웨딩) 연계 전략마케팅 실시(연중)
  - 중국 상해 의료관광대전(12월) : 의료 + 뷰티, 웨딩, 패션 접목
  - 러시아 모스크바(5월), 일본 도쿄(9월), UAE 아부다비(10월) : 의료 + K-pop, 공연, 한식 접목
- 의료관광업계 대표 마케팅 툴, 온라인 의료관광 플랫폼 오픈(10월)
  - \* 사이트 이용률 : '14.9월(시범운영) 6,000건 → '14.10월(정식오픈) 66,000건/1,100% 증가
  - \* 플랫폼 참여기관 : '14.12월 현재 93개 기관(의료기관, 유치업체 등)
- 지역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2~12월)
  - 사업내용 : 의료관광 지역 브랜드 강화, 의료관광 추진 협의체 구축·운영, 의료관광 상품개발, 홍보 콘텐츠물 제작활용 및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사업 등
  - \* 계획 수립(2월), 사업 공모(2~3월), 시범지역\*\* 선정(3월), 사업보완 및 추진(4월~)
  - \*\* 대구광역시 / 총 사업비 : 16억(기금 8억, 지방비 8억)

### ○ (한류·공연관광)

- K-pop 등 한류소재를 활용한 대규모 방한객 유치전략 추진
  - 롯데면세점 공동, 한류 콘서트 개최 외래객 3만명 유치
  - 지방 개최 한류이벤트, 대형 음악회 시상식 등 연계 방한상품 개발 및 외래객 유치
- 해외개최 이벤트 연계 한류관광홍보 및 해외 드라마와 영화 로케이션 유치마케팅 추진
- FIT공연관광객 확대를 위한 마케팅툴 운영
  - \* 할인쿠폰북, 가이드맵, 러쉬티켓, 공연캘린더, 잡지광고 등

- 해외 주요시장(중화권) 및 신규시장(러시아, 인도 등) 공연로드쇼 집중 강화(총 20회)
- 해외 공연로드쇼 연계 공연관광상품 개발(26개 여행사 40여개)
- 공연관광플랫폼(kperformance) 운영을 통한 한국 공연관광 홍보
  - \* 2014년 판매실적 : 총 3,400여건, 누적 140백만원
- R16 Korea 세계비보이대회 해외예선전 확대에 의한 한국관광 인지도 제고(세계 23개국 총 28회 예선전)
- 공연관광축제 활용 한국공연관광 홍보 및 공연관광객 확대 기여
  - \* 공연관광축제 홍보기간 상설공연 외국인 관람객 390,129명, 외국인 직접판매티켓 2,797장

### ○ (크루즈관광)

- 주요국가 대상 국내외 설명회 참가 및 개최, 크루즈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한국 크루즈관광상품 홍보 지원 등 홍보방안 다각화를 통해 방한 크루즈관광객 유지 증대에 기여('13년 699천명 → '14년 937천명, 전년대비 34% 증가)
  - \* '14년 수치는 12월까지의 추정치로, 공식 집계는 '14년 10월 기준 416편 입항, 890천명 입국
- 크루즈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현안 공유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크루즈 협의회 및 크루즈관광 자문위원회 구성·개최를 통해 크루즈관광 산업의 내실화 도모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 (의료관광)

- 의료관광 플랫폼 내 제공 서비스 언어 다변화 및 콘텐츠 보완 필요
- 한국의료관광 안전성 제고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한 보험 및 상담 기능 탑재 필요 등

#### ○ (한류·공연관광)

- 외국인을 위한 K-pop 콘서트 전용좌석 추가확보 필요
  - \* 케이블 방송국 K-pop 콘서트의 외국인 전용좌석을 공중파방송 K-pop 콘서트로 확대하여 방한동기 및 상품 매력도 증대 필요
- 문화와 접목한 한류 파생상품 소재개발 확대필요(예 : 한글, 한복 등 전통문화와 한류를 연계한 파생상품 개발확대 등)

- R-16 세계비보이대회 사업 확대 필요
  - R-16 세계비보이대회 해외 예·결선을 확대를 통해 한국관광 홍보 극대화 필요
  - R-16 세계비보이대회를 단순 Competition방식을 넘어 다양한 한류 문화 콘텐츠형 행사로 확대 필요

○ (크루즈관광)

- 저가 크루즈관광상품 구성으로 인한 국내 기항지 관광프로그램의 질 제고 필요
- 해외 크루즈 선사 대상 한국 기항지 방문 유도를 위한 한국 크루즈관광 홍보 플랫폼 확대 구축 필요

□ 조치계획

○ (의료관광)

- 한국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내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 참여기관 지속 확대('14년 93개 → '15년 200개)
- 플랫폼 내 제공 서비스 언어 다변화('14년 영, 중, 일 → '15년 영, 중, 일, 러, 아랍어)
- 한국의료관광 안전성 제고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한 플랫폼 내 의료기관 가입 기준 강화 및 1:1 온라인 상담 기능 및 상해보험 탑재 등

○ (한류·공연관광)

- KBS, SBS 등 공중파를 접촉, 매력 있는 K-pop 콘서트 상품화 추진
- 한류 파생상품(한류+한글, 한류+한식, 한류+한복 등 문화와 접목한 한류 파생상품) 개발 확대를 통한 지속적 한류 확산전략 모색
- 해외공연로드쇼 연계 방한관광시장 규모 파악('14.12월)를 통한 공연관광 활성화 전략 모색
- 티켓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공연관광활성화 홍보 방안 수립('15.5월) 등

○ (크루즈관광)

- 크루즈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인증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한국 크루즈 기항지 정보 및 크루즈 관광객 통계 등 한국 크루즈 관광 관련 통합 홍보사이트 다국어 구축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대부분의 사업을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하였으나, 캄차트카 의료관광 설명회 등의 사업은 대외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지연 또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MICE 및 의료관광 육성사업 등은 산자부복지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과제로 관리·운영 중이며 상호 협력체제하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세월호 사건 등으로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이 일부 지적되었으나, 외래객 증가추세로 목표치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 목표치와 실적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목표치에 대한 실적은 익년초 집계가 완료될 예정이나, 추세치 및 실적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MICE 해외 참가자 수(목표치 121만명) : 127만명 예상 * 해외 의료관광객 수(목표치 25만명) : 26만 5천명 예상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계획 대비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에 크게 기여 하는 등 상위목표 달성과 직결하여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가 매우 큼

## □ 총평

- 소득과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레저 융합형 관광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관광 스포츠 융합 등을 위한 탄력적 조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적 기반 마련(관광체육레저정책실로 개편)
- 자전거·트래킹·캠핑 등 복합레저관광상품 개발 운영 및 수상레저체험 사업을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동호회 위주에서 일반시민,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여 레저스포츠의 인식 제고 및 저변확대에 기여
  - \* 수상레저체험교실 '13년 7개소 12,300명→'14년 4개소 27,030명
- 영암·해남기업도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토지취득비용 부담 완화)을 통해 민간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개발 기틀 조성
- 관광레저기업도시 홍보를 통한 관심제고 및 투자유치 기여를 위해 관광레저기업도시 연계 관광상품 발굴 및 온라인 적극 홍보실시
- 국내 관광단지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및 세일즈콜 등 실시로 잠재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등 투자유치 기반 마련
- 국내 관광지에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첫 사례인 레고랜드의 성공적 유치 \*레고랜드 코리아 기공식('14.11.28)
  -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광객의 접근성 편의 제고를 위한 진입교량 및 접속도로 건설 적극 지원, 향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주요 성과

- 소득과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레저 융합형·저탄소 관광문화 확산
  - 주5일제와 여가문화 확산으로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추구하는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과 스포츠 활동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저변 확대
  - \* 복합레저관광열차(3,684명), 카누·카약 등 수상레저 체험(27,030명),

승마체험(1,500명) 등

- 태권도원의 대국민 홍보로 태권도원의 인식제고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영암·해남)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10.9km/4차선)' 기본·실시 설계 진행
  - '14. 11~12월 : 총사업비 조정, 설계발주, 공사계약 및 착공(전남도)
    - \* 사업기간 : '18년 → '20년, 총사업비: 275,598백만원 → 313,806백만원
- 영암·해남 기업도시 개발사업 제도개선 마련
  - 영암·해남 기업도시 개발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정산제도를 반영하여 개발비용을 재산정(연구용역)하기로 합의('14.5월)
  -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용 부담 완화
    -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 준공검사 시 매립지가격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토지이용현황(농지)으로 평가하도록 특례 개정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관광투자유치 지원
  - 투자유치 지원 대상사업 선정(해남 오시아노, 안동 관광단지, 고양한류월드), 사업별 관광투자유치 컨설팅(10.21) 및 투자유치 설명회, 세일즈콜 등 실시(11~12월)
  - 관광투자유치 웹사이트 고도화 연구용역(9~10월), 시스템 구축(12월)
- 국제테마파크(레고랜드 코리아)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간 투자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이용객들의 접근 편의 제공을 위해 진입교량 설치지원
  - 레고랜드 코리아 기공식 개최(11.28) 및 진입교량 공사 착공(12월), 15년도 예산 확보(199.2억원)
- 한강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환경생태를 회복하면서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마스터플랜 수립하기로 결정
  - 차관급 TF회의\* 개최(9.4, 9.22, 10.21) 및 MOU\*\*체결(9.22)
    - \* 기재·국토·문화·환경부 차관, 서울 행정2부시장, 국토·문화·서울연 원장 등
    - \*\* 문체부·국토부·서울시가 재원분담, 공동계약방식으로 공동연구 수행
-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용역' 계약 체결(11.12)
  - \* 문체부·국토부·서울시 공동발주, 국토연·문광연·서울연 공동연구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융복합 관광 영역의 확장에 따른 종합적·전략적 대응 미흡
  - 관광 스포츠 융합을 위한 조직적 기반 마련을 계기로 스포츠관광 등 융복합 관광 개발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및 지원 확대 필요
- 기업도시는 낙후지역에 입지토록 하여 기업외면 초래, 투자활성화 미흡, 기업도시 제도는 국가균형 발전보다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민간투자유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
  -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탄력적 개발을 허용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기업도시법 개정)
-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에 맞춰 진입도로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의 사업비 집행관리, 진입도로 공사 안전확보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
- 한강은 넓은 강폭 등 잠재력에 비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는 매우 미흡, 관광명소로서 한강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관광기반 시설 조성, 매력있는 관광상품 개발, 안내체계 개선 등을 통해 한강의 융합 관광 자원화 계획 수립
  - \* 한강 관광자원화 Master-Plan 확정(15. 8월)
- 관광단지 대상 민간 투자 유치 확대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입 가능 시설 확대에 대한 제도 개선 지원
  - \* 주거시설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지원

□ 조치계획

- 레저스포츠 관광 체험 상품 다양화
  - 육상레저(자전거·트레킹 등)·수상레저(카누·카약 등), 항공레저(패러글라이딩, 열기구 등) 각 분야별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 매력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자전거 타기 좋은 매혹의 길' 선정 등 자전거 테마코스 관광상품화 / 수상 스포츠 체험 지구 조성 및 체험교실 확대 운영 / 독도, 제주도, 다도해 등을 연계한 항공레저 경관관광 프로그램 및 비행체험 프로그램 개발
- 2015 한강 레저스포츠 축제 개최(10월)
  - 한강을 세계적인 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키 위해 자전거와 캠핑

- (레저), 카누·카약, 요트 등(수상레저)과 불거리·먹거리 등을 연계한 새로운 융·복합 레저 관광 축제 개최(15.10월, 예산: 5억)
  - \* 홍콩 국제용선 축제 : 중국 단오절에서 유래된 용선경주를 현대에 맞게 경기화 하여 스포츠 이벤트로 발전시킨 행사로 2013년 약 20만명의 관광객 방문
- 한강과 주변지역을 핵심 관광지로 발전시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 관광자원화를 위한 장기적 비전과 종합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사업 내용 등은 관련 연구원(문광연)과 지속 협의하여 추진
-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적극 지원
- 관광단지·관광지 특성화 지원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 도모
  - 지역별 독특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 활성화로 민간투자 유치 기대
    - \* 해수·녹차(전남 보성), 전통한방(경남 산청), 천주교 성지(강원 횡성), 안보관광(경기 파주) 등 / \*15년 예산 : 37,673백만원(35개 관광지)
  -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춘천호반관광지) 본격 개발 및 지원
    - \* 진입교량 착공('15. 3월) 및 준공('17. 2월), 개장 ('17. 3월) / \*15년 예산 : 199억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분석 · 추가사업 발굴·시행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관계부처와 협의, 반영된 업무실적 · 모니터링 등을 통한 기업도시 관심도 측정 · 모니터링 등을 통한 레저스포츠 만족도 측정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13년 자체평가에 대한 2014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성과지표를 각각 100%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 총평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대회 개최 이후의 지속가능한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장기 종합계획(20년) 마련
  - 특구지정(3개 권역, 5개 특구, 11개 지구) 및 올림픽지원, 주거·도시경관, 관광진흥·개발, 교통·생활인프라 부문 40개 사업 추진
- 내·외국인 투자유치 및 민간사업자의 투자촉진 여건 제공
  - 특구 지정·고시('14. 1월) 이후 12개 사업시행자(또는 예정자)가 특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약 1조 6,978억원의 투자 계획 예정
-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및 신규 예산확보로 특구사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체계 구축
  - 문체부 내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설치('14. 8.27) 및 '15년도 8개 특구사업에 대한 신규예산 70억 확보
- 동계올림픽 계기 강원도 관광 발전을 위한 지역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 개발 추진
  - 관광분야별 전문가그룹 구성, 지역 현장 토론회 및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역 관광발전 방안 논의·도출

## □ 주요 성과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창올림픽법」에 근거하여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수립·추진
  - 대회지원위원회 심의 완료 및 특구종합계획 고시('14. 1.16)
    - \* 대회지원위원회 :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기재·교육·문체부장관, (위원) 관련부처 장관 등 21명

- (특구지정 규모) 27.4km<sup>2</sup> (3권역, 5개 특구, 11개 지구)
- (사업기간) 1단계 : '13~'18년, 2단계 : '19~'32년
- (총사업비) 3조 3,063억원(국비 3,641억원, 지방비 2,828억원, 민자 2조 6,594억원)
- (주요사업) 올림픽지원, 주거·도시경관, 관광진흥·개발, 교통·생활인프라 부문 40개사업 추진

-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업무추진 체계 구축('14. 8.27)
  - 평창올림픽법 제40조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운영'의 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 \*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단장: 2차관), 특구기획정책관(관광레저정책관 겸임), 특구기획담당관(총 7명/ 정원 3, 파견 4)
- 올림픽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15년도 신규 예산 확보 추진
  - (우리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등 8개 사업 7,000백만원 반영
    - \* 효석문화예술촌 조성(1,500백만원), 올림픽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880백만원), 전통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조성(1,650백만원),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470백만원),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400백만원), 한류 k-culture 이벤트 개최(600백만원),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 개발(500백만원), 강릉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1,000백만원)
  - (타부처)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 정비 등 6개 사업 13,822백만원 반영
    - \* (환경부) :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538백만원), 공공하수처리 인프라 확충(7,874백만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210백만원)
    - \* (국토부) : 지방하천 환경정비(1,200백만원),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 정비(3,825백만원), 노후불량시설물 정비(175백만원)
- 강원도 관광 발전을 위한 지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추진
  - 동계올림픽 계기 강원도 관광 발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지역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 개발 추진
    - 전문가그룹 구성 및 논의 : 출범회의(11.28), 지역 현장 토론회(12.4~5), 분임 토론회(12.12), 종합 연석회의(12.18) 등 6회
    - \* 관광전략, 음식관광, 관광코스, 관광콘텐츠, 관광서비스 등 5개 분야별 전문가 19명
    - 지역 현장 토론회 개최 3회(12.4~5, 강릉·평창·정선) : 지역 관광 콘텐츠 강화 및 지역 관광서비스 제고 방안 토론회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특구 지정 이후 지역의 현안사업 반영, 사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특구종합계획 보완·변경 필요
  - 유사사업 통·폐합, 특구 내 신규사업 발굴, 중앙-지방간 협의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지구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 조치계획

- 특구지정 변경 요청(강원도→ 문체부) 및 관계 중앙부처 협의('15. 1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대회지원위원회 심의 및 변경 고시('15. 2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분기별 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조직 설치는 2개월가량 지연되었으나, 외생변수(세월호 참사 여파)의 영향임을 감안
	1-2. 관련기관 협업도	미흡	· 올림픽특구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동계올림픽 계기 강원관광발전 전문가그룹(중앙-지방 추천인사)을 구성하여 연석회의 및 지자체 현장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구체적 협의 실적은 미흡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자체평가 지적을 반영하여 불분명한 성과지표를 명확히 개선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3분기 기준 증가율(2.1%)을 고려할 때 '14년도 강원도 관광객 수는 목표치(10,352만명)를 상회하는 10,567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 · 이는 2분기 세월호 참사 여파 및 여름피서철 태풍의 영향으로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급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 체험 및 레포츠, 캠핑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은 '14. 1월에 수립된 중·장기계획('13~'32년, 20년)으로서 국비사업의 경우 '15년도부터 신규 재정사업으로 반영·추진될 예정이므로 현재 구체적 정책영향 발생 없음 · 다만, 민자사업의 경우 '14. 1월 특구지정고시 이후, 12개 사업시행자(또는 예정자)가 특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약 1조 6,978억원의 투자 계획 예정

48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매우우수

□ 총평

- 생활체육 진입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다양한 생활체육시설·프로그램·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체육활동 가치 및 방법 홍보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및 만족도 제고
- 「국민체력 100사업」을 통한 체력수준별 체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 및 스포츠 복지서비스 확대
  - 과학적인 체력관리 필요성 인식 증가 및 생활체육 참여 유인체계 구축으로 자발적 수요 확대
- 저소득층 성인·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사회나눔 실현

□ 주요 성과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9.3% 증가함( '13년 45.5%→' 14년 54.7%)**
  -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은 10대 여학생 및 60대 이상 노인의 생활체육 미참여율이 낮아졌으며, 주1회 이상 참여율도 증가함
- **(국민체력인증제 성공적 운영)** 정보와 지식부족 등으로 과학적 체력관리를 하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보편적 체육 복지서비스 제공
  - (거점센터)21개소 86,421명 참여(목표대비 109.9%달성) \*12.16일 기준
  - (체력증진교실) 6,142명 참여(목표대비 102.4%달성), 만족도92.1점(전년대비 1.7점 상승)
  - (내실화) 한국인 건강체력 기준개발('14년~'17년), 체력인증센터 표준개발, 활동 인증 개발 ※ 성인기 운영('12) → 노인기 운영('13) → 청소년 시범운영('14)
- **(지도자 양성 및 파견 확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및 고령화시대에 따른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13년 830명 → '14년 1,080명)

-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청소년(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만5~9세 유·청소년, 5세~18세)의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최대 월 7만원, 3만명 지원)

\* 지원대상 확대 : 차상위 한부모, 자활, 장애, 본인부담 → 우선돌봄 추가

-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확인시간 지연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자 자격여부 실시간 확인 시스템 마련

\* (기존) 대상자 자격확인 일주일 소요 → ('15년) 실시간 확인 가능

- 수급자격 변경정보(사망, 수혜자격 변경, 전출입 등) 신규 연계로 사업 투명성·효율성 제고

\* (기존) 변경정보 비연계로, 자격변경 사유발생시 실시간 조치 불가능 → ('15년) 변경정보 자동연계로, 실시간 조치 가능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업 타당성 검토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추진으로 통합콜센터 운영 사업 일정 다소 지연
- 국민체력인증 사업과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미흡
-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 시 웹을 통한 결제방식으로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불편 및 개선요구 존재

□ 조치계획

- '15년에 “생활체육 통합 포털 구축·운영” 사업 예산 500백만원 확보로 ICT를 활용한 생활체육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 전화 및 민간포털 연계 등을 다양한 정보제공 방식으로 확대개편 추진( '14.9.~)

- 2015년 체력인증센터 선정 시 보건소와의 협업체계 구축 여부를 센터 선정에 적극 반영( '14.12월)
  -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보건소와의 협업체계 구축 모델 검토(15년 하반기)

- 기존 카드 웹 결제 방식에서 모바일 쿠폰 결제방식(본인인증을 통하여 휴대폰으로 결제)으로 변경하여 수혜자 이용 편의 증진 및 부정수급 방지 강화( '15~16년 구축, 17년 시행)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종합형스포츠클럽 및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충실히 추진, 통합콜센터 운영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 등 통해 사업계획 변경추진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17개 시도 및 교육부, 교육청, 민간기업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목표한 성과를 거둠 · 스포츠강좌이용권 실시간 운영을 위한 행사부, 보 건복지부 등과 연계협력 협업시스템 구축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자체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대상 사업 확대 및 ICT를 활용한 통합정보 제공방식으로 사업을 충실히 추진 · 스포츠강좌이용권 확인시간 지연 및 이용자 불편 개선 요구에 따라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바일쿠폰 결제방식으로 변경, 수혜자의 이용편의 증진 · 체력인증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체력인증센터 참여자 수 목표치 초과달성 *14년 참여자 목표(7만8천)대비 103%(9만명)달성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성과지표 목표치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49.9%를 4.9% 상향하는 54.7% 달성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만족도 101.2%초과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10대 여학생 및 노인인구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로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효과 입증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생활 체육 참여 형평성을 높여 체육복지 체감도 향상 * 14년 만족도 목표(83.5)→달성(84.5%)

## □ 총평

- 공공체육시설로의 접근성 제고 및 1인당 면적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 추진
-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우수 공공체육시설을 선정, 포상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
- 기존 20년 이상 전문체육시설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전문·생활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우려가 있는 체육시설의 개·보수로 지원 대상 확대

## □ 주요 성과

- 지역 주민 밀착형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
  - 시·군·구 종합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 1개 시·군·구 1개소 설치 지원 중으로 '14년까지 219개소 지원 완료
  - 농촌지역 게이트볼장 등 어르신 선호 체육시설 지원(1개소, 5억원)
- 학교 부지를 활용, 체육관(강당 겸용, 전용)을 건립하여 학생 및 지역 주민 공동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활동 공간 지속 확충(21개교 113억원)
- 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등 지방 체육시설 신축 지원(294개소, 1,441억원)
-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향상, 균형배치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사업 추진
  -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 수립('14.5.19.)
  -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및 포상(권역별 4, 부문별 5)

- 10년 경과 노후 전문·생활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우려가 있는 체육시설의 개·보수 지원('14년 211개소 564억원 지원)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매년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여전히 체육시설의 접근성은 높지 않고,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

## □ 조치계획

-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중앙)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제고 및 균형배치를 위한 매 5년 마다 정기적인 중장기 계획수립 의무
  - (지방)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수립 의무 부과 및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연초 수립된 공공체육시설 지원계획('14년)의 일정에 맞게 추진됨. · 전체 12개 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1-2. 관련기관 협업도	미흡	· 시·도 체육진흥담당 국장 및 실무자 협의회를 통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상시적 협조체계 구축은 미흡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미흡	·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필요 지적에 대하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근거 마련 적절히 대응함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및 이용자 안전 도모.</li> <li>· '14년 건립 중 시설 및 운영 시설에 대한 점검 시행</li> <li>· 시설이용률 조사 시행('13년말 기준 23.74%)</li> </ul>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형태의 체육시설 지속 확충으로 생활체육활성화 여건을 마련하였고,</li> <li>·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을 통해 시설활용도 제고 및 경영수진 개선에 기여</li> </ul>

<b>50</b>	<b>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b>	<b>미흡</b>
-----------	---------------------	-----------

총평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및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 건강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사회성과 협동심 함양 등에 기여

주요 성과

-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2,911명)를 배치하여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에 기여
  - ※ 계약연장('13년 10개월→'14년 11개월), 임금('13년 1,766천원→'14년 1,854천원, 5%P 인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6,065명) 및 지역사회 스포츠시설과 연계한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시군구별 2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시도교육청의 지방비 확보가 미흡하여 당초 계획(3,077명)보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실적(2,911명) 저조

조치계획

- 계획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독려 추진('15.2월)
  - ※ '15년에도 지방재정 악화로 사업 추진 애로 예상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총 6개 추진계획 모두 당초 일정대로 정상추진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2. 관련기관 협업도	미흡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1.24) 및 2014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 공동 작성·시행 등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목표한 성과를 거둠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미흡	· 시도 교육청 지방비 미확보를 자체평가시 지적받은 바 있으나 지표를 하향 조정하는데 그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①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 : 89.1점(목표) → 89.7점(실적) : <b>100.7% 달성</b> ②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참여율 : 63%(목표) → 63.5%(실적) : <b>100.8% 달성</b>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 (정책효과 발생) 체육수업의 내실화, 학생비만 및 저체력 예방, 소외계층 학생의 스포츠 복지 구현 등에 기여 · (상위목표 달성 기여) 학생들의 체육 참여 환경 여건 조성으로 “국민생활체육참여율 제고”에 기여

51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우수

## □ 총평

- 우수 선수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경기력 향상 도모 및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우수 성적 거양 기반 마련
- 선수·지도자·심판 등 체육인에 대한 스포츠 윤리 교육 강화로 공정성 기반 마련
-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도핑검사 관리로 선수권익 보호 강화
- 초중고·대학 운동부·실업팀 지원 및 스포츠 폭력·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

## □ 주요 성과

- 초중고 학교운동부 170개교 15억원 지원, 대학운동부 65개교 32억원 지원('14년 신설), 실업팀 창단지원 23개팀 15억원 및 운영지원 61개팀 29억원 지원을 통해 훈련여건 개선, 선수 저변 확대에 기여
- 국가대표 선수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5개 종합대회 및 각종 선수권대회, 친선경기 참가지원을 통해 대표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사전 준비
- 도핑방지활동 지원
  - WADA(세계반도핑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써 도핑방지 정부간 회의 개최 등 도핑방지 활동의 주도적 참여
  -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도핑검사 강화 및 체계적인 도핑검사 결과 관리 및 스포츠 반도핑 교육·홍보로 도핑에 대한 선수, 지도자의 경각심 제고
  - 도핑컨트롤센터 기기 보강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향후 개최될 '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15광주하계U대회, '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반 마련

- 스포츠 공정성 및 윤리 교육 지원
  -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 클린심판아카데미 등을 통한 선수·지도자·체육인에 대한 스포츠 윤리 교육 강화
- 선수·지도자·체육인에 대한 스포츠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 및 신고·상담 등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 및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 기반 구축

□ 미흡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제대회 우수 성적 거양에도 불구하고 국제 스포츠계 인적 영향력 낮음
  - WADA 등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을 통하여 스포츠 외교 역량강화 필요
-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 재정적 원활한 지원 필요
- 초·중·고·대학 운동부 지원 시 여자운동부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있어 문체부의 선도적 역할 필요

□ 조치계획

-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반도핑기구 회의개최 등 적극적 활동 지원
-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및 재정당국, 기타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한 성공적 개최 지원
  - '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15광주하계U대회, '18평창동계올림픽 등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자체평가계획상에 수립한 28개 관리과제를 추진 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하였음.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경기단체,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와의 지속적인 토론 및 협업을 통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제대회 참가 지원 · 도핑컨트롤센터 분석기기 도입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대회 효율적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중학교 학생선수까지는 훈련시간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선수 적정 훈련시간 및 회복시간방법' 연구 추진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개최국제대회 우수선수 참여율 · 도핑방지 인지도제고조사(신규) · 스포츠인권향상교육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세계반도핑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써 도핑방지 정부간회의 개최 등 도핑방지 활동의 주도적 참여 · 도핑컨트롤센터 기기보강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도핑검사 관리로 선수권의 보호 강화 · 개최국제대회 우수선수 참여지원 ·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 등을 통한 스포츠 윤리 교육 강화

## □ 총평

-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새로운 운영모델 제시를 통해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국내 및 국외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요층을 겨냥, 전략적인 **세계화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의 전통무예이자 국제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태권도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대회시설 건립과 문화올림픽 추진 등 대회 준비 지원체계 강화

## □ 주요 성과

-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 저비용-고효율의 롤모델 제시**(“14.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예산절감 우수사례)
  - FISU와의 3년간 협상으로 사업비 1,733억원 절감
    - \* 시설기준 완화 등 대회시설비 1,079억원 절감, 행사간소화 등 운영비 654억원 절감
  - 마케팅권리 100% 조직위 수입 확보
    - \* 일반적으로 국제마케팅 권리는 국제연맹이 약 80% 보유한데 반해, 2015광주U대회의 경우 전액 조직위 수입(현금 594억원, 현물 412억원) 확보
- (전략적 체육교류) **체육협력양해각서 체결** : 정부 간 1건(스리랑카), NOC 간 4건(캐나다, 과테말라, 핀란드, 스리랑카)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 남북체육 교류 및 역사적인 남북화해 전기 마련
    - \* 북한 등 45개 회원국 전체 참가, 북한 최고실세의 폐막식 참석으로 화해 분위기 조성
  - VISION 2014 프로그램을 통한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 실현
    - \* '07년부터 2천만 달러, 아시아스포츠 약소국 지원(30개국 696명)
    - \* 인천AG에 수혜 선수 97명 출전, 7개 메달 획득(금 1, 은 1, 동 5)
  - AG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저탄소친환경 대회』 인증 획득
    - \* 임시시설물, 차량 2부제, 탄소배출권 확보 등 자구노력 인정
    - \* 국제스포츠대회로 ISO가 친환경 인증한 사례는 2012런던올림픽 유일

- 태권도 시범단, 봉사단 등의 전략적 국가 선정 및 파견을 통해 태권도 세계화에 기여, 태권도 퓨전 ‘탈’ 공연사업 추진 등 한류문화 콘텐츠 다양함 제시를 통한 한국이미지 제고에 기여
-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조성된 태권도원이 '13년 8월 차질 없이 준공되어 시범운영을 거쳐 '14. 4월 정상 개원·운영 중임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 건립 지원
  - (경기장) 신설 경기장 6개소 모두 착공. 신설 빙상경기장 4개소는 재설계 및 설계변경을 통해 건설비용 절감방안 마련 중
  - (진입도로) 기존 진입도로 9개 노선 설계 및 공사 진행 중. 추가 진입도로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문화올림픽 추진 및 대회준비 지원체계 강화
  - (문화올림픽 추진) 문화올림픽 실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문체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공동)
  - (대회준비 지원체계 강화) 정부-개최도시-조직위원회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림픽 조정협의회(문체부장관-강원도지사-조직위원장) 정례화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제경기대회 전 과정(유치-준비-운영-사후활용)의 효율화 필요
  - 대회의 가치, 유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와 대규모 경기장 건설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 유치 당시의 약속과 달리 총사업비 증액이 관행화
-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사범 파견 국가 수가 부족하여 전략적으로 파견국가의 확대 필요
- 태권도 성지로서 건립된 태권도원(2014.4월 개원)의 방문객 증대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 및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각적 노력 필요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현장대응 능력 미흡 및 운영상 실수 누적으로 대회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 확산
  - 성화소화, 일부경기장 정전, 선수촌 방충망 미설치, 자원봉사자 훈련 부족, 전산시스템 불안정 등

□ 조치계획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15년)

- 지자체의 국제대회 유치신청 타당성, 윤리성 강화 및 관행적인 총사업비 초과 근절

구분	현행	법안 주요내용
유치신청 절차	· 지자체장 단독으로 신청	· 지방의회 의결 선행
신청의 하자	-	· 승인취소
사전 평가	-	· 시정권고
총사업비	-	· 초과 금지(물가상승률은 인정)

○ 태권도 국제화사업 확대 등을 통한 태권도 세계화 견인

- \* 태권도 사범 파견 사업 확대('14년 1,800백만원→'15년 2,520백만원)

○ 태권도원 운영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 태권도원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중화권 국가 집중 홍보 및 국내 태권도 도장 중심의 마케팅·관측 전략 추진
  - \* 국내 태권도 도장 8,920개(대한태권도협회 등록 도장 기준, '14. 12월 현재) 관측 목표 확대('14년 도장방문객 3,185명→'15년 목표 20,000명)
- 태권도 콘텐츠 기반의 유·무형 상품화 전략 추진 등 수익사업 모델 다각화 추진
  - \* 콘텐츠(상품) 기획·개발 업무 전담을 위한 조직 개편 및 규정 정비('14.12.1)
  - \*\*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확대('14년 1,132백만원→'15년 1,858백만원)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 위원장(총리) 포함 25개 중앙행정기관장 구성 - 국제경기대회 시설계획 및 대회준비개최 관련 범정부 지원사항 등 심의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4회), 올림픽 조정협의회(3회) 개최 등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 인천AG 디브리핑 개최를 통한 자체평가 및 국제경기대회 개선방안 마련('14.10.27~28)하였으나 국제스포츠클럽 위상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은 미흡한 편 * 인천AG 자체평가 및 경향노하우를 광주하계U대회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기관에 전수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광주U대회 신설경기장 공정률(%)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목표90%, 실적90.6%) * 4개 신축경기장 사업비 : 200,094백만원 '14년까지 투자액 : 192,180백만원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공정률(%) 달성도 123.5% * 경기장 및 진입도로 목표치 25 * 경기장 및 진입도로 달성치 30.9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2015광주하계U대회 대회관련시설 등 인프라 구축 마무리, 대회 실전 운영능력 배양, 대회 흥행 마케팅 등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 완료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인프라 건립 등 대회 준비를 통해 성공적 개최의 초석 마련 · 국제경기대회 전 과정의 효율화 필요, 태권도 한류 콘텐츠 육성전략 마련 미흡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해 대회주체 국제기구(FISU) 및 회원국들의 신뢰구축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대표단 준비상황 점검('14.12.9~12.16)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6개소 착공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진입도로 9개소 설계 및 공사 진행 중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위원회 운영(2회/3.17, 8.26~29)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목표한 성과를 거둠

### □ 총평

- 스포츠산업중장기계획('13.12월) 수립 및 조직기반 마련(스포츠산업과 신설('13.12월), 한국스포츠개발원 기능강화('14.2월) 등 스포츠산업 본격적 육성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스포츠용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으로 스포츠산업의 상품성 및 시장성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 국내 스포츠기업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함.
- 또한 국내 스포츠용품 품질인증과 해외인증 획득 지원으로 스포츠용품 대표 브랜드 육성과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제공함
- 스포츠산업실태조사결과,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확대(전년대비 2.08조원 증가) 및 종사자수(전년 대비 23천명 증가)도 증대
  - ※ '14년 성과관리계획 상 시장규모 목표치(40.16조원)를 초과 달성(40.77조원)

### □ 주요 성과

#### ○ 스포츠산업 글로벌 육성 노력 전개

- 개별적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 개척(미국·중남미 로드쇼 개최, '14.10월) 및 국내 스포츠용품 PGA(미국, 골프), FIBO(독일, 헬스기구) 등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지원

#### □ 3개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 참가규모 : 24개사, 42부스 참가
  - 미국PGA(1월), 독일 FIBO(4월), 미국Outdoor Retailer Show(8월)
- 상담실적 : 수출상담 2,041건(상담액 92,146천달러)
  - \* 수출유망품목 선정(골프용품, 헬스피트니스용품, 아웃도어)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 □ 해외로드쇼(10.8~18, 미국·중남미)

- 참가규모 : 5개사 3개국(미국LA,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파견
- 상담실적 : 수출상담 86건(상담액 16,440천달러)
- 계약추진액 : 4,893천달러
  - \* 기업별 맞춤형 바이어 매칭 및 방문상담 병행 지원

- 2014년 역대 최대 규모로 '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을 개최

#### □ 2014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개최

- 기간 : '14.2.20~23 / 코엑스
- 참가기업 442개, 부스 1,745개, 참관인원 43,263명(2013년 42,942명)
- 전시면적 : 28,726㎡
- 상담실적 : 574건(2013년 548건, 4.2% 증)
  - \*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합형 전시회 특성별 및 품목별 전시관 구성 개최

- 해외시장 개척 전문기관(KOTRA)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시장 분석, 지역별 전략 수립 컨설팅 및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총 15개사
  - 1년차 2개사, 2년차 3개사, 3년차 10개사)
- ※ 신규 :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신규기업 경쟁률 8.5:1(2개사 선정/17개사 신청)  
2~3년차 :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 ○ 국내 스포츠용품의 품질력 공인 및 해외 인증 지원

- 스포츠용품의 성능 평가 시험(총 2,669건) 및 인증 부여(국내인증 35개)로 업체의 품질 경쟁화 강화
- 스포츠용품에 대한 CE(유럽), TUV(독일) 및 국제경기연맹공인 등 인증 지원(13개 업체, 20개 인증)으로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한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 스포츠용품 품질인증(KISS)의 법적 근거 미비

- 현재 민간 자율 인증제로 운영되어 대외적 공신력이 높지 않음에 따라 법적 근거를 둔 법정 임의 인증제로 개선 필요
- 현재 서울에서만 개최되는 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을 서울과 지방 순회로 지역의 다양화 필요

### □ 조치계획

#### ○ 품질인증제 법제화를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추진(~'15)

- ※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발의 노력('14.9.22 공청회 개최\_의원실 공동주최), '15. 1월 발의 예정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사업별 수립한 추진계획 일정대로 정상 추진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한국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전문성 제고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스포츠용품 품질 인증 법적 근거 미비 지적에 따라 법 개정 추진하였으나 '15년 이후로 지연 · 공청회 개최 등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은 추진되었음 · 국내 강세·유망 품목 중심의 토종 강소형 기업 육성과 글로벌화를 위해 '15년도부터 지원 예정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해외전시회 평균상당액 목표치 대비 116% 초과 달성 · 스포츠용품 시험성능 및 인증건수 목표치 대비 235% 초과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스포츠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기반조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내스포츠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시간 단축 및 비용 감소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나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는 다소 미흡

54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 조성

다소미흡

□ 총평

- 스포츠와 과학기술이 접목된 고부가 스포츠용품 및 서비스 개발로 중소기업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혁신에 기여
- 기술간·영역간 협업을 강화하고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한 과제 관리의 건전성 제고
- 반면 기술개발 투자에 대하여 시장에서 체감하는 성과가 미흡

□ 주요 성과

- 기술간·영역간 칸막이 제거, 협업 및 공동연구 토대 마련
  - \* 부처 협업 : 스포츠과학화 융합연구 추진(문체부+미래부)
  - \* 부내 협업 :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공동추진으로 부처협력과제 추진(스포츠+문화)
- 제도 및 인력 쇄신을 통한 R&D 과제 평가 시스템의 건전성 제고
  - 상호경쟁 및 연구 분위기 쇄신을 위한 상대평가제도 도입
  - \* 중간평가에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는 강제탈락 (규정개정)
  - 실질적 성과중심으로 연차 및 종료평가 체계 강화
  - \* 최근 3년간 중단조치 없었으나, '14년 성과미흡과제 2개 중단(실패) 조치
  - 전문가 풀(POOL)의 쇄신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건전성 제고
- 스포츠 기술개발 확대 및 지역특성화 R&D 육성 기반마련
  - 융복합 기술개발 확대 등에 필요한 자원 확보 ('14년 87억 →'15년 130억)
  - 지역특성화 R&D거점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15년 30억)
- 스포츠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청사진 마련
  - 스포츠산업에 대한 중장기 기술로드맵 초안마련 ('14.12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책성 보다는 단기소액과제 중심으로 추진되어 시장이 체감하는 대표성과가 부족하고, 전문기관 기능도 부족
  - \* '07년 ~'13년까지 연간 과제당 평균 지원금 규모 3억원 수준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예산 (백만원)	1,837	3,000	6,000	7,000	7,000	7,200	7,700	8,700
과제수	12	24	23	16	15	16	15	미정

□ 조치계획

- 사업목표 명확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사업역량 집중('15년)
  - 사업화 가능한과제로 선택과 집중, 사업의 중장기 목표 명확화
    - \* (사업명칭 변경)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 ⇒ 스포츠산업기술 기반조성
    - \* (사업목표 정립) 10억 이상 과제의 경우 기획단계 비즈니스 모델(BM) 제시
- 스포츠산업기술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개선
  - 사업관리에 필요한 전주기적 프로세스 혁신 및 전문기관 조직 강화
    - \* R&D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하여 R&D 성과관리시스템 구축('15년, 1.5억)
    - \* R&D 전담조직 보강(예시) : 1개 팀('14년) → 기획과 관리를 분리하여 2개 팀('15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20점)	미흡	· 연초 계획 수립에 따라 일정을 준수하였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 수립과 그에 대한 일정을 준수, 다만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등의 일정으로 협약체결, 진도점검 일정 등 다소 지연
	1-2. 관련기관 협업도 (10점)	보통	· 미래부 협업과제 추진 및 확대, 부처내 협업과제 발굴 추진(스포츠+문화), 스포츠산업기술포럼과의 기술교류회 공동 개최 등 협업 공조 추진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10점)	보통	· 자체평가 지적에 따라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성과조사분석용역 실시를 통한 활용현황 조사, 과제기획시 BM 의무 제시, 사업화 지원을 '15년 예산 확보 등 추진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40점)	충실	·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는 134.5%, 사업화 성공률은 109.1%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점)	미흡	· 특허등록 등 기술획득 성과가 우수하고 사업화 실적도 50% 상회할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스포츠산업체 발전 및 기술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였으나 스포츠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수준으로는 다소 미흡

55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보통

□ 총평

- 제2차 장애인체육 중장기계획('13~'17)을 근거로, 단위사업별로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시도지부, 가맹경기단체 등)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 재정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세부 단위사업별로 지원하던 예산을 일괄 교부하는 턴키지원 방식 도입 및 시도별 거점체육시설 건립 지원 등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환경 개선 노력으로,
- 보다 효율적인 예산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수'는 물론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 및 생활체육 지원사업 만족도 증가

-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수 : '08년(140천명) → '09년(201천명) → '10년(230천명) → '11년(521천명) → '12년(711천명) → '13년(876천명) → '14년(978천명, 목표790천명)  
 \* '14년 결과 값은 12월 15일 기준이며, 연말 결과 값 추가 산출예정(목표 대비 123.8% 초과달성)  
 -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 : 08년(6.3%) → '09년(7.0%) → '10년(8.3%) → '11년(9.6%) → '12년(10.6%) → '13년(12.3%) → '14년(14.1%, 목표 12.8%)  
 \* '14년 목표 대비 110.2% 초과 달성  
 - 생활체육지원사업 만족도 : '10년(80.6점) → '11년(86.4점) → '12년(86.5점) → '13년(84.7점) → '14년(86.1점, 목표 82.7점)  
 \* '14년 목표 대비 104.1% 초과 달성

□ 주요 성과

- 참여자 특성 반영한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사업 다양화
  -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지원(장애유형별 교실, 수준별 교실, 장애 청소년체육교실, 계절스포츠교실, 생활체육클럽 등 670개소),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2중), 개인별 체력관리 및 운동상담 사업 운영 방안 연구 및 장애유형별 체력증진 프로그램 개발



\* 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반영 사업임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종합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건립 지원(5개소 50억원)

\* '14년 지원(부산 사하, 인천 연수, 대전 유성, 경기 시흥, 충남 아산)

\* 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반영 사업임

○ 체육활동 참여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지원

- 소외계층 장애인 행복나눔 교실(16개소), 여성장애인체육교실(37개소) 등

\* 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반영 사업임

○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지역별 어울림·동호인 생활체육대회(100개), 시·군·구 장애인 체육 이동서비스(승합차6대) 지원, 지역별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솔루션위원회 신설(16개 시도)

\*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솔루션위원회 : 장애인 접점기관(복지관, 병원 등) 기반으로 생활체육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을 보다 활발하게 운영

\* 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반영 사업임

○ 장애인 체육활동 신규 참여인구 발굴 및 유인 제공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16개 시·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230명), 체육활동 참여 수기 사례집 제작, 장애인생활체육 슬로건·포스터 공모 등

○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대회(6개),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대회(4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대회(1개)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2차 장애인체육 중장기계획('13~'17)을 기반으로 장애인 생활 체육 비전 및 전략계획 수립하여 실질적인 성과 도출 필요

- '14년도 중장기계획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서 언급 필요(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중장기계획에 관한 언급이 없음)

○ 기존에 있는 지역의 체육시설에 장애인 체육 시설 구축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조치계획

○ 생활체육교실, 동호회 및 어울림대회의 점진적 지원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유도 및 통합체육 보급 사업 추진

○ 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의 사업을 성과계획에 표기

-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지원, 지원체계 개선 등 전략에 따른 사업 추진

○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추진

\* '14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5개소, 50억원)

- 지원대상 : 부산 사하, 인천 연수, 대전 유성, 경기 시흥, 충남 아산

○ 시·도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추진

- 지자체 담당자 대상 관련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정책 안내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장애인스키학교지원, 장애인조정학교지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건립, 생활체육위원회 및 각 지원사업 현장 평가 등 장애인스포츠허브 조성사업은 일정 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함 ○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장애인부 참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회 사업이 상반기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반기로 지연되었으나, 연기된 일정에 대하여 승인받고 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충실히 수행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지자체,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등과 협력하여 목표 성과를 거둠 ○ 장애학생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협력 강화함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제2차 장애인체육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및 체육활동 활성화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체계 개선, 참여자 특성 반영 지원 등</li> <li>-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및 지원시스템 구축</li> <li>○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li> <li>* 5개소, 50억원(부산 사하/ 인천 연수/ 대전 유성/ 경기 시흥/ 충남 아산)</li> <li>○ 장애인체육지원사업 만족도 목표치 82.7점 대비 86.1점 달성(104.1% 달성)</li> <li>○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 목표치 790천명 대비, 12월 15일 기준 978천명 달성 (123.8% 달성)</li> </ul>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개선</li> <li>-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이 ‘13년 대비 1.8% 상향 (12.3%→14.1%)되어,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상위 성과지표 달성에 기여</li> <li>-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만족도’가 ‘13년 대비 1.4점 상향(84.7점→86.1점)이 되어 “장애인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성과지표 목표 달성에 기여</li> </ul>

56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보통

## □ 총평

- 장애인체육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합 2위 달성(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역대 최고성적 및 메달)
- 국가대표 상시훈련 실시 및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력 향상 및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 '13년 4,270백만원 → '14년 6,064백만원

- 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 : 목표치 대비 102%달성
- 국제회의참가, 국내인사의 국제기구 진출, NPC 교류 등의 국제 스포츠교류를 통해 스포츠외교력 강화 및 대한민국 위상 제고 (APC 선수위원장 2회 연속 배출)

## □ 주요 성과

-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상시훈련 지원(30종목 584명)
  - 종합대회 참가선수 특별훈련 지원('14 소치동계PG 4종목 42명, '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3개 종목 473명)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동·하계)
-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 행정운영비 지원, 국내대회·전문인력 양성·국제체육교류·국제대회 개최 지원
- 장애인스포츠 경기력향상 지원
  - 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전임지도자 배치, 장애인실업팀 창단 지원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과제 평가지표 재설정 필요
-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13~'17)'를 통한 정책기반을 마련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미흡. 실질적인 성과 도출 필요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조치계획

- 관리과제 '장애인체육 육성'의 성과지표인 '장애인전문체육 등록 선수'를 '장애인체육 진흥'의 성과지표로 설정
- 제2차 장애인체육 중장기계획('13~'17)을 기반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비전 및 전략계획 수립
  - 제2차 장애인체육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향후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및 재정계획 반영
-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및 체육활동 활성화
- \*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및 지원시스템 구축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 국가대표선수 상시훈련,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장애인가맹단체 지원, 전임지도자 배치, 장애인실업팀 지원등을 충실히 추진하였으나, 신인선수 및 후보선수 훈련사업 등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협의 진행 및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보다 실행력 있는 기관들로 협업체계 구축 필요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미흡	○ 과제 평가지표 재설정 필요 - 관리과제 '장애인체육 육성'의 성과지표인 '장애인전문체육 등록선수'를 '장애인체육 진흥'의 성과지표로 설정 ○ '제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13~'17)을 통한 정책기반을 마련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다소 미흡.'14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 필요 -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및 체육활동 활성화 * 지원체계 개선, 참여자 특성 반영 지원 등 - 장애인선수 경기력 향상 및 지원시스템 구축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 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초과 달성(목표치 102% 달성)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참가로 경기력 등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 도출

57

부처 홍보 역량 강화

다소우수

□ 총평

- 국내외 민간 홍보 우수사례 중심으로 정책홍보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정책홍보 역량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
- 정부에서 실시하는 브리핑을 각 부처와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정부 발표에 대한 언론의 취재지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음
  - 사회의 환경변화(모바일환경, 디지털방송,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취재지원 서비스의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주요 성과

- 각 부처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민간전문 컨설팅업체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컨설팅 지원을 통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추진력 확보에 기여

<2014년도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지원 현황 : 52개 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홍보전략(기재부) △문화융성 2년차 홍보전략 △규제 개혁 성과 홍보전략 △비정상의 정상화 홍보전략 등

- 국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책소비자 트렌드, 뉴미디어 환경 및 콘텐츠, 마케팅 기법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무원 홍보역량 강화
  - 최신 홍보 트렌드를 정책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을 통해 정책 홍보 능력 배양

<2014 홍보전문교육 현황 : 34회 373명>

△기본과정(2회) △전문과정(마케팅전략 1회, 뉴미디어 3회, 미디어트레이닝 26회, 언론·미디어의 이해 2회)

- 주요 국정과제 및 국민생활 밀접정책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정책 추진에 활용하도록 제공
  - '정부3.0에 대한 국민 체감도 조사' 등 여론조사 14건 실시
- '정책보도 분석자료'(연간 1,500여건 이상)를 정기적으로 부처에 제공, 정책홍보 핵심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 토대로 △정책보도종합(분기 170건 이상) △시사프로그램 분석(분기 100여건) △주간 정책보도 분석 △현안분석(월 10건 이상) 제공

**<2014 주요 현안분석 현황>**

△대통령 유엔총회·APEC 등 순방외교 성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월호 사고 △교황 방한 △방공식별구역 확대 △인천아시안게임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쌀 관세화 등

- 주요 정책과제 관련 보도흐름과 주요쟁점, 여론추이 등을 종합한 분석 자료를 '홍보TF', '정책홍보사전협의'(국민소통실-관련부처)에 제공, 현안 대응력 제고에 기여

**<2014 주요 정책과제 분석 현황>**

△세법 개정안 △보건의료제도 개선 △한-호주, 한-중 FTA 타결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단통법 시행 △노동시장 개혁 △원전안전 △국민생활공감정책 △누리과정 예산 논란 △복지 3법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대책 △학교폭력 등

- 정부발표 취재지원 서비스의 다변화
  -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정부발표에 대한 언론 취재지원시스템인 e-브리핑 시스템을 확대하여 e-브리핑 모바일 웹 서비스 확대 실시
  - e-브리핑 영상 서비스 품질 강화 추진
    - 현재 서비스 중인 브리핑영상을 SD급에서 HD급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영상 서비스 품질 강화 기반 마련(HD급 장비 보유: 6개소 → 18개소로 확대)
  - e-브리핑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e-브리핑 이용대상의 한계로 목표치 무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일일방문자 수가 전체 회원의 15%정도라는 점은 목표치 달성이 아주 무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용률 개선을 위한 방법모색이 좀 더 필요할 듯
  -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방식이 일반 인터넷 환경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브리핑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청 수단의 다변화를 추진
    - 이를 위해 e-브리핑 모바일 웹 서비스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e-브리핑 서비스 이용률 제고 추진
- e-브리핑의 운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추후 여론주도층 인사들의 방문 유도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통로로 활용
  - ☞ e-브리핑 서비스 운영 목적에 맞추어 홍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을 e-브리핑을 통하여 적극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언론기자들이 좀 더 유용한 정책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유도함
- 범정부적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홍보교육의 대상을 산하기관, 공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교육내용을 다양화
  - ☞ 중앙부처·지자체 수요조사 시 소관 산하기관·공기업 직원도 홍보교육 대상자로 포함하여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39개 세부 추진계획 모두 일정 대비 정상추진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 e-브리핑 시스템과 각 부처 영상 인코딩 시스템연계 운영(각 정부부처 27개소에 연계되어 운영 중) ▪ 언론의 정책보도 일일 분석자료를 각 부처와 국회의원실에 제공, 정책 여론 피드백 및 정책홍보자료로 활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성과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주요 현안 여론조사 및 정책홍보 컨설팅 추진</li> <li>별도 지적사항 없음</li> <li>* 평가 기준에 따라 '13년 자체평가시 지적사항이 없는 과제의 경우 충실로 평가</li> </ul>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홍보교육 만족도(점) - (목표)81.4 -&gt; (실적)86 : 초과 달성</li> <li>e-브리핑 일평균 방문자수(명) - (목표)553 -&gt; (실적)532 : 목표 미달</li> <li>* 언론인(기자) 및 정부 브리핑 업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 서비스 특성상 회원가입 및 방문자수에 있어서 한계점에 도달</li> </ul>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국정과제,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 및 민간 전문기관 홍보컨설팅 지원을 통해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 정책 기초자료 활용 및 홍보 효과 극대화</li> <li>정책 담당자 대상 홍보전문 교육을 통한 홍보 역량 강화</li> <li>e-브리핑 영상 서비스 제공건수(2,745건), 회원 일평균 방문자수는 532여명(전체 회원의 15%) 등 정부 브리핑 취재지원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li> </ul>

58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우수

## □ 총평

- 부처대변인협의회 활성화 등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소통기조 공유 및 주요정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홍보계획 종합·조율
  - 부처대변인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4대 국정과제 및 주요현안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홍보기조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홍보를 위한 부처간 소통함으로써 부처 간 이견과 혼선을 최소화
- 관계부처 간 한목소리(One-voice) 유지 → 일관성 있는 홍보추진에 도움
  - 홍보 메시지를 사전에 수립, 관계기관이 통일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 및 확산토록 하여 일관된 홍보기조 유지
- 부처·공공기관 보유매체 홍보협업 체계 구축
  - 부처 및 공공기관 매체활용 협력홍보를 시스템화하여 정책 관련 광고·영상물 등의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 협업홍보 활성화

## □ 주요 성과

- 공공매체 협업 홍보 활용, 비정상의 정상화(국조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기재부), 정부 3.0(안행부), 기초연금법(복지부) 등 주요 국정과제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총 72개 정책과제 집중 홍보
- 42개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민간 보유 506개 매체 대상 동시 홍보
  - ※ '13.5월 시행 후 참여매체 지속 확대(초기 91개 매체 → 현재 506개 매체)

■ 영상매체 : 케이블·인터넷 방송, 전광판 ⇒ 35개 부처 363개  
 ■ 간행물(민간매체 포함) : 은행권 사보, 경제단체 소식지 등 ⇒ 32개 부처 143개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홍보 매체를 홍보에 공동으로 이용, 별도 비용 없이 홍보콘텐츠 파급 효과 제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기재부), 정부 3.0(안행부), 창조경제타운(미래부) 등 주요 국정과제 대상 홍보지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기재부) → 전국 공항, 철도, 금융기관 전광판 및 모니터 활용 ▲정부 3.0 홍보영상(안행부) → 지하철 2·5·6호선 모니터(국토부) 등 활용, 대국민 홍보 ▲창조경제 타운(미래부) → 대학교내 전광판(기상청), 사회적기업 매거진(고용부) 등 활용, 취업 및 창업 관심계층 대상 홍보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민 참여가 중요한 정책 중심으로 집중 홍보

☞ (사례)

-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산업부) → 신한은행 사보 및 국민은행 영업점 TV(금융위), 주요 공공기관 청사 등 직장인 대상 홍보
- 가을 관광주간(문체부)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국토부) 및 세종시 BRT 버스안내광고(행복청) 등 대중교통 접점 활용 홍보

⇒ 부처 협업홍보에 대해, 다수 부처가 ①국민중심 정책 홍보방안 수립 ②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 ③부처 간 one-voice 유지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 평가

○ 주요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현안 등 캠페인 광고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지도 제고

-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1~7월/지하철·열차, 극장, 신문)
  - \* 문화융성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전부서 및 관련기관 활용
- 규제개혁(8~11월/지상파, 중편, 케이블, 지하철, 극장, 신문)
- 공무원 연금 개혁(10~11월/신문), 문화를 당신곁에(10~11월/케이블, 지하철, 극장, 버스)
- 비정상의 정상화(11~12월/버스), 정부 3.0(11~12월/극장)
- 경제혁신 3개년 계획(12월/중편, 케이블)

○ 국민 생활 밀착형 광고를 통해 민생 관련 정책 안내

-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1월/생활정보지)
- 조류인플루엔자 대국민 행동요령(1~2월/지하철·열차)
- 생활공감 도움정보(2~4월/인터넷, 여성잡지)
- 전국 전광판(210여개) 활용, 국정과제 매일 18건 표출(동영상10, 문자 그래픽8건)
- 기타 농협모니터(2,740) 서울버스모니터(1,000여대) 활용 홍보

○ 국제행사 홍보 지원을 통한 국민 통합 및 국격 제고 기여

-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8~9월/극장)

○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부처협업 홍보를 통해 홍보효과 극대화

- (4대약-학교폭력근절)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문체부 등 4개 부처가 예산을 분담하고 방송3사와 포털사이트, 지하철, 아파트엘리베이터 등 송출(10월~11월)

- (4대약-불량식품근절) 식약처, 경찰청, 문체부 3개 부처가 예산을 분담하고 전국 극장, 지하철,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송출(11월~)

- (문화융성) 문화융성 인지도 제고를 위해 BI를 제작하여 적극 활용하고 '문화가 있는 삶' 슬로건과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국민 체감도 제고
  - 스티커 제작 배포(2,000부) 및 현장 점검 및 교육
  - 주요 거리 및 문화시설에 가로등 배너와 현수막 게시

○ 사전 협의제를 통한 부처 홍보효과 극대화

- (핵심 국정과제) 경제혁신·규제개혁·국민행복 등 국정 아젠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홍보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 수립 지원
- (쟁점사안 사전 대비) △쌀 관세화 △전작권 전환 재검토 등 갈등현안에 대한 언론 비판쟁점을 사전에 대비하여 홍보 방향 및 메시지 강구, 부정적 노이즈 최소화
- (국민 생활정책 확산) 서민 주거안전 강화방안, 복지 3법 입법 등 국민 생활밀착형 정책 발표 효과성 제고
- (주요 정책 조정·결정기구 안전 핵심메시지 지원) 규제개혁장관회의·무역투자진흥회의·국무회의 상정 안건 보도자료 검수 등

※ 【참고】 국정과제별 주요 사전협의 실적

구분	사전협의 내역
경제부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혁신 3개년 계획(2.25, 기재부)</li> <li>■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3.12, 기재부)</li> <li>■ 창조경제 실현 전략 1년 성과 및 향후 계획(6.30, 특허청)</li> <li>■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7.24, 기재부)</li> <li>■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9.24, 기재부)</li> <li>■ 노동시장 구조개선(발표 미정, 기재부·고용부)</li> </ul>
국민행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비급여 제도 개선(2.11, 복지부)</li> <li>■ 공교육 정상화법(4.9, 교육부)</li> <li>■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10.30, 국토부)</li> <li>■ 마을변호사 위촉식 및 심포지엄 개최(11.21, 법무부)</li> </ul>
문화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주간 홍보(4.15/9.25, 문체부)</li> <li>■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계획(5.16, 문체부)</li> <li>■ 문화의 달 홍보(9.1, 문체부)</li> </ul>
평화통일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홍보계획(12.2, 통일부)</li> </ul>
기타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1.22, 금융위)</li> <li>■ 직행좌석버스 입석 해소 대책(6.10/8.22, 국토부)</li> <li>■ 쌀 관세화 유예 여부 관련(7.18, 농식품부·산업부)</li> <li>■ 병영문화 혁신방안(12.18, 국방부)</li> </ul>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여전히 국정과제의 구체성 부족으로 인해 국민적 체감도가 높지 않고 부처별 파편화된 홍보가 전개되는 상황, 이에 대한 극복방안 강구 필요
  - ☞ '14년까지는 정부 국정 어젠다와 정책방향기조에 대한 홍보에 치중했다면, '15년부터는 주요 정책성과들을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각 부처 홍보를 독려할 계획임
- 민관협력형 홍보 활성화를 통해 정부 주도 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지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
  - ☞ 저명한 민간 홍보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홍보기법을 부처 담당자들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개 세부 추진계획 중 23개 세부 추진계획은 일정 대비 정상추진</li> <li>- 1개 세부계획은 일부 지연</li> </ul>
	1-2. 관련기관 협업도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캠페인 및 부처 공동 광고 추진</li> <li>▪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 이슈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 대변인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성·운영(주 1회, 43개 전 부처가 참석하는 영상회의 정례화)</li> </ul>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제적 홍보 외에 온라인 홍보활동 및 기관장 홍보활동 부문을 평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과제, 주요정책 등 기존정책 소통활동에 대한 홍보성과 평가를 강화</li> <li>▪ 정부 내에서 사전협의제 활용도 제고</li> <li>- '13년 30개 기관 → '14년 37개 기관)</li> </ul>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건)</li> <li>- (목표)95 -&gt; (실적)100 : 초과 달성</li> <li>▪ 정부광고 만족도(점)</li> <li>- (목표)66.7 -&gt; (실적)67.1 : 초과 달성</li> </ul>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춘 국정철학 및 주요 정책 광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원활한 여건 조성 및 국민 공감대를 형성</li> <li>- '문화가 있는 날',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공무원 연금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 3.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광고 등</li> <li>▪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행사 홍보 지원을 통해 성공적 대회 개최 및 국민 화합에 기여</li> <li>-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광고</li> </ul>

□ 총평

- 정부 주요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홍보 간행물 발행을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 확대 및 정책 이해도 제고
  - 위클리 공감, 카툰 공감, 손끝으로 읽는 국정, 국민생활 정책정보, 문화융성 체감사례집 등 정기·수시 간행물 발간
-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정책홍보 간행물 적시발간과 대국민 배포를 통해 충실한 정책 홍보
  -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논리 개발 및 간행물 기획·발간
-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한 주요 정책정보 종합서비스 및 정책정보 확산
  - '정책 하이라이트' 공식메일 연계, 국정과제 및 당일 발표 정책이슈 부각
  - 수용자 중심의 알면 힘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희망사다리' 특집 페이지 개편
    - \* 희망사다리 개편을 계기 2014 국민공감정책 홍보를 위한 이벤트 진행
  - 청년층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전달하는 다양한 홍보프로모션 진행
    - \* 20대 위주의 정책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사이트를 방문 하도록 재미있고 실용적인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대상 소통을 강화
    - \* 이벤트에 관심이 많은 20대를 주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홍보 프로모션 추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매체를 활용(아프리카TV, 맥스무비 등)
- 찾아가는 홍보,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정책 기자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제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전달하고, 일자리 정보 등 국민이 관심있는 실용정보 확산으로 정책 이해도 증진 및 국민 소통 강화
  - 민간포털 등 외부사이트와의 콘텐츠 제휴 연계 및 협력사업 지속 강화를 통해 일반인의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

## □ 주요 성과

-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생활밀착형 정보와 정부가 알리고자 하는 주요 정책을 부족한 예산과 한정된 지면을 효율적으로 운용·활용하여 부수와 지면 활용도를 최대한 늘리고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을 통해 대국민 소통 역할 충실히 수행
  - 안정된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지속추진 : 1,845,600부
    - 정부대표 종이매체 정책정보지 '위클리 공감' 제작
      - 1,470,000부 발행 : 주간, 3만부 대국민 배포
    - 정부 유일 카툰(만화) 정책 정보지 '카툰 공감' 제작
      - 360,000부 발행 : 월간, 3만부 학생 등 젊은 층 공략 배포
    -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대표 정책 정보 접자간행물 '손 끝으로 읽는 국정' 제작
      - 15,600부 발행 : 월간, 1천3백부 시각장애인 대상 배포
  - 주요 정책 및 현안 홍보 비정기 간행물 발간 : 828,000부
    - 국민생활 정책정보 제공, 문화융성 체감사례집, 경제혁신 3개년 홍보 자료, 대통령 연설문, 고향가는 길 등 10종
- 정책정보 사각지대 및 무관심 계층을 위한 홍보 콘텐츠 개선과 정책홍보 소외 대상자 정보 접근 편의성 확대
  - 만화정책지 : 친근한 콘텐츠 젊은 주제 지향 젊은 층 타깃 홍보
  - 접자간행물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보이스 아이스 활용 오디오 북 기능 수행
- 디지털 매거진(탭진), <위클리공감>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One Source Multi Use 확산
  - \* [운영실적] 탭진(누적다운로드 223,352건), 블로그(총 방문자 1,066,132명), 트위터(팔로워 33,653명), 페이스북(총 방문자 411,401명), 유튜브(조회수 9,892) 등
- 정책홍보 간행물 제작 관계자와 수시 협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홍보의 효율성 제고
- 지속적인 정책간행물 품질 제고 및 배포처 개선 지속 노력
  - 매호 지속적 정책홍보 콘텐츠 보강 및 표지 등 디자인 개선
  - 정책 수요층, 오피니언 리더, 다중이용 장소 등 맞춤형 배포
- 국정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기획 특집페이지 및 정책포커스 코너 운영,

주요 이슈 홍보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에 기여

- 「특집페이지」 내실화로 주요 국정과제(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등에 대한 대국민 설득 및 공감대 확산 및 주제별 종합서비스 제공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등 특집 페이지 제작 운영
- 찾아가는 홍보,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국민과 정부와의 원활한 정책 소통을 위해 정책기자단의 정책현장 취재 강화
    - \* 2014년도 제7기 정책기자단 운영(150명), 12월말 현재 707건 기사 생산
    - \* 생산된 콘텐츠는 정책기자마당(정책브리핑의 하위 사이트) 게재
  - 생활정책 서비스 강화를 위한 희망사다리 특집페이지 구축, 운영으로 알면 힘이 되는 정책 정보 제공
  - 부처별 인포그래픽, 카툰, 동영상, 사진 등 국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용력이 큰 연성 콘텐츠 수집 및 윈스톱 제공
- 민간포털 등 외부 사이트와의 콘텐츠 제휴 연계를 지속 강화하여 일반인의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
  - 3대 민간포털, 주요 공공포털, 법률저널·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기관 홈페이지 콘텐츠 제휴를 통한 정책정보 확산
  - 주요 정책키워드를 개발, 관련 정책정보를 온라인 콘텐츠로 요약·구성하여 민간포털 키워드 검색시 해당정보 노출
    - \* '14 등록키워드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 '소셜메타블로그' 메뉴 운영(<http://social.korea.kr>)으로 부처별 운영 중인 블로그, SNS 콘텐츠를 연계·종합서비스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이용 편리성 제고
  - 국정과제사진 등 국가 주요현안을 활용한 전 부처 기록사진 수집 및 공유로 온라인 사진 전시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각종 정기·비정기 간행물 경우, 타겟독자들의 콘텐츠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 강화를 지속 추구해 볼 만함
  - ☞ 주민자치센터·우체국 등 공공장소와 열차 등 다중이용 장소에 주로 배포되는 정기간행물(위클리 공감, 카툰공감)을 대상으로, 년 1회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정책브리핑(정책포털) 대한 외부 사이트와의 콘텐츠 제휴 연계 체제의 실질적 효과 가시화를 통해 보유매체의 위상을 제고
  - ☞ 민간포털, 공식메일 등을 활용한 정책뉴스 확산
    -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 및 방문자 유입 확대를 위해 민간포털과 지속적인 연계 강화 추진
      - 민간포털에 정책 키워드 등록절차(등록기준 포맷·가이드 등) 효율화 추진
    - ※ 모바일 검색 추세에 맞는 정보 구성 및 정책키워드 노출
    - 공식메일 이용 시 주요정책 자동 노출로 정책브리핑 유입 도모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현안 관련 각 부처 정책방향, 주요쟁점 등을 종합한 정책정보지를 매주 제공하여 정부 부처 정책홍보에 활용하고 정책 환류 개선에 기여</li> <li>▪ 서민 맞춤형 정보 등 각 부처 정책정보 제공, 주요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기획 특집페이지 운영 및 이슈포커스를 통한 현안 홍보, 주요 이슈에 대한 홍보 프로모션 등으로 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는 등 매체 파급력 강화</li> </ul>
--	-------------------	----	----------------------------------------------------------------------------------------------------------------------------------------------------------------------------------------------------------------------------------------------------------------------------------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개 세부 추진계획 중 26개 추진계획은 일정 대비 정상추진</li> <li>- 1개 추진계획은 일정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2/4분기 정책기자단 운영 및 사이트 홍보 프로모션 추진 계획 일부 지연</li> </ul> </li> </ul>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정책포털간 정책정보 연계와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과 콘텐츠 제휴 및 동시 검색 체제 구축</li> <li>▪ 정책브리핑-서울신문사 간 콘텐츠 공급 업무협약(2014.1.28 ~ 2016.1.27.) 추진</li> </ul>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자 맞춤형 정보가이드(서민정책), 문화융성 체감사례, 만화로 엮은 경제이야기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간행물 발간</li> <li>▪ 교수·연구원·언론인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 기고를 통해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공정한 의견 제시</li> </ul>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포털 콘텐츠 만족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61.5 -&gt; (실적)69.3 : 초과 달성</li> </ul> </li> </ul>

## □ 총평

- 온라인 환경변화에 발맞춰 정부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의 안정적 운영 및 모바일 채널 신설로 대국민 접점을 확대하고 온라인 이슈에 대한 부처 협력 강화로 정책 소통 활성화
  - 정부대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통 채널의 안정적 운영·영상 서비스 중심의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는 한편, 모바일 중심의 카카오톡 채널 개설로 정책 콘텐츠 확산은 물론, 국민의 정책 이해도 및 친근감 제고
  - 정부부처 제작 콘텐츠의 모바일 최적화 방안 마련 및 부처 간 공유로 모바일 이용자 급증 추세에 적극 대응
    - \* 모바일 플랫폼에서 인포그래픽, 영상, 웹툰 등 비주얼 콘텐츠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제작 시 반영해야 할 디자인 규격을 제시
  - 국정과제 및 주요 홍보현안에 대하여 부처 협력을 통한 연계 홍보 추진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 및 홍보 효율성 제고
- 국민 참여 프로모션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정책 수혜자가 직접 정책 홍보에 참여하는 프로모션 진행을 통해 소통 활성화
-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SNS 및 부처 대표 SNS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SNS 활용 기반 확산 및 소통 활성화 제고
- 정책홍보 관련 전문가·사회단체·기업 등과 교류·협력, 국민제안 및 의견 수렴, 국민참여형 홍보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수용자 중심'의 정책 소통 활성화에 기여
- '정부중심 홍보' → '국민중심 소통' 정책소통 활성화 전략 및 체계적·지속적 추진 기반 마련('15년부터 재정사업화)

## □ 주요 성과

- 모바일 이용자 급증 추세에 적극 대응, 온라인 소통 강화
  - 카카오톡 사용자 급증 추세에 발맞춰 모바일 전용 SNS 카카오톡스토리 채널(대한민국 정부\*)을 개설 및 운영
    - \* 2014년 1월 개설, 친구수 18만9004명('14.12.22 현재), 평균 댓글수 100여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 운영 지속, 푸시메시지로 정책 전달
    - \* 2013년 6월 개설, 친구수 28만7473명('14.12.22 현재)
  - 모바일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노출 최적화 방안을 마련, 부처와 공유('14.6월)
- 시각 콘텐츠를 활용한 정책홍보를 위해 SNS 유튜브 채널 활용을 강화하고 부처와 함께 시각 콘텐츠를 제작 및 활용
  - 영상 소비 확대 추세에 발맞춰 영상 중심의 SNS 유튜브를 활성화하여 정부대표 페이스북 등 다른 SNS와 연계 운영
    - \* 친구수 11만6701명(부처 1위), 조회수 4114만3355회
  - 멀티미디어 콘텐츠(영상/인포그래픽/웹툰) 제작 지원 및 유튜브 광고 지원을 통한 부처 홍보 지원
    - \* 영상 12편, 인포그래픽 4편, 웹툰 5편 등 21건 제작 지원 및 유튜브 광고 지원(영상 8편, 833만여회 노출, 98만여회 시청)
- 정책수혜자의 정책홍보 직접 참여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층 대상 정책들에 대해 정책수혜자인 대학생들이 '청년 정책 홍보 공모전'을 통해 직접 홍보기획안을 입안하고 실행토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부 정책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에 기여
- 온라인 홍보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
  - 온라인홍보전문가 및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온라인 자문회의 구성, 온라인 트렌드 및 정책홍보 환경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정책 홍보에 반영
  -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워크숍 계기 민간포털 관계자 및 온라인 홍보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강연자로 초빙, 부처 온라인 대변인 및 온라인담당자 대상 교육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온라인대변인 회의체 운영을 통한 정부 온라인 홍보 역량 제고 및 부처 협력홍보 체계화
  - 최신 ICT트렌드 분석, 우수 홍보사례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홍보 기법 함양 및 온라인 홍보 역량 강화
  - 부처 협력홍보를 통한 국정과제 확산 및 주요 홍보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확산
-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수렴 추진
  - 정책 소통방안 마련 국민 참여기회 제공 및 공공PR 저변 확대를 위해 「대국민 소통방안 아이디어 논문 공모전」 개최(9월~11월)
  - 정책에 대한 사회적 소통 활성화 및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학생 공공 커뮤니케이션 콘테스트」 개최(9.26)
    - \* △(주제) 청년·대학생 관점 세대·계층별 국민생활공감 정책의 창의적 소통 방안 △(참여) 언론·홍보 관련 학과 학생 및 동아리(지도교수 참여)
  - 대학생과의 소통 창구 마련 및 참신한 정책소통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대학생 소통 자문단 운영(「대학생 소통 포럼 Next」 / 7~11월)
    - \* 전국 5개 대학 참여(국민대 등), 1차 성과회의(8.13/부산), 2차 성과회의(10.31/서울), 최종 성과 발표회 개최(11.28./서울)
-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형 홍보사업 추진
  - 국민이 직접 체험함 정책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개인 SNS등을 통해 스스로 확산하는 「국민리포터」 운영(5회/ 대학생 등 93명 참여)
    - \* △기상행정 체험행사(5월, 기상청) △대국민 법률지원서비스 현장방문(7월, 법률구조공단) △인천 아시아경기대회(9월, 인천) △인천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10월, 인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10월, 기재부)
  - 문화예술 활용, '소통'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생활정책 현장 이야기 및 사진 공모전」 개최(4~5월)
    - \* △(접수) 총 277점(이야기 81, 사진 196) → (선정) 총 21점(이야기 11, 사진 10) △(홍보) 소관부처 홍보활용 협조요청(5.21), 위클리공감 게재(6월호, 4회), KTV 자막홍보, 각부처 홈페이지 배너 등록, 언론 보도 등
-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 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 정부정책과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의 공익 활동 교차 접점 발굴, 3자 업무협약 체결로 민간 공동캠페인 추진과 사회적 확산 도모

<'문화예술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추진>

- △ 우리부-기업(신한생명)-시민단체(청소년폭력예방재단) 3자 MOU 체결('13.3.25)
- △ 2014년 학교폭력 예방 창작뮤지컬 '유령친구' 전국 중고등학교 순회공연 지원
- 총 24회 : (상반기) 3.19~5.2 / (하반기) 9~11월 / 14,000여명 관람(학생, 교사, 학부모 등)

- 「전 국민 합창대회(2.22)」 개최 지원을 통해 국민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 확산
  - \* △(목적) 합창을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과 화합의 메시지 전파 △(내용) 전국 규모 아마추어 합창대회 개최 및 TV프로그램 제작·방송 △(제작)'13.12월~14.2월(KBS) //(방송) 3.6목~3.9일(총 4회) KBS 1TV △(협력) 문체부-KBS/현대자동차 간 MOU 체결('13.6/8)

<합창으로 함께 여는 세상 '하모니' 대회 개요>

- △ (일시/장소) '14. 2. 22(토) / 여의도 KBS홀
- △ (참여) 50명이하 아마추어 합창단 총 101팀 / 3,252명(본선 23개팀)

- 정책홍보 관련 전문가 그룹과 교류·협력 추진
  - 홍보관련 학계와 정례적 교류·소통 채널 구축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세미나 개최(5월, 11월)
    - \* △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적 문화가치 확산」 (5.30) △ 「정부 3.0시대의 PR전략, 문화정책 라운드테이블」 (11.28.) △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방안」 국회 세미나(11.7)
  -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 방안'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로 홍보 전문가 간담회 운영(연간 10회)
    - \* △권역별 간담회(충청권 2.13, 수도권 2.25 등) △2차관, 홍보관련 학회장 간담회(4.11) △정책소통 방안 관련 간담회(4.16, 6.9, 7.17, 9.4)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민관 합동 토론 및 매체활용(위클리공감, 정책브리핑 등) 홍보를 위해 국민생활정책 「紙上 좌담회」 개최
    - \* ('수돗물 안전 정책' 좌담회/5.1) △ (참석) 환경전문가, 소비자단체, 환경부, 문체부 관계자, 홍보전문가 △ (내용) 수돗물 안전정책 설명 →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의견제시, 토론
- 민의수렴과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소통 활성화 전략 및 추진기반 마련
  -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14.4~7월 /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 및 추진계획(정부예산안) 마련

- 학계 후속논의 활성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14.11.7 / 김태년 의원실·PR학회 공동)

\*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신규사업 반영 개요> △(의견수렴) 열린소통포럼 개최 △(학계협업) 새로운 공공PR기획 세미나 등 지원 △(국민참여) 민생 정책현장 국민리포터 지원 △(민관협업) 집단지성 홍보기획 및 사회적 홍보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전달형 홍보 지양, 감성적/문화적 접근 방식과 콘텐츠의 활용 확대
  - ☞ 문화 행사 계기 활용 정부 정책 수혜자 중심의 홍보 프로모션 추진 및 문화 감수성 고려 부처 홍보 콘텐츠 제작 활용 확대
- 최근, 주요 부정적 이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생성·확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여론에 대한 분석 기능 강화 필요
  - ☞ 유연비어 차단을 위해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단문서비스(MMS) 통해 관계부처에 즉각 전달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개 세부 추진계획 중 33개 추진계획은 일정 대비 정상추진</li> <li>- 1개 추진계획은 일정 지연</li> <li>* “PR, 청년에게 묻다” 콘테스트 개최(‘14.5월) 지연</li> </ul>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대변인 협의체 운영(44개 중앙행정기관, 월 2회 회의 개최)</li> <li>▪ 민관협력 공익캠페인 전개(신한생명, 청소년폭력예방재단)</li> <li>▪ ‘국민생활정책 현장 이야기 및 사진 공모전’ 개최 협력(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li> </ul>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부문의 협업으로 생활밀착형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체험 프로그램 발굴</li> <li>▪ 부처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실시(총 21건, 6~11월)</li> </ul>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대표 SNS 친구수(만명)</li> <li>- (목표)23 -&gt; (실적)65 : 초과 달성</li> </ul>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소통 관련 다양한 국민참여 기회 제공으로 의견수렴 등 양방향적 소통 노력 강화</li> <li>* 생활정책현장 국민리포터, 정책소통방안 논문공모전, 대학생소통포럼 등</li> <li>▪ 전문가, 학계, 기업 및 NPO, 국회 등과 정책소통 관련 교류·협력 활성화</li> <li>* 국회-홍보학계 특별세미나 공동개최, 사회단체-기업 협력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li> <li>▪ 다양한 방식의 SNS를 활용한 참여형 프로모션을 통해 주요 정책정보의 효과적 전달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li> </ul>

## □ 총평

- 케이블·위성·IPTV·인터넷·모바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부정책 등 공공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정책 공급자와 수혜자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 국민들의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임.
- 국정비전 홍보강화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크게 기여
  -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국정과제 등 집중 조명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 시청자가 찾아보는 국민희망채널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친화형 프로그램 확대
  - 국민 편익을 위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 확대
  - 문화융성 체감도 제고 및 인문 정신문화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시청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NS, 인터넷라디오 등 플랫폼 다변화 및 저채널화를 위한 채널 마케팅 적극 노력
  - 정책영상콘텐츠 허브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스마트 미디어 응용 콘텐츠 개발·유통 강화
  - 채널인지도 제고 및 시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채널 마케팅 추진
- 정부 3.0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정부 부처 간 정책홍보 협업을 강화하고 정부부처 보유 TV매체와 프로그램 교류 실시, 민간에 정부 영상자료 등 공공저작물 자율이용 확대 조치
- 세종청사 방송시스템 이전 및 신규 구축 완료, 서울 스튜디오 운영 추진으로 보다 향상된 방송 서비스 기반 마련
  - 세종청사 방송시스템 성공적 구축으로 중단 없는 방송실시
  - 서울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임차료 등 2,680백만원 확보

## □ 주요 성과

## ○ 국정비전 홍보 강화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 4대 국정기조 소통 강화 프로그램 제작 방송

- \* 국민행복: 추석물가, 에볼라, 재난대응 등 생활 및 안전정보 관련 뉴스 보도, 한기우 안전가이드라인,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수산물 안전점검 등 정부 정책 보도, '집중 인터뷰' 등을 통하여 보험사기 대처, 금융투자상품 대책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달 등
- \* 문화융성: 인문학열전(주1회), 파워특강(주1회), 작가 김주영의 길 위에서 예술을 묻다(주1회), 방방곡곡 국민행복 리포트(주1회), 귀농다큐 살어리랏다(주1회), 문화융성의 길잡이 지방문화원 소개(33회), 문화가 있는 삶(18회), 국악콘서트 울림(주1회),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9.19~10.5) 등
- \* 경제부흥: '관광, 고용의 성장엔진', '이제는 경제다', '9·1 부동산 대책' 등 기획시리즈 보도, '규제개혁장관회의', '창조경제타운', '한중FTA' 등 정부의 경제부흥 정책 보도(일 1회 이상),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7시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 4시간), 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9.17),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10.10) 등 특별생방송 등
- \* 평화통일기반 구축: '통일로 내일로', '통일로 가는 길' 등 전문가 대담 프로그램, 이산 가족 상봉, 드레스덴 구상, 북 미사일 발사, 통일준비위 등 계기별 뉴스 보도, 통일 콘서트 공감(주1회), 우리말 하나 되기(주1회) 등
- 정부부처 정책발표 및 성과 홍보 확산
  - \* 중계 프로그램: 정책브리핑 현장 생중계(111회), VIP순방행사, BH주요행사, 부처 업무 보고 등 중계(58회)
  - \* 기획 프로그램: 정책점검 정책제안(22회), 정책토크 만나소통(10회), 창조경제, 공공기관이 주도한다(9회), 정책과 여론(27회), 여기는 세종(65회), 비정상적 정상화, 정책 현장 속으로, 9.1부동산 대책 등 기획시리즈, 미니다큐 정책인(4회) 등
  - \* VIP 해외순방 계기 홍보 프로그램: 인도·스위스 국민방문-'창조경제 협력과 세일즈 외교의 길'(1.24)/네덜란드·독일 국민방문-'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그리다'(3.31), 중앙아시아 3국 순방-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하다(6.23), 캐나다·미국 순방 결산(9.29), 박근혜 대통령 ASEM 참석과 이탈리아 방문(10.20), 대통령 순방-'경제영토와 평화의 길을 넓히다'(11.19) 등
  -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정책소개 프로그램: 지역이 미래다(30회), 창의교육, 대학의 길(37회), KTV 중계석(수시) 등

-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민공감 유도를 위한 국민기자단 운영
  - \* 지방주재 기자가 없는 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방송 제작
  - \* 캠퍼스기자 57명, 시니어기자 19명, 주부기자 12명, 글로벌기자 1명 등 총 89명
  - \* 국민리포트 1,094건 제작 방송('13년도 794건)
- 국민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환류 기능 강화
  - \* 방송자문위원회(10인) 및 KTV 방송 모니터 운영(시청자 모니터 5명, 전문 모니터 5명)
- 우수프로그램 제작 노력
  - \* 방통심의위 '14년 9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 KTV특별기획 '만남' 2부작

### ○ 플랫폼다변화 및 채널마케팅 강화를 통한 정책콘텐츠 확산

- KTV 인터넷 라디오 방송채널 '포피' 개국(4.7~)
  - \* 라디오 팟캐스트(podcast) 자체제작 방송(6.30~)
- 정책콘텐츠 허브 기관 구축 기반 마련
  - \* 정책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스토리지 확장(100테라바이트)
- 스마트 미디어 정책콘텐츠 개발·유통 강화
  - \* 유튜브 업로드 수 1,439건, 조회수 1,517,816건
  - \* SNS용 동영상콘텐츠 자체 제작 428건, 조회수 364,947건
- SNS(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를 통한 정책 콘텐츠 확산
  - \* SNS 매체별 이용현황 : 페이스북 13,097명, 트위터 70,495명, 블로그 1,926,044명
- KTV 뉴스 속보 SMS(단문서비스) 제공
  - \* 주요 고객 3,100여명 대상, 1일 1회(주 5회) 이상 발송
- 정부부처, 유관기관, 민간포털(네이버, 다음, 판도라, 곰TV 등)내 KTV 콘텐츠 제공
  - \* 정부 45개 부처 대상 뉴스레터 6,214건/ 민간포털 29,841건 제공
- 타매체, 유관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장
  - \*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국립수산과학원 등 10개 기관)
-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플랫폼 다양화
  - \* 인도네시아 한인방송(The Korean Channel)과 MOU 체결(12.6)
- 미래부·MSO 등 관계기관 방문 등 저채널화 마케팅 지속 추진

- \* '14년 저채널화 실적
  - 위성방송(sky life) 161→151(HD), IPTV(올레TV) 215→63번, HCN(서초 715·동작 600)→432(디지털), CJ헬로비전(전북·영서·호남(목포)·나라(의정부) 등 4개 지역)→536번 동일 채널번호 편성
- 정부부처 간 정책홍보 협업 강화 및 영상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 정부부처 주요 정책현안 KTV 인터넷 생중계,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중계 및 관련영상 제공(생중계 협업 303건, 영상제공 230건)
  - 정부 보유 TV매체 간 프로그램 교류 협업(15개 기관 49건 교류)
  - KTV 영상물 등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 \* 정부 3.0 T/F 구성, 상시 지원 체계 구축(7.25.)
    - \* 직원 역량 강화 및 관심 고조를 위한 정부 3.0 교육 및 개방 환경 마련을 위한 외부전문가 컨설팅 실시(4회, 180명)
    - \*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사업규정」 내 제14조(이용료) 규정 개정, 자유이용 확대(한국저작권 위원회에 등록된 국유재산 제외)
  - '정부 3.0 협업 우수 사례 프로그램' 제작 방영으로 대국민 홍보
    - \*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군인가족들의 'MOM편한 공동육아나눔터'(국방부, 여성가족부 부처 협업)
    - \* 「100년의 행복, 희망대한민국」 행복한 워킹맘 만들기, 공동직장 어린이집 소개(고용부 산업부 협업) 등'
  - 정부 3.0 취지 부응, 유관기관 간 '협업 통한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 제작
    - \* KTV 탐/방/기/획 『국립현대 미술관을 가다』 시리즈기획 10편 제작·방송
  - 대한뉴스 등 정부기록영상 HD 디지털 변환 추진, 민간활용도 등 제고
    - \* 대한뉴스 예비촬영필름(50시간), 대한뉴스 필름(250시간) 분량

### ○ 세종청사 방송시스템 신규 및 이전설치

- 새 방송환경에 적합한 방송장비 신규 구매(704식) 및 기존 방송 장비 이설(2,043식)
  - \* 방송환경공사 65억원, 방송장비 구매 및 이전설치 112억원 소요
- 인터넷 방송을 위한 전산장비 세종청사 이전 설치
- 4K UHD방송기술 변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스튜디오 설비 구축
  - \* 운영의 편리성 확보, 4K Live카메라의 안정성 향상, 향후 확장 가능한 설비 구축 등
- 청와대 등 수도권 소재 기관 취재·보도를 위한 서울 스튜디오 운영 추진
  - \* 스튜디오 임차료 등 2,680백만원 확보, 아리랑TV 대상 임차 계약체결(12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및 조치계획

- 매체환경 변화로 시청자들의 매체소비태(시청시간 및 이용기기)도 변화함. 따라서 콘텐츠 노출량(도달범위와 빈도)의 측정치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치 개발하여 목표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시청자들의 매체소비태도 변화에 따라, 인터넷 방송 조회수 및 모바일 방송 조회수를 통계화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성과지표에 반영 추진 예정
    - '14년 인터넷 방송 조회수 14,936,819건, 모바일앱 조회수 1,245,347건
  - ☞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새로 도입·추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적용하여 매체환경 변화로 인한 시청자들의 매체소비태도 변화를 반영토록 할 예정임
    - 통합시청점유율은 기존의 고정형 TV 실시간 시청률에 비실시간 주문형비디오(VoD), N스크린 서비스 시청 시간(PC, 스마트폰)을 합산한 것으로 방통위에서 '16년 시범 실시 후 '17년 본격 시행 예정
- 공공기관, 은행, 주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KTV에 대한 노출을 증대시키고 화제&이슈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
  - ☞ 현재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KTV 채널 배너 광고를 통해 국민들의 채널인지도와 채널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 밖에 KTV채널을 노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 화제, 이슈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15년에는 다각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도하고 있음
    - '정책 퀴즈 쇼(가제, 주1회/50분) : TF팀 1월 구성/3월 파일럿 제작
    - '정책 & 이슈' :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찬반 토론 등을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15.1월 첫방송, 주1회, 60분)
    - '나도 스타 공무원!'(가제, 주1회/30분) : 각 부처, 산하기관의 스타공무원 발굴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대국민 신뢰도 향상, 친근감 확대 등
    - '당신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가제, 주1회/30분) : 광복 70주년 계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유·무명 '근대사 주역'들을 찾아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국가발전의 과정을 되짚어 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집행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개 세부 추진계획 모두 일정 대비 정상추진</li> </ul>
	1-2. 관련기관 협업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매체, 유관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수산물학원 등 10개 기관 업무협약(MOU) 체결</li> </ul> </li> <li>▪ 정부부처, 유관기관, 민간포털(네이버, 다음, 판도라, 공TV 등) 내 KTV 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45개 부처 대상 뉴스레터 6,321건/ 민간포털 29,908건 제공</li> </ul> </li> </ul>
	1-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V만의 정체성·독창성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토크 만사소통」, 「열혈공무원의 정책강의」, 「활짝 청와대 이야기」 등</li> </ul> </li> <li>▪ 미래부·MSO 등 관계기관 방문 등 저채널화 마케팅 지속 추진</li> </ul>
정책 성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V 시청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0.076 -&gt; (실적)0.068 : 목표 미달</li> </ul> </li> <li>▪ SNS 사용자 조회수(천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600 -&gt; (실적)1,523 : 초과 달성</li> </ul> </li> </ul>
	2-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국정기조 관련 프로그램 제작, 정부 부처 정책발표 생중계 등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제작·방송으로 국민들의 정부 정책 공감대 확산에 기여</li> <li>▪ 방송시청이 SNS, 모바일로 옮겨가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SNS, 모바일 등 플랫폼을 다양화하였고, 실제로 SNS 조회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13년 496,098건→'14년 1,523,549건)</li> </ul>

####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미흡·부진 과제 및 사유	개선·조치계획
<p>○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양적 성장에 비해 서비스 기반(인력, 예산)이 부족</li> <li>-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도서관(공공, 작은)에 대한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한 지원이 필요</li> </ul>	<p>○대국민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 도모</p>
<p>○고객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월호 사고로 인해 사립박물관 1관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80% 달성) 목표치 미달성</li> </ul>	<p>○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행('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사 선정기준 강화 등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li> <li>- 박물관, 협회, 관련기관을 연계하여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홍보 추진</li> </ul> <p>○기획전시 건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행('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사업관 선정 심사 시 기획전시 개편건수 등 전년도 실적 반영 검토</li> <li>- '15년도 사업설명회('15. 1월) 개최 시 기획전 개최 독려 안내</li> </ul>
<p>○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도 종교문화시설 13개소(지자체 9, 민간 4) 중 사업취소(2개소) 및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하여 이에 대한 대책 필요</li> </ul>	<p>○향후 지방비 확보 상황 점검 등 사업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추진 독려 등을 통해 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추진</p>
<p>○국립한글박물관 개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주변 유동인구가 적고 대중버스 노선이 제한적이라는 박물관 입지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박물관 관람객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li> </ul>	<p>○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글박물관 홍보로 박물관 인지도 제고 추진</p> <p>○한글 관련 단체관람객 유치 확대 및 전시해설·교육·문화행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추진</p>
<p>○한국문화저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특성상 유럽지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전시 공간 대관이 지연되어 순회 지연</li> <li>- 순회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관 가능여부 등 현지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 필요</li> </ul>	<p>○우수프로그램 공연·전시 공간 대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사업계획 수립 추진하겠음</p>
<p>○국립현대미술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계와의 소통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한국 현대미술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미흡</li> <li>-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국외작가 작품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추진 필요</li> </ul>	<p>○미술계와의 소통 및 협력체계 공고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기획의도에 적합한 다양한 작가군 구성</li> <li>- 전시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평론, 미술사가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확대(외부전문가의 전시자문, 전시평가의 확대)</li> </ul> <p>○국외작가 작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계적 작품 수집</p>
<p>○국립국악중고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학교의 특성상 국내외 공연이 교육과정의 중요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공연이 국고가 아닌 전통예술진흥재단 등 외부 지원에 산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공연 운영에 한계가 있음</li> </ul>	<p>○국내외 공연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획적이고 충실한 공연 운영 및 역량있는 전통예술 인재 육성토록 노력</p>

미흡·부진 과제 및 사유	개선·조치계획
<p>○국립전통예술중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실시한 학교 건축물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인문관(예술관)과 기숙사 일부 보 및 기둥의 내력이 부족하여 구조보강 필요</li> <li>- 성과지표 중 '학교 교육활동 평가 만족도' 목표달성 노력과 함께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목표치의 합리적 재설정 필요</li> </ul>	<p>○현행 내진설계 대상시설물별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내진보강을 하고, 지진위험도가 있는 시설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내진보강 수행('15년 예산 미확보, '16~'17년 예정)</p> <p>○2015학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분석 및 평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활동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p> <p>○'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재검토</p>
<p>○국악방송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족도가 목표대비 미달하였으며, '13년보다는 다소 향상되었으나 '11, '12년 만족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청취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li> <li>* 청취자 만족도 '11년 74.2, '12년 74.8, '13년 71.5</li> </ul>	<p>○국악 장르별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에 맞춰 판소리 전문(남상일의 소리소문), 노래 전문(국악대간 노래를 찾아서), 민요 전문(창악집성), 풍물 전문(풍물기행)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노력</p>
<p>○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 기술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사업화 중심의 과제도출의 확대 필요</li> </ul>	<p>○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창의적, 시장 선도적 과제도출을 위해 실수요자인 예술인, 콘텐츠 업계 종사자 등 민간 전문가의 과제기획 참여기회 확대 추진</p>
<p>○콘텐츠 창의인재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멘토링 프로그램 종료 후 청년 창작자들의 다양한 콘텐츠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지원(창작대위 지원 등) 확대 고려 필요</li> </ul>	<p>○젊은 신인 창작자들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작 지원 프로그램 신규 운영 추진 및 수요생 경력경로 전수 추적조사를 통해 사업 개선 반영</p>
<p>○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연수원 등 교육기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저작권 내용을 초·중·고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li> <li>- 저작권 존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그동안 주 콘텐츠이용층에 집중되었던 홍보를 전 국민 대상의 광범위한 홍보로 확대 필요</li> </ul>	<p>○청소년 저작권 교육 홍보·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연수원 및 국·검·인정 교과서 집필진 등 워크숍 조기 실시 및 네트워크 강화('15. 2~)</li> <li>- 보상금관리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효율성 및 효과 극대화</li> </ul> <p>○저작권 내용의 교과서 내 체계적 반영을 위한 초·중등 교과내용 연구 및 SW 관련 교과(실과 등) 내 저작권 내용 반영 연구('15. 3~)</p> <p>○생활 속 저작권 존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광고뿐 아니라 방송프로그램 내 소재 반영 등을 통해 저작권 홍보 추진</p>
<p>○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12월초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 문화재 유적(조선시대 주거지 토층, 자기 파편 등)발견에 따른 문화재청의 문화재 시굴조사 추가 이행 통보로, 시굴조사 지역(34,950m²/사업부지 면적50%)에 대한 공사 시행 불가로 공사 실 착공 지연중이며, 이에 대한 대책 필요</li> </ul>	<p>○문화재 시굴조사 이후 공사 조속 추진('15.4월 착공, '17.3월 준공 계획)</p>



미흡·부진 과제 및 사유	개선·조치계획
<p>○생태기반의 지역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 기존 관 주도의 인프라 조성에 치중하거나 사업비 지원 관행으로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개발 사업의 이해 부족 및 참여도 미흡 - 슬로시티 지역별 고유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부족으로 관광목적지로서의 다양한 자원 활용 전략 부재</p>	<p>○현 10개 지역 일류지원방식에서 공모사업으로 부분 전환하여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발굴 추진 ○사업지별 예산 차등 지원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방식 질적 제고 추진 ○ 지역별 고유의 야생화를 활용한 야생화 단지 조성, 웰빙·힐링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추진</p>
<p>○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 한일 관계 영향 및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한 방한 일본관광객 감소세 지속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p>	<p>○2015년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한-일 관광교류활성화 - ①한일 관광교류의 해 선포식 ②홍보대사 임명 및 마케팅 활용 ③일본 관광업계 대상 대규모 팸투어 실시 ④ KOREA week in Japan 추진, 지자체 및 청소년 교류 확대 등 추진 ○ 일본 인바운드 여행업계 긴급 융자 지원 등 추진</p>
<p>○문화관광의 올림픽특구 개발 - 특구 지정 이후 지역의 현안사업 반영, 사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특구종합계획 보완·변경 필요</p>	<p>○특구지정 변경 요청(강원도→ 문체부) 및 관계 중앙부처 협의 추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대외지원위원회 심의 및 변경 고시 추진</p>
<p>○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매년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여전히 체육시설의 접근성은 높지 않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도 미비함</p>	<p>○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접근성 및 불균형 문제 해소 추진</p>
<p>○학생스포츠 참여 제고 - 시도교육청의 지방비 확보가 미흡하여 당초 계획(3,077명)보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실적(2,911명) 저조</p>	<p>○계획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독려 추진('15.2월)</p>
<p>○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 조성 - 국책성 보다는 단기소액과제 중심으로 추진되어 시장이 체감하는 대표성과가 부족하고, 전문기관 기능도 부족함</p>	<p>○사업목표 명확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스포츠산업기술 기반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개선을 과제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p>
<p>○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 각종 정기·비정기 간행물 경우, 타겟독자들의 콘텐츠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 강화를 지속 추구에 불만함 - 정책브리핑(정책포털) 대한 외부 사이트와의 콘텐츠 제휴 연계체제의 실질적 효과 가시화를 통해 보유매체의 위상을 제고</p>	<p>○주민자치센터·우체국 등 공공장소와 열차 등 다중이용 장소에 주로 배포되는 정기간행물(위클리 공감, 카툰공감)을 대상으로, 년 1회 조사를 실시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 및 방문자 유입 확대를 위해 민간포털과 지속적인 연계 강화 추진하고 공식메일 이용 시 주요정책 자동 노출로 정책브리핑 유입 도모</p>
<p>○한국정책방송원 운영 - 매체환경 변화로 시청자들의 매체소비태(시청 시간 및 이용기기)도 변화함. 따라서 콘텐츠 노출량(도달범위와 빈도)의 측정치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치 개발하여 목표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은행, 주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KTV에 대한 노출을 증대시키고 화제&amp;이슈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p>	<p>○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시청자들의 매체소비태도 변화에 따라, 인터넷 방송 조회수 및 모바일 방송 조회수를 통계화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성과지표에 반영 추진 ○현재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KTV 채널 배너 광고를 통해 국민들의 채널인지도와 채널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 밖에 KTV채널을 노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p>